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2021년도 사업 최종보고서





목 차

1부: 사업 결과보고

I. 사업 개요

1. 사업 소개	4
2. 사업 목적	4
3. 추진 현황	5
(1) 사업 추진체계 및 흐름도	5
(2) '12-'21년도 사업 추진 현황	7
(3) '21년도 추진개요 및 실적	9
(4) 대상국 교육부 성과·비전 공유	14

II. 사업 내용

1. 세부 추진 내용	24
(1) 유관기관 협의회	24
(2) 연구회 및 참여 교사 선발	24
(3) 참가교사 사전 연수	24
(4) 온라인 교육교류 활동	24
(5) 교육활동 보고회	25
(6) 온라인 교육 교류를 위한 통합 네트워크 'NETS' 구축	25
(7) 성과분석연구	25
(8) 성과보고회 겸 컨퍼런스(2021 SSAEM Conference)	25
2. '21년도 사업 추진 경과	26
(1) 연구회 및 참가 교사 선발	26
(2) 실시간 온라인 수업 중간 모니터링	26
(3) 최종 활동 보고서 제출	26
(4)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초청교사용)	26
(5)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26
(6) 하반기 4개국 교육교류사업	26
(7) 성과분석연구	27
(8) 2021 SSAEM Conference 개최	27



목 차

Ⅲ. 기타 주요자료

- 1. 참가 교사 및 학교 명단 30
- 2. 주요 기관 담당 부서 및 관계자 명단 34
- 3. 참가 후기 35
- 4. 언론보도 및 기타 성과 확산 37

2부: 참가교사 활동 보고

I. 국내학교 우수사례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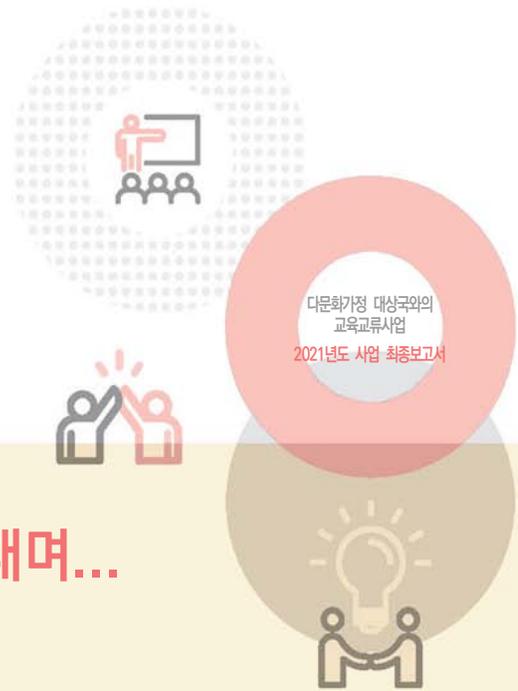
- 1. 수업 보고서 62
- 2.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69
- 3. 최종 활동 보고서 83

II. 현지학교 우수사례 모음

- 1. 수업 보고서 98
- 2.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106
- 3. 최종 활동 보고서 120

Ⅲ. 공모전

- 1. 공모전 수상자 명단(국내외) 134
 - (1) 국내 시상 134
 - (2) 국외 시상 134



보고서를 펴내며...

본 자료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주관으로 추진된 「2021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의 교육교류사업」(구.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의 교사교류사업」. 이하, 교육교류사업)의 결과 보고를 위해 작성되었다. 국제 교육교류와 교육 ODA분야에 쏟아지는 많은 관심에, 2021년도 사업의 경과와 학교 현장에서의 해당 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공유함으로써 이에 부합하고자 한다.

〈1부〉에서는 본 사업의 개괄적인 구성과 흐름의 이해를 돕고자 2012년도부터 진행 중인 교육교류사업의 개요와 흐름을 살펴보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교육교류사업에 대한 2021년도의 개요 및 추진 방식과 성과 등을 자세히 수록하였다. 〈2부〉에서는 2021년도 교육교류에 참여한 교사들의 활동을 담아낸 보고서 중 몇 가지 사례를 선별·수록하여 교실에서의 교류 활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참가 교사들이 교육교류활동을 수행하면서 마주한 도전의 순간들과 이를 겪어 나가며 보다 성숙한 교사로서 거듭나는 모습, 그리고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매 순간 발전적인 방향으로 교육활동을 추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 교민의 흔적들을 볼 수 있다.

본 사업은 참가 교사의 직접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활동한 학교의 학생들과 동료교사의 인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정된 지면으로 인해 본 보고서에는 참가 교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성과만을 수록했으며 학교와 학생, 그리고 동료교사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분석 및 사업평가를 통해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현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양국의 이해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던 참가 교사들의 열정과 여정은 정형화된 보고서로는 모두 담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본 보고서가 교육교류사업과 참가 교사들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본 사업 참가를 통해 배양된 ‘글로벌역량을 갖춘 교사’들의 향후 활동과 이들이 ‘뿌리고 온 씨앗’들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지 함께 응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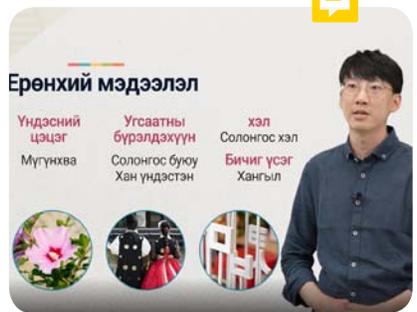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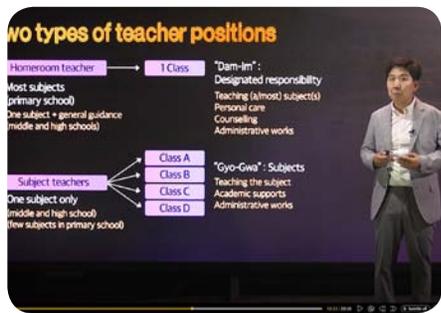
상반기 교육교류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2021년도 사업 최종보고서

사업 결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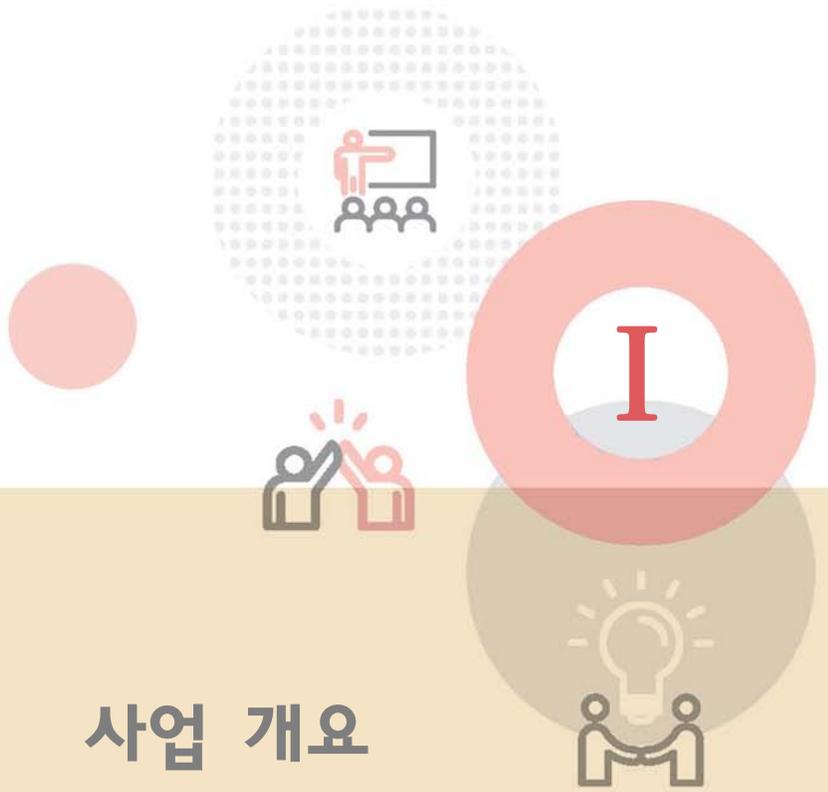
제 1 부

I. 사업 개요

II. 사업 내용

III. 기타 주요자료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2021년도 사업 최종보고서
제1부 사업 결과보고



사업 개요



사업 개요

1. 사업 소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사교류사업」이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구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이하 교류사업)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주최하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 주관하며, 교류 대상국 교육부가 현지 협력주체가 되어 함께하는 한국-아태지역 국가 양자 간 국제교육교류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몽골과 필리핀 두 나라를 대상으로 시작한 본 교육교류 사업은 지난 9년간 성장을 거듭하여 2021년 현재는 아태지역 7개국(말레이시아, 몽골,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과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양국 교사는 각 교류국의 현지 학교에 3~4개월 간 배치되어 직접 교과 수업을 실시하고 전반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면서 배치학교의 일원이 되어 활동합니다. 7개 교류대상국가에 파견되는 한국 교사들과 한국으로 초청되어 온 7개 교류대상국 교사들은 모두 각국에서 선별된 역량 있는 교사들로서 파견된 학교 현장에서 본인의 전공교과, 자국어 및 문화 이해 수업을 진행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생들과 동료교사와 교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지 활동과 교류는 참가 파견·초청교사는 물론, 배치된 학교의 동료 교사와 학생들의 글로벌 교육역량을 향상시키고 양국 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 교육활동경험의 전반적인 공유와 교수학습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국내적으로는 우리 교육현장에서의 다문화교육, 세계시민교육과 글로벌 역량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2009년 OECD DAC 가입 이후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국제적 기대와 책임이 커지게 된 한국이 상호호혜적 교육교류 모델을 통해 대상국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최근 한국과의 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상호이해와 우애 증진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다른 민간외교보다 그 파급효과는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교육2030(Education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각국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달성하여야 할 전 지구적 목표를 설정한 바, 본 사업은 특히 세계시민교육의 증진(교육목표 4.7)과 국제협력을 통한 교사의 질 향상(교육목표 4.c)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사업 목적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대상국과의 교육교류를 통한 다문화감수성 및 글로벌 소통 능력 진작”입니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교육현장의 다문화교육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중·고 재학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2009년 전체 학생의 0.35%에서 2020년 2.8%로 그 비율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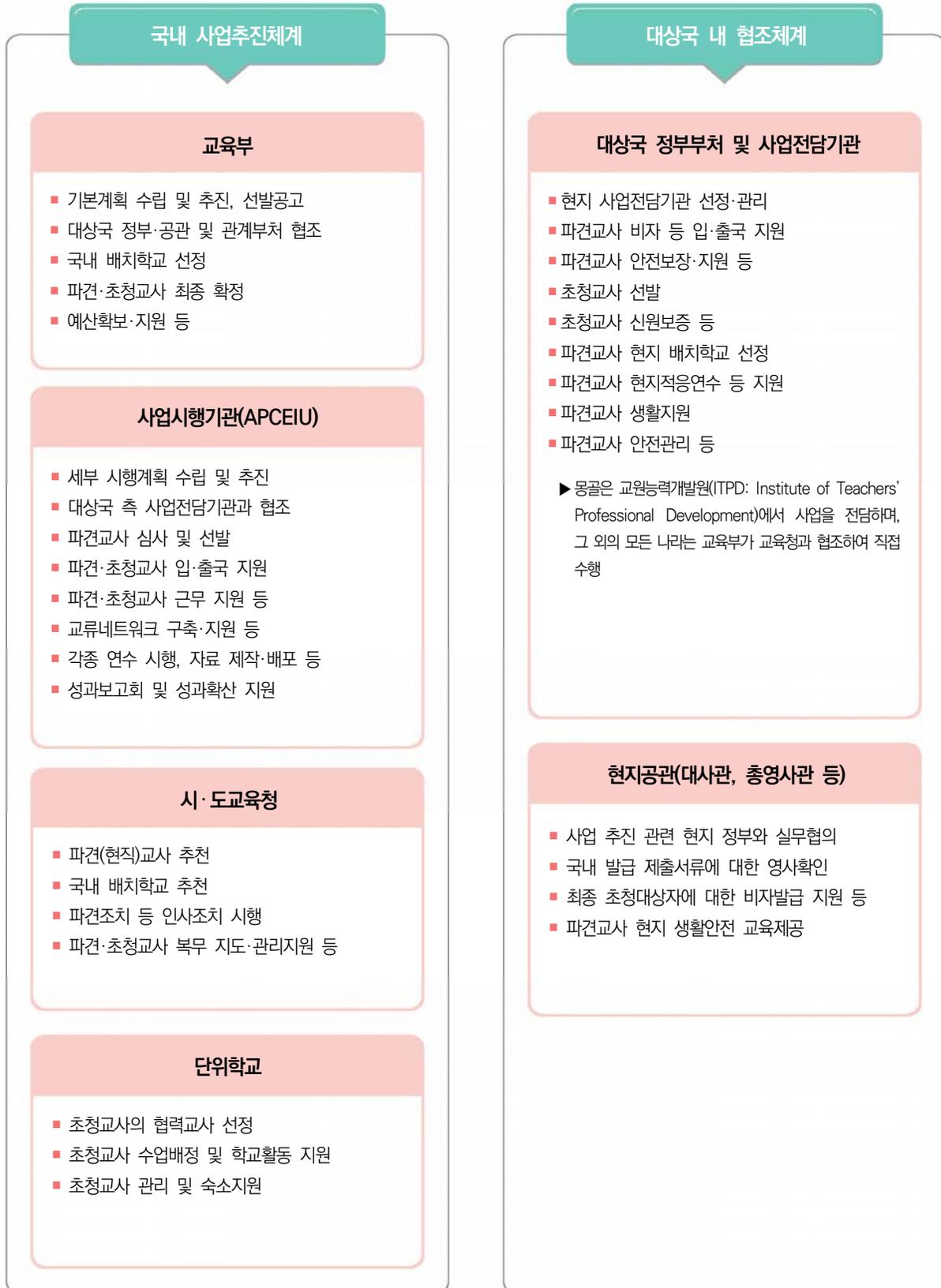
두 번째 목적은 “교사 교육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참가교사들에게 다양한 연수와 워크숍, 현지 학교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교육활동 및 상호간 교류, 프로젝트 수행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수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적자원 교류협력 모델 구축”입니다. 교육교류사업은 기존 ODA 사업 방식과 차별화된 상호간 ‘우수교원 인적자원 교류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교육 ODA 분야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3. 추진 현황

(1) 사업 추진체계 및 흐름도

사업추진체계



I
사
업
개
요

다
문
화
가
정
2
0
2
1
년
도
사
업
최
종
보
고
서

사업추진 흐름도



※ 상반기 사업은 국가에 따라 출국 전, 현지, 귀국 후 심화연수를 추가 실시하기도 함

(2) '12-'21년도 사업 추진 현황

대면 교류

대상국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원 현직)	'19년 (전원 현직)	합계	
대상국가와의 양자 간 교육교류	몽골	초청 (전원현직)	40	25	25	22	16	16	16	12	172	320
		파견 (전원예비)	39	24 (현직9)	25 (현직13)	9 (현직8)	16 (전원현직)	15 (전원현직)	11	9	148	
	필리핀	초청 (전원현직)	30	24	20	30	20	14	12	20	170	282
		파견 (전원예비)	19	24 (현직12)	20 (전원현직)	10 (전원현직)	13 (전원현직)	-	14	12	112	
	인도 네시아	초청 (전원현직)	-	13	15	15	6	10	10	12	81	144
		파견	-	10 (현직2)	15 (현직8)	4 (현직4)	6 (전원현직)	9 (전원현직)	10	9	63	
	말레 이시아	초청 (전원현직)	-	-	12	10	6	10	10	10	58	111
		파견	-	-	12 (현직7)	7 (현직4)	6 (예비1)	8 (예비3)	10	10	53	
	베트남	초청 (전원현직)	-	-	-	20	26	26	20	6	98	205
		파견	-	-	-	15 (전원현직)	26 (전원현직)	34 (전원현직)	20	12	107	
	태국	초청	-	-	-	-	12	16	13	20	61	109
		파견	-	-	-	-	8 (전원현직)	10	12	18	48	
	캄보디아	초청	-	-	-	-	-	6	10	16	32	64
		파견	-	-	-	-	-	6 (전원현직)	12	14	32	
한국어 교원 파견	스리 랑카	파견 (한국어강사)	5	4	3	2	(사업종료)				14	
합계	초청		70	62	72	97	86	98	91	96	672	1,249
	파견		63	62	75	47	75	82	89	84	577	
	소계		133	124	147	144	161	180	180	180	1,249	

I
사업
개
요

다
문
화
가
정
2
0
2
1
년
도
대
상
국
가
와
의
양
자
간
교
육
교
류
사
업
최
종
보
고
서

 온라인 교류

연도 및 인원 대상국	2020*				2021					합계
	국내 교원**	해외 교원**	국내 학생**	해외 학생**	대상국	국내 교원**	해외 교원**	국내 학생**	해외 학생**	
대한민국	28	81	-	-	대한민국	54		1,166		
몽골	5	2	-	-	몽골	4	6		221	
필리핀	42	27	263	-	필리핀	10	49		55	
인도네시아	22	9	61	-	인도네시아	4	19		202	
말레이시아	38	49	103	-	말레이시아	10	41		100	
베트남	4	-	-	-	라오스	4	5		0	
태국	7	4	95	-	태국	20	29		184	
캄보디아	11	2	112	-	캄보디아	4	21		70	
합계	157	174	534	-	합계	110	170	1,166	832	

* 교류 내용: 초청교사 온라인 교사자료 제작 프로젝트, 2020 온라인 SSAEM 컨퍼런스
 ** 분류 기준: 모든 대한민국 교원/학생은 '국내 교원/학생', 대상국 교원/학생은 '대상국 교원/학생'으로 분류
 *** 다수의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우 중복 집계(2021 SSAEM Conference 포함)
 ※ 2021 온라인 교류 참가 국내의 학생 수는 사업 참가 사전 및 사후 설문조사 참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

(3) '21년도 추진개요 및 실적

2012년 첫 실시 이래 매해 성장을 거듭해온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 10년차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은 코로나19 사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21년도 사업은 기존 사업 체계와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교실에서의 수업과 대면 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물리적인 제약이 적은 온라인 교류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였고, 이는 실시간 화상 수업 진행,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어 온라인 기반 교류의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작년 이어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올해 교육교류사업은 팬데믹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직접 만나 교감하는 대면 교류와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참여자들의 활발한 네트워크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경험과 성과 및 후속 연구의 빠른 공유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팬데믹은 국경 폐쇄와 등교 중단 등의 어려움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혐오와 차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계시민교육과 문화 간 이해 교육은 여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팬데믹 시기와 그 이후의 교육교류를 위해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교육교류사업을 통해 한국과 교류 대상국의 수혜자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글로벌 교육역량의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온라인 교육교류 (상반기-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 (교류 기간) 말레이시아: 4/15-7-14(3개월), 태국: 5/17-8/16(3개월), 필리핀: 4/15-7-14(3개월)
- (추진 목적)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면 교류가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교류 방식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보다 깊이 있는 교류를 유도해 사업성과를 최대한으로 도출
- (주요 내용) 참여 교사들의 학교 단위로 연구회를 결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연구회별 교류활동 수행. 특히 국내 및 대상국 학교 연구회가 1:1로 파트너가 되어 공동 주제로 수업안,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연구·연수 프로그램 계획 수립 등을 주제로 화상 세미나, 토론, 주제 발표 및 결과물 산출. 선행 제작한 원격 수업 자료를 파트너학교와 사전에 교환하여 이를 온라인 교류 수업에 활용. 주제별 교수법을 교환하고 화상수업 시스템을 통해 파트너 학교 간 실시간 수업 교류
- (활용 계획) 사전 제작한 원격수업 콘텐츠를 교류 학교에서 활용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온라인교류 콘텐츠의 생산과 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참가인원) 국내·외 총 20개교, 교사 84명 (국내 40명, 국외 44명)

대상국	참가 수	국내		대상국		합계	
		학교 수	교사 수	학교 수	교사 수	학교 수	교사 수
말레이시아		3	10	3	9	6	19
태국		4	20	4	20	8	40
필리핀		3	10	3	15	6	25
합계		10	40	10	44	20	84

- 초등학교 10개교, 중·고등학교 10개교

국가	국내		대상국		합계	
	학교급	학교수	학교급	학교수	학교급	학교수
말레이시아	초	1	중·고	1	초	2
	중	1		2	중·고	4
	고	1				
태국	초	1	중·고	1	초	2
	중	1		3	중·고	6
	고	2				
필리핀	초	3	초	3	초	6
합계	초	5	중·고	5	초	10
	중	2		5	중·고	10
	고	3				

※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경우 중고등학교 통합과정(Secondary School)으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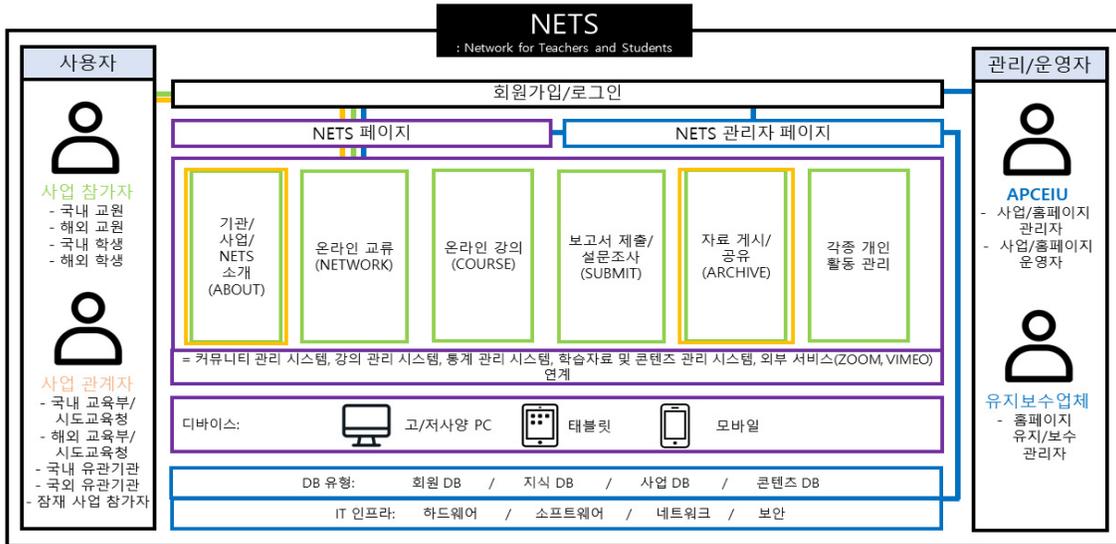
초청교사 사전 연수용 온라인 콘텐츠 제작

- **(추진 목적)** 초청 교사들의 원활한 국내 교육 활동 준비를 돕고 교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양질의 온라인 강의 제공. 초청교사용 사전 필수 강의의 콘텐츠화를 통한 사업 참가자들의 강의 접근성 향상을 도모해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집체 연수를 최소화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향후 유사시에도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
- **(주요 내용)** 한국에 초청되는 교사들을 위해 국내 교육과 관련된 개요 강의 제작. 온라인 강의 콘텐츠 기획, 교안 및 스토리보드 디자인 제작, 강의 촬영 및 편집, 다국어 번역 및 자막 삽입
- **(활용 계획)** 초청 교사들의 사전 강의에 대한 접근성을 극대화하여 코로나 이후에도 교육교류사업의 질을 높이고 성과 향상을 도모
- **(강사진)** 권서경 (진주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조교수)
김유리 (교사)
박서현 (한국외국어대학교/동국대학교 강사)
시무앙 케와린 (한국외국어대학교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태국어과 교수)
신민선 (한국외국어대학교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몽골어과 특임강의 교수)
정해인 (교사)
조원희 (한국학대학원 글로벌한국학부 한국문화학조교수)
- **(강의 구성)** 3과목, 5개 언어, 총 26차시(차시당 30분 분량, 교차 자막 포함 시 40차시)

과목명	강의 언어	자막	차시	총 분량	주요 강의 내용
Introduction on Korean History, Society and Culture (한국의 역사/사회/문화 이해)	영어	영어, 크메르어	3	90분	교육과 연관된 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 안내
	태국어	태국어, 라오스어	3	90분	
	몽골어	몽골어	3	90분	
Practical and Effective Teaching in Korea (한국에서의 교육 활동)	영어	영어, 몽골어	3	90분	한국학교 현장 교육법 및 유의사항 (한국학교 수업을 위한 레슨 플랜, 수업 유형, 기자재 활용한 교수자료 제작, 저작권 유의 등)
	라오스어	라오스어, 태국어	3	90분	
	크메르어	크메르어	3	90분	
Korean Language for Education (한국 교실에서의 한국어 교육)	영어	영어	2	60분	한국 교실에서 활용하는 기초 한국어 교육
	태국어	태국어, 라오스어	2	60분	
	몽골어	몽골어	2	60분	
	크메르어	크메르어	2	60분	

온라인 교육 교류를 위한 통합 네트워크(NETS) 구축

- **(추진 목적)** 기존 NEST (Network for Schools and Teachers)를 통합한 신규 네트워크 NETS (Network for Teachers and Students)를 구축하여 교육교류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꾀하고 대면 교류 이후 후속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 간 온라인 교류 플랫폼을 제공하여 교류 활성화 및 교육교류사업 성과의 지속적인 축적을 도모. 사업 참가자들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손쉽게 교육교류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장려하고, 세계시민교육(GCED)에 대한 관심 및 학습을 제고. 아카이브 기능을 통해 온라인 교류의 우수사례를 미참가 학교와 교사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홍보
- **(주요 내용)** 교육교류사업 전반을 일원화된 플랫폼을 통해 통합 관리. 기존 NEST의 기능(설문조사 및 보고서 수합)을 한 곳으로 집약. 기존 회원 및 게시판 데이터의 이전. 참여 학교 소개, 학교 간 교류 페이지를 통해 교육교류활동 및 개별 프로젝트 수행. 국가, 학교 과정, 관심 주제 등 키워드 검색을 용이하게 해 교육교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GCED에 대한 관심 제고 및 학습의 장을 마련
- **(활용 계획)** 사업 참여자의 유형별 온라인 콘텐츠 제공 및 학습 관리, 온·오프라인 교류 증진. 후속 활동 우수사례 게시를 통해 교육교류사업 및 GCED에 대한 홍보 및 관심을 증대하여 잠재적 참가자 확보



● 파견교사 온라인 교수자료 제작(하반기-라오스, 몽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 (추진 목적) 20년도 초청교사의 온라인 교수자료 제작에 이어 파견 교사가 제작한 교수자료를 해외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양방향적인 온라인 교수·학습 체제 구축. 기존 참여 교사의 파견 경험과 대상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온라인 교수자료 제작을 위해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후속 교류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교류사업 장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 최소화
- (주요 내용) 기존에 대상국에 파견된 경험이 있는 한국 교사의 강의를 영상으로 제작, 하반기 교류 대상국가의 학교 수업 및 원격 학습에 활용. 각 교사의 전공과 연계하여 문화적인 요소를 학생들의 동기유발 기제로 활용한 다문화 융합수업·세계시민교육을 골자로 한 교수학습자료를 한국 교사가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현지 문화·교육 과정에 대한 자문을 외국 교사가 제공. 온라인 교수학습 자료를 레슨키트(USB, 전자책, 단행본 등)로 패키지화하여 온·오프라인 배포
- (활용 계획) 국내 교사가 제작한 강의 영상을 하반기 교류 대상국의 초·중등학교의 교육 현장에서 활용
- (참가 대상) 국내 교사: 12-19년도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하여 교류 대상국 학교에 배치된 경험이 있는 초·중등교사(대상국의 교육환경, 교수법, 학습 방식과 사업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한 이해가 있는 한국 교사) / 외국 교사: 다문화 및 세계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4개 교류 대상국가의 교사(4개 대상국: 상반기 교류사업 참여국 외 대상 국가)
- (강의안)

No.	이름	팀배정	파견 국가	파견 년도	강의 계획 발표 (수업안 주제)
1	김경미	라오스	필리핀	2016	(김향숙 선생님과 연계) 일상생활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 관련 활동
2	김호린	몽골	필리핀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와 적극적으로 연계 - 과학 - 실험 관찰 - 세계시민과 연계 : 생태계 등 많은 주제가 활용 가능 종이 자동차 만들기 (스토리를 만들어서 진행 예정. 나만의 자동차 디자인해보기, 워크시트의 자동차 그려보고 디자인해보기. 나만의 경주 해보기. 선생님께서 먼저 촬영하신 영상 제공. 속력의 개념은 과학적 지식으로 전달. 빠른 교통수단이 나오므로 → 세계화. 세계화에 따른 영향) / SDG랑 연계 가능
3	김혜란	인도네시아	태국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코매장: 리유저를 물품 판매 매장 소개.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마나 증가했나. 제주도에 에코매장 사례 소개 / 활동 2 나만의 스티커 제작, 리유저를 컵 만들기 (플라스틱 컵을 한 번만 쓰고 버리지 않게) 스티커 제작하는 것은 6학년 미술 수업(환경 브랜드 활동) 나만의 에코 로고 만들기 / 활동 3 꼭 SNS에 안올리더라도 인증샷 올리기 등 / 활동 4 스티커 나눔하기 캠페인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없다면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음) 하나의 수업을 1,2차시로 나눠서 진행 예정
4	김선영 (팀장)	캄보디아	캄보디아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시] 일회용품 사용의 문제점 인식하고 사용 빈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실천 [2차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쓰레기 분리하기

No.	이름	팀배정	파견 국가	파견 년도	강의 계획 발표 (수업안 주제)
5	이정현	라오스	필리핀	2016	(미디어 리터러시) 세계시민 관점에서 비판적 사고/시각을 기르는 교육 - 미디어를 통해 얻은 편향한 정보(누구에 의해 쓰여졌고 출처 및 신빙성 있는 통계 유무) 또는 거짓 뉴스 등으로 갈등이 격화된 사례 활용, 해당 정보가 특정 집단에게 편견을 준 적은 없는지(인종차별 문제점),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믿고 행동한 적은 없는지 파악하는 수업, 여러 사람이 동의하는 정보의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비판적 시각을 기르는 교육, 올바른 SNS 사용 방법 제시, 나의 상황을 공유하는 활동: 나/마을/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사실 찾아보고 잘못된 정보 없는지 스스로 알아보고, 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적용 수업
6	김미리	캄보디아	캄보디아	2019	(문화 - 음식 소재 활용) [1차시] 오늘 먹은 음식이 나라마다 다르지만, 내가 오늘 먹은 음식이 다른 나라에서 온 음식들이 함께 있으므로, 음식이라는 소재로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세계시민이라는 교육 / [2차시] 구체적 이슈 및 음식은 미정이나 가져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7	김향숙 (팀장)	몽골	태국	2019	(김경미 선생님과 연계) (환경) [1차시] 1회용 마스크 처리 방안(환경 폐기물), 친환경 마스크 소재 개발, 자기만의 마스크 디자인(GCED 메시지 포함) / [2차시] 재활용의 필요성 교육(워크북 활용), 가능하다면 학생 동네에서 플로깅 활동 후 인증샷 - 쌍방향 교류 등
8	박새롬	인도네시아	베트남	2018	(평화) [1차시] 내가 생각하는 평화와 평화 침해 당한 사례 아이들에게 선 공유 - 나는 어떤 평화를 침해당했는지 개인-학교-지역사회 단계로 조사하는 활동, 한국 학생들은 어떤 상황에서 평화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지 공유 / [2차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 및 사례 공유, 내가 지킬 수 있는 평화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 - 워크북 예시) '무슨 생각을 하니' 그림책
9	장병철	몽골	몽골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시] 영상인식을 활용한 여러 나라의문화재 인식 모델 만들기 • [2차시] 인공지능의 인식 모델 점검을 통해 우리 안의 편견을 돌아보기
10	박혜경 (팀장)	라오스	말레이시아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시] 기온과 평균 기온 (2020년까지의 데이터 주고 평균 구해보는 활동) • [2차시] 평균 기온이 오른다는 것의 의미 (협력국 데이터 주고 기온 상승과 관련한 뉴스 매칭하는 활동)
11	김선경	인도네시아	베트남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기 인식 - 세계가 만약 100명의 마을이라면 • [2차시] 기후난민 (기후 문제에 대한 한국 공익광고, 학습자 지역의 기후문제, 투발루 섬, 용기내 챌린지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일 써 보기) • [3차시]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관심 보여주고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 미얀마 시민 응원하는 편지쓰기
12	김정연	캄보디아	베트남	2017	<팬데믹 함께 극복하기> 나와 내 주변에서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미술 활동 (픽토그램 제작)
13	곽민정	라오스	베트남	2017	기후변화+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시] 기온으로 인한 물부족과 이로 인한 문제 알아보고,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수칙 스티커로 작성 • [2차시] 각 대상국의 기후제에 쓰이는 악기, 음악을 살펴보고 남미의 기후제에 쓰이는 레인스틱을 종이로 제작하여 꾸며보기
14	박신애	몽골	필리핀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시] 한글 노래 가사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 발견하기 • [2차시] 여러 나라 말과 글의 아름다움 발견하기
15	유진영	인도네시아	베트남	2017	문학+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시] 고난을 견디며 희망을 노래하는 한국의 글들 소개하기: 겨울과 봄 등 계절에 비교 하여(방탄소년단 가사, 김영랑 시인의 시). 이후 아이들 각자의 삶의 겨울과 봄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 [2차시] 전세계의 비평화적인 상황의 사진을 보여주고, 소망나무 만들기(나에게, 가족에게, 우리나라에, 전세계에 왔으면 하는 평화)
16	김현경 (팀장)	캄보디아	베트남	2016	SDGs+영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시] SDGs의 그림과 영어 설명 매칭 게임을 통해 SDGs 전반 내용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스스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할 목표를 하나 선택하여 이유 영어로 작성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홍보포스터 만들어보기 • [2차시] SDGs 중 한국에서 해결이 시급한 문제(불평등 감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를 '불관용 및 희생양 만들기'의 개념과 연결하여 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국가에서의 불관용에 대해서 논의해볼 수 있게 유도하고, 이후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에게 편지 써보기

2021 SSAEM 컨퍼런스(사업 종합 성과보고회)

- **(추진 목적)** 국내·외 '온라인 교육교류 연구회'의 화상 수업 및 온라인 교육 활동 사례 공유를 통한 향후 대면·비대면 융합 교류 가능성 제시. 기존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된 비대면(온라인) 교육교류 활동의 성과 공유를 통해 사업의 새로운 효과 확인. 국내·외 참가교사들의 활발한 네트워크 및 후속 교류활동을 장려해 성과 확산 도모
- **(주요 내용)** 현장에서의 행사 진행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생중계를 통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실시간 행사 진행.
- **(추진 성과)** 국내 및 대상국 교육부 관계자들의 뉴노멀 시대의 교육교류 비전 수립, 우수사례 발표 및 전시를 통한 온라인 교육교류사업 성과 공유,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성과의 질적 연구를 통한 방향성 제시

I

사업개요

(4) 대상국 교육부 성과·비전 공유

교육교류사업 성과 공유

대한민국 교육부

2012년에 시작한 이래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은 세계시민교육의 훌륭한 모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각자 서로에게 세계시민교육의 선생이자 본보기가 되어, 교사들과 학생들은 '세계시민'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놀라운 경험들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하지만 2020년에 팬데믹이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은 교사들이 국가 간 이동하는 '교사 교류'가 중심이기 때문에 특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학생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등교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도, 상호 협력하며 그간의 노력을 지속하고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교류 사업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예상되는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교류 사업을 위해서는 ICT 인프라가 전제 조건이었으나 모든 국가, 모든 학교에서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접촉하며 1:1 관계를 형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사-학생 간 유대(rapport)를 형성하는 것은 분명 어려웠습니다.

이런 장애물은 없앨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대상국, APCEIU와 교사들은 문제에 대응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저는 2021년의 가치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화 간 이해가 중요하다는 공동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강의가 어려운 상황 속,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 수업 영상을 제작하고 수업 자료들을 사전에 발송해 학생들이 수업 동안 학습 활동을 따라올 수 있게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서로 사회적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온라인 교류를 통해 예상치 못한 이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전의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에 참여 불가했던 교사와 학생들은 이제 부담이 줄어들어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국제교류의 접근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필요한 예산과 시간이 줄어들면서 다양한 국가에서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해 세계시민교육 증진을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높아진 접근성을 통해 전 세계에 세계시민교육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COVID-19로 인해 우리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 자체가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기 하나,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을 지속하는 것 역시 우리가 고민하고 추구해야 할 과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번 경험을 통해 전례 없는 재난이 더 이상 우리를 단절시키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의 교육교류 사업은 유대와 협력이 가장 절실한 시점에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실로 주목할 만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계가 심화되는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할 우선적인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교류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신 모든 교사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올해의 교육교류사업을 가능하게 하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Question 0. 첫째, 2021년 상반기 참여 국가인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팬데믹 상황 하에 올해 본 교육교류 사업은 학교간의 온라인 교류로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교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국과 현장 교사들이 직면한 도전과 과제는 무엇이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가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실시된 금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 또는 KOMTEP: 한국-말레이시아 교사교류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했을 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COVID-19 팬데믹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인 이동제한명령(MCO)을 내렸으며 그 결과 불가피하게 우리 학교들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본 교육교류사업에 관해 우리 교사들은 한국 학교와 온라인으로 상호작용할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 전체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습 활동마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동성이나 대면 상호작용에 대한 이러한 제약은 큰 도전이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교사들은 인터넷과 ICT에 크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교사들은 기술 자체 사용에는 능숙했으나 하드웨어 유효성과 통신 안정성이 특히 말레이시아 사바(Sabah) 지방에서는 더 어려웠습니다. 이동제한명령으로 인해 학교 시설로부터 떨어져 자택에서만

지내던 교사와 학생 모두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COVID-19는 또한 교사, 학생들의 개인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때 일부 교사, 학생들은 가족이나 본인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택에서 감염의 감정적, 심리적 영향에 대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프로그램의 요구사항들을 완수해나가고 사적인 일과 직장 일의 성공적인 병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온갖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순전히 그들만의 독창성과 회복력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UNESCO APCEIU, 말레이시아 교육부, 툰 후세인 온(Tun Hussein Onn) 교사 재단, 각 주의 교육 담당 부서들, 학교와 한국 교류학교 등이 제공한 원조와 지원을 통해 교사들은 대부분의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강의 시간 측정, 학습 활동 조정, 상황에 맞는 그룹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유연화 조치가 포함됩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본 사업이 본래 의도하는 영향과 효과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면서도 그 유연성이 발휘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신속하게 계획의 대안과 방안을 마련했으며 온라인 학습 활동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사용했습니다. 본 사업 이전에 교사들은 이미 학생들과 몇 시간 동안 재택학습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이미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전 KOMTEP(한-말 교사교류)에 참여했던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업의 니즈와 요건, 한국 학교 및 학생들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위의 대안과 방안으로서 개인 통신키기를 활용했고, 특히 수업자료나 준비물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이를 지원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말 그대로 각 가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다가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사들의 회복력과 인내심은 실로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 필리핀

우리가 직면한 주된 어려움은 국제적 이해를 발전, 촉진시키려는 목적 하에 해외 학습자들을 위한 온라인 원격 교육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실마리는 ‘맥락화’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3개 수업의 진행 과정에 발판으로서 활용된 공통적인 결과물이나 관행을 필리핀인, 한국인들 사이에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했던 또 다른 어려움은 이렇게 발견된 결과물과 관행을 갖고 무엇을 할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계획 단계로 진입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적으로, 이제는 국가 간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문화를 보여주지 위해 짐이 되는 캐리어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한편 우리는 교사들의 교육 영상 제작 능력을 활용해 한국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학습자들까지도 즐길 수 있는 영상 콘텐츠 수업을 제작했습니다.

■ 태국

우선, 이렇게 어려운 해에 교육교류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해주신 대한민국 교육부와 APCEIU에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태국은 2021년 신학기를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으로 연기했습니다. 즉, 평소보다 1달 늦어진 것입니다. 학교는 공식적으로는 6월 14일에 문을 열긴 했으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교수학습을 위한 교실 및 학교 건물의 사용과 그 어떤 교육 활동도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어만 했습니다. 즉, 방콕에 있는 학교들이 본 사업을 위해 다 같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 학교는 온라인 교수 절차에 대한 준비, 리허설 후에 이를 녹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강의 리허설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강의 리허설과 녹화를 위해 자비로 학교 외부 공간을 빌리고 대여료를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COVID-19로 인한 또 다른 어려움은 본 교육교류사업이 이전과 같이 진행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교류를 위해 온라인 교수학습전략이 활용되었습니다. 태국 교사들은 태국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동시에, 또 한국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수업을 준비 및 실행해내야 했습니다. 이는 참여 교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다해 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만 전적으로 집중하고 계획대로 학습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 방식대로, 즉 한국 현지에서 참여하는 것이 태국 교사들에게 훨씬 수월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말씀 드리면 방콕의 대부분, 학교나 상점, 여러 정부 기관들이 폐쇄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준 교육 자료 패키지를 수령할 때도 교사들은 개인보호복(PPE)을 입어야만 했으며, 팬데믹 동안 우체국 또한 폐쇄되었기 때문에 배송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 학생들 가정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긴 했으나 태국 교사들은 그럼에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교사들 자신이 가슴 깊이 직업을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강인하고 인내심과 야심, 온화함을 가졌으며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태국 교사들은 태국 학생, 한국 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존재입니다.

Question 1. 하반기에 참여한 국가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몽골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팬데믹 상황 하에 올해 본 교육교류 사업은 학교 간의 온라인 교류로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교육교류 사업에 어떤 기대를 갖고 참여하셨는지, 특별히 좋았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던지 당국의 맥락에서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캄보디아

팬데믹으로 인해 올해 본 사업은 교수자료를 온라인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으나, 캄보디아는 그럼에도 본 사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실행되어 캄보디아의 사회·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종합적이고 양질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리라 기대해왔습니다. 캄보디아의 교사, 관리자, 지도자를 교육하고 우리나라와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행정은 물론 학급 내에서의 교수라는 양 측면에서 반성적 실천을 독려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본 사업이 캄보디아의 사회·교육적 환경에 무한한 지지와 보탬이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만족스러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 교사, 관계자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사업을 통해 배운 것들을 그들 자신만의 상황과 맥락에 적용하는 데 열정적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서로가 나누는 좋은 추억을 회상하고자 이들이 한국 학교, 교사와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싶어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캄보디아 교사들에게 어려웠던 점은, 일반적으로 기술 활용 및 한국어 또는 영어 사용에 능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적 지식과 기량을 학급에 적용하려 할 때 학교 행정가들의 지지를 받기 다소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 인도네시아

학교 폐쇄는 COVID-19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과 효용은 아직도 충분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습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연구기술부(MoECRT)는 온라인 교육 자료의 개발이 진행된 이번 사업에 대해, 특히 IT 리터러시 같은 교사 역량의 강화에 도움이 되고 교육공동체·생태계에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또한 사업에 참가한 교사들의 교육 경험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양국의 협력은 의미 있는 경험과 학습을 다룰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양국은 모범 사례를 성찰하고 공유하며, 인도네시아의 디지털화 및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을 이루어내기 위한 미래 협력을 구축하는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 몽골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몽골 학교들은 2020년 1월부터 폐쇄되었으며 2021년 9월 1일에 다시 개방되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락다운 기간 동안에는 모든 학년 및 모든 과목에 대한 학교 수업이 TV로 방영되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원격교육 수단으로 교실 수업과 학습을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통계에 따르면 총 65만 명의 몽골 학생 가운데 17만 4천 명이 전기, 인터넷, 스마트 기기에 제한적으로만 접근 가능해 정규교육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부가 올해 본 사업에 기대하는 바는 온라인 교육자료 개발에 관해 한국의 모범사례를 배우는 것입니다. 온라인 학습 환경은 몽골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이며, 이에 따라 교사들은 스마트 기기, 인터넷,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과 더불어 빈틈없는 조직과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 사업에 참가한 4명의 몽골 교사들이 한국 동료교사들로부터 이러한 모든 기술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몽골에 이 훌륭한 사업에 참가할 기회를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Question 2. 올해 교육교류사업은 코로나19 상황이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실정에서 교육교류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교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할 때 당국의 교육 정책 및 의제는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이에 비추어볼 때 본 사업의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캄보디아

팬데믹이 발생하자 교육청소년체육부(MoEYS)는 전국적으로 대면교육을 중단하고 학습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자 기존의 전통적 접근 방식에 급진적 변화를 도입했으며, 학생과 교사를 Covid-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계속 제공하고 온라인 교육을 선언했습니다. 교육청소년체육부는 21세기에 필요한 혁신 및 이와 관련한 능력에 대한 니즈에 더해 세계화, 글로벌 안보 이슈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교육 체계를 현대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목표들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갖추게 하도록 때로 정책과 아젠다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입안자 및 의사결정자, 교사 및 행정가들이 그 수단을 강화하기에 최적의 시기에 진행되었습니다.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전역의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운 뉴노멀시대에 직면했습니다. 교육문화연구기술부(MoECRT)는 2020년 3월 중순에 원격학습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여러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2021년 9월 중순에 저희 부처는 안전하게 학교를 재개방하는 정책을 시행해, 디지털 학습의 범위를 넓히고 질을 향상시키며 인터넷에 보편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더불어 학습 격차를 따라잡기 위한 학습 프로그램과 캠페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습 결손의 정도도 반드시 파악해야 했습니다.

교육문화연구기술부는 현재 디지털 기술을 통한 변혁을 위한 세 가지 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교사와 교육 인력의 디지털 기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018년부터 교육문화연구기술부는 펌베라자란 베르바시스 TIK(PEMBATIK)이라는 IT 기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 프로그램 참가자는 6,800명이었으며 2019년에는 28,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팬데믹이 있던 2020년과 2021년에 PEMBATIK 참가자는 2020년 70,000명, 2021년 80,000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교육문화연구기술부는 교사, 학생, 지역사회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루마 벨라자르(Rumah Belajar)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사용자가 2,000만 명 이상이며 접속횟수는 2억 1,700만 회가 넘습니다. 또한 COVID-19 팬데믹에 대응해 교육문화연구기술부는 구루 벨라자르 단 베르바기(Guru Belajar dan Berbagi)라는 기술 플랫폼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요 구루 벨라자르(Ayo Guru Belajar)'이고, 두 번째는 '아요 구루 베르바기(Ayo Guru Berbagi)'입니다. 세 번째 축은 인터넷 네트워크 커버리지, 인프라, 실행을 촉진하고 개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연구기술부는 특히 정보통신부를 비롯해 다른 부처, 기관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전역에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격 학습은 네트워크 커버리지에 크게 의존하지만 데이터에도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가 폐쇄되면서 학생들은 원격 학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 및 통신비가 학부모에게 큰 걱정이었습니다. 우리 부처에서는 원격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 크레딧, 데이터 패키지 형태로 7조 2,000억 루피 규모를 제공했습니다. 보조금은 매달 학생들에게 35 기가바이트(GB) 인터넷 데이터 패키지 형태로 배포되며, 교사들은 42GB 데이터 패키지를 받게 됩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얻은 교훈을 활용 및 공유하게 하는 것이 저희 평가와 교수법 개선에 영향에 중대한 일부가 될 것입니다.

■ 라오스

라오스 교육체육부를 대표해 패널로서 여러분들께 팬데믹 이전 대비 저희 라오스의 교육, 정책, 아젠다의 변화 양상에 대해 공유하려 합니다. 또한 아태 지역 교사교류이 갖는 의미의 변화 또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COVID-19 팬데믹 상황에 도입한지 거의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모든 분야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교육분야에서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COVID-19 팬데믹은 지난 해 교육 분야에 전혀 없는 영향을 끼쳤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들, 특히 최빈국의 기존 교육체계가 가진 약점과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라오스에서도 학교에 폐쇄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모든 수준의 교수학습이 가능한 유일한 형태로서 여겨진 기존의 대면 교육 방식을 온라인 및 원격 학습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갑작스런 변화들로 인해 교사들은 새로운 교수학습 방식 적응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인프라 및 ICT 시설에 관해 예고와 지원 또한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교사들은 원격 강의를 수행하며 원격학습 지원과 사회 감정적인 지원을 하며 학교 폐쇄라는 새로운 환경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이 성공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고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원격학습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관련 기술, 도구, 인터넷 통신의 부족이 여전히 이슈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안고 라오스 교육체육부는 전략적 파트너와의 협력, 국제협력, 지역 및 주변국과의 협력 등 국가 발전을 지원할 조건과 기회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는 라오스의 국가발전, 특히 교육과 체육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상당한 양적,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교육체육부는, 타국 교사들과 모범적인 교육 방식을 교류하고 공유하면서 교수법의 질을 높이는 것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교사들의 교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라오스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에 참여할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다양한 교육 혁신 모델을 배우고, 모든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학습하도록 장려하는 포용적인 강의방식을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훌륭한 기회를 통해 라오스 교사들이 한국, 몽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를 비롯한 여러 문화에 대한 문해력 및 상호 이해를 향상시키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교수학습에 미치는 지장을 최소화하는 데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COVID-19와 같은 역경을 직면하고 있는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금 기운을 회복해 갑작스럽고 빠른 변화에 대해 도움이 되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는 세계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소위 '교육 기회 상실'을 '수많은 교육의 기회'로 전환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양한 혁신적인 교육 접근법, 기술과 도구 혁신의 가속화를 촉진하고 권장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디지털 수단 활용, 자기주도학습 및 독립적 시간 활용을 위한 유연성 증대, 개인 맞춤형 및 역량 기반 교육의 적용, 학교 폐쇄에 따라 학습 결손을 겪은 많은 학생을 위한 대안적 평가 등을 의미합니다.

여러모로 팬데믹은 교육 분야에 대한 세계적 변화와 전환에의 적응이 중요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더 중요하게는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리는 혼합 교육 접근 방식을 활용해 미래를 대비하는 평생학습의 과정을 촉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혼합된 형태의 협업, 온라인 코칭 및 멘토링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변화, 전환에 관한 긍정적 영향의 대부분은 금년에 실시된 온라인 KOMTEP(한-말 교사교류)에서 이미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기존 요건들을 충족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교사들은 추가로 "온택트 시대의 한국 교육(Korean Education in the Ontact Era)"에 대한 웨비나를 조직해 협업을 위한 심도 있는 장 또한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업 참여 기간 동안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모든 활동들의 정보를 담아 보여주는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KOMTEP(한-말 교사교류) 기존 참가 교사들은 혁신과 모범 사례의 공유를 위해 사업 참여 이후에도 능동적으로 활동을 개시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배가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세계시민교육, 특수교육, 실천 및 국제협력을 위한 공동체 같은 영역을 교사들이 탐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파급 효과도 있었습니다.

실로, 2021 온라인 KOMTEP(한-말 교사교류)은 교육에서 혁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반향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말 교사교류는 더욱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며 교육 공동체에게 그 자체로 공유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우수 사례 표본과도 같습니다.

■ 몽골

2020년 8월 몽골 국가대회의 결의안을 통해 채택된 2020-2024 정부 행동 계획에서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포용적이며 평등한 교육의 강화를 교육 분야 주요 목표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COVID-19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교육적 도구나 기술, 컴퓨터 및 기타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중요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170,000여 명의 아이들은 TV나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기 어려웠고 이는 학교 폐쇄 기간 동안 교육받을 기회를 저해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를 포괄하는 공평한 학습 기회 제공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 필리핀

작년에는 공교육을 받는 학습자들이 물리적으로 등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책은 원격학습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했습니다. 원격학습의 개념이 필리핀에서 아예 새로운 것은 아니었으나, 공교육에서는 이러한 원격학습이 광범위하게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원격 학습 양식과 체제가 강화되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APTE 사업은 교육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사들 또한 타국의 교육 활동을 성찰하고 배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 교육의 성공적 수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 태국

비록 COVID-19 상황이었지만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 사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함께해주신 대한민국 교육부와 APCEIU의 협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 장관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교육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인적 역량 및 학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좋은 세계시민'을 키워내기와 21세기의 변화에 부합되는 학습 절차 개정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정책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교육 정책은 인적 자원의 개발과 더불어 특히 디지털 세대에게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기에 적합한 학습 개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국 중등 교사들은 외국어 강의 능력 향상과 교수학습 내 디지털 미디어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받아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들에게 일상 속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습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참여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교수 과정에서 ICT 미디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있기도 합니다. COVID-19 전까지만 해도 태국 교사들은 교실에서 ICT 미디어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교육 정책이라는 변화에 따라 태국 교사들은 2020년부터 태국 학생들을 온라인으로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숙련되었습니다. 2021년까지 태국에서는 1학기를 6월 14일에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태국 교사들은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도 마찬가지로 6월 14일에 시작되었고, 이는 태국 학교와 교사, 학생 모두에게 적절한 시기에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태국 학생들만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APTE 사업에 참가한 태국 교사들은 팀워크를 발휘해 가르치는 방법은 물론 한국 학생들을 위한 수업 영상을 만드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교류 사업에 완벽하게 임하기 위해 교수적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게다가 교사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영어를 매개로 소통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 온라인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의 이행 방향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음에도, 한국과 태국의 학생 및 교사들은 세계시민교육에 맞추어 서로의 문화와 학업적 주제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본 사업 이후 태국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하며, 본 사업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국제적인 수업들을 듣고 한국 교사들과 함께 공부할 기회를 가졌으며, 선물도 받고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태국 교사들은 한국 교사들과 온라인으로 업무를 하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직접 만난 적은 없어도 동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험은 양국 교사들과 학생들은 물론 우리 태국 교육부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Question 3. '많은 국가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관점을 '종식'이 아닌 '공존(Coexist with COVID 19)'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존을 전제로 앞으로 본 교사교류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당국의 비전 또는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캄보디아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뉴노멀 시대가 계속된다면 캄보디아는 국민 예방접종 및 코로나 검사 실시를 지원할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국경을 다시 열기 위해, 2021년 10월 8일자로 당국이 목표한 백신 접종률인 인구의 99.16%를 달성했으며,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본 사업 시행을 위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인도네시아

코로나 19 팬데믹은 비단 우리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삶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생활의 각 측면에서 건강을 위한 프로토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종되는 한 우리들 또한 변화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지침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은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과 활동들을 포함해 삶의 각 국면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라오스

지속되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교육 분야에 전례 없는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매우 자명하며, 이는 현 교육 시스템이 가진 약점과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내내 갑작스러운 변화들이 초래되면서 전통적 수업 방식인 대면수업이 불가능해지면서 원격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정부와 교육자, 학생들은 교육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야기한 부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 변화에 관해서도 말하고 싶습니다. 교사들은 ICT 활용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배웠으며, 업무와 삶의 측면에서도 뉴노멀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왓츠앱, 페이스북과 같은 다양한 온라인 채널들을 통해서도 교수학습과정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앞서 언급한 여러 플랫폼과 채널은 물론, 다양한 ICT 기기를 활용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 공백과 손실의 회복을 위한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수학습을 실행할 때 공통의 교육적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의 교수 실행을 관찰하고 자문하며, 무엇보다 모든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포괄적인 교수 실천을 지속적으로 탐구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육교류사업은 라오스의 교육 회복을 위한 이러한 혁신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 말레이시아

온라인 진행 방식이더라도, 한국-말레이시아 교육교류사업의 목표와 목적은 말레이시아 교육에 있어 세계시민교육과 국제이해교육을 선도하는 중요 요인입니다. 특히 모든 국가가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코로나 19와의 공존' 시대를 맞이하게 된 현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교사 교류와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통로로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국경 폐쇄와 교육 활동의 많은 지장을 겪었으나, 교육교류사업은 그림에도 여전히 다양하고 유연한 대처를 통해 지속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물리적 교류 활동이 어려워진 전례 없는 시기를 맞이하여 본 사업의 미래는, 교육 활동을 새로운 규범 및 방식으로

조화시키는 회복력 및 독창성에 달려있습니다.

비록 엄격한 보건, 안전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기나긴 터널 끝에 비치는 빛 한 줄기처럼 한국-말레이시아의 대면 교류는 재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향후 교육과 문화 교류를 위한 온라인, 혹은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해 연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교육교류사업의 시행을 위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늘 염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교육과 문화 교류의 혜택을 앞으로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몽골

코로나 19와의 공존을 전제로 몽골 학교는 9월 1일부터 등교를 재개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등교를 지속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보건부의 권고와 지침을 따르도록 각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단언컨대, 몽골은 향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대면교류 재개를 간절히 바라며,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필리핀

코로나 19 바이러스 자체가 인류의 신기술 활용을 전적으로 이끈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19는 단지 신기술을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광범위하게 도입하게끔 가속했을 뿐입니다. 디지털화, 자동화는 늘 있었으며 팬데믹 위기는 그 중요성을 부각시켰을 뿐입니다. 교육 시스템 또한 물리적으로 학교에 등교해 교실에서 출석하는 것만이 배움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는 믿음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종퇴자 문제 및 평생교육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나 팬데믹 상황에 이르러서야 일반적인 정규 수업의 제한적 조건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앞다투어 나섰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교실이다”라는 의미가 실현되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전제는 어느 때보다도 유의미합니다. 코로나 19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부정적으로만 여기지 않고, 컴퓨터 등을 활용해 더욱 더 견고한 교육 체계를 구축할 기회로 인식해야 합니다. 정규 교육 분야 내 원격 교육의 도입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이 활용하고 있는 원격교육 방식은 ‘교육 손실’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우수한 관례는 국제 무대에서 더욱 확대 및 증폭되리라 믿습니다.

■ 태국

코로나 19와의 공존은 이제 많은 나라에서 추구하는 강력한 경향입니다. 이 질병과 공존하지 않는 삶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뉴노멀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학생들은 물론이고 계획과 정책까지 준비 및 조정해야 합니다. 나쁘든 좋은 세상은 어떤 식으로든 바뀌었고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어떤 것도 이러한 목표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올해 온라인으로 시행된 교사교류사업은 파일럿 버전인 듯한데, 물론 장애물과 어려움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과 대상국들 모두 그 과정에서 배움을 얻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서로를 도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업의 실행을 위해 한국 교육부와 APCEIU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는지 헤아릴 순 없었으나, 사업에 참여한 양국 모든 교사들이 얻은 경험은 매우 값질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대면 교사교류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교류사업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 시기에도 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한국 교육부와 APCEIU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태국 교육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뤄낸 모든 일에 박수를 보냅니다.

● 교육교류사업 중장기 전략 및 비전 공유

■ 대한민국 교육부

COVID-19는 거의 2년 간 지속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팬데믹 종식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되고 계속 환경이 변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는 사업의 성공을 지속하기 위한 열쇠는 ‘유연함’에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올해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류를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우리의 국제교류에 보다 많은 교사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교사들이 사업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사업 이후까지도 행동을 이어갈 동인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학교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더욱 효과적인 온라인 교류를 위해 대한민국 교육부와 APCEIU는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협력해오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다른 나라에 있는 학교들 간의 가교 역할은

물론, 교사들이 학습 자료와 활동을 게재할 수 있는 온라인 교실이자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플랫폼의 기능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학교와 교사들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의미한 교류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APTE)은 교사들이 사업 이후에도 교실에서 후속 활동을 펼치고 세계시민교육을 이어가도록 계속해서 교사들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플랫폼은 교사들이 스스로 국제 교류가 가능한 교실을 지속하게 하는 완벽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온라인 교류는 팬데믹 상황의 대안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닌, 국제 협력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증진하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류 모두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본 사업은 유연성과 지속가능성 모두를 보장할 것입니다.

COVID-19는 특히 교육 분야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제 교육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틀에 박히지 않은 채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혁신적 미래 교육을 위한 기반을 닦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대상국 교육부들 및 협력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상과 아이디어를 증명하고 또 실현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교육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모든 분들께 이 여정에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

사업개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2021년도 사업 최종보고서
제1부 사업 결과보고



사업 내용



사업 내용

1. 세부 추진 내용

(1) 유관기관 협의회

국내·외 유관기관 협의회는 사업의 목적 및 구체적 시행 절차를 사업에 관계된 기관들과 공유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실시된다. 국내 시·도교육청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의 담당자가 사업목적 및 체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지하고, 역량 있는 파견교사의 선발과 사업 수행을 위한 원활한 행정 협조 등을 위해 실시된다. 또한 초청교사 배치학교 협의회를 개최하여, 배치학교 교장, 협력교사 및 행정담당자를 대상으로 초청교사 배치 전 준비사항과 배치 후 운영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교류대상국 교육부와의 협의회는 국가별로 해당년도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다음 해의 사업시행을 위한 국가별 세부사항(참가인원, 지원 자격, 파견지역, 사업시기 등) 협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2) 연구회 및 참여 교사 선발

21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예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상반기 교육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회 활동의 경우 국내 10개교, 국외 10개교 총 20개 초·중등학교가 한국 교육부와 대상국 정부 및 교육부가 정한 자격 요건에 따라 선발되었다. 교류대상국가는 현지의 온라인 수업 인프라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시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참여 학교 선발 요건은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하나 국내의 경우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보유한 같은 학교 소속의 현직교사들이 연구회를 조직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선발과정이 진행되었다.

하반기 온라인 교수자료제작 참가자는 교류의 성격을 고려해 한국 교사와 외국 교사 선발 기준이 다르게 진행되었다. 한국의 경우 '12~'19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여 교류 대상국 학교에 배치된 경험이 있는 초·중등교사로, 지난 교류사업 참여를 통해 교류사업 및 교류대상국의 교육문화와 학습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사들이 참여자로 선발되었다. 해외 참여교사는 하반기 교류대상국에서 다문화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에 관심과 역량이 높은 교사가 우선적으로 선발 되었다.

(3) 참가교사 사전 연수

파견·초청 교사들을 대상으로 배치 전 사전연수 및 현지적응 연수가 이루어진다. 본 교류사업의 목적과 참여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익숙하지 않은 타지에서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참가 교사들의 필수적인 참석이 요구된다. 사전 연수는 참가 교사들이 현지 학교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현지 문화와 교육방식에 대한 이해, 자국어 교육방법, 국제이해교육 등의 강의로 구성되어있다. 이후 현지에 도착하여 본격 활동 이전에 현지 연수를 통해 기초 현지어, 생활안전 교육 강의 등이 실시된다.

온라인으로 교류가 진행된 21년도는 참가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류 방식 및 운영 계획과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가 실시되었다. 또한 참여 교사 외에도 학교 관리자 등 유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학교 간 교류활동에 관한 지침과 온라인 교류 기간 중 활동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사업 종료 이후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전공 교과와 세계시민교육이 적절하게 융합된 우수 수업 사례 및 레슨플랜 수립 등에 대한 워크숍도 이루어져 사업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4) 온라인 교육교류 활동

대면교류의 경우 파견·초청교사는 현지와 국내 학교에서 3~4개월 간 현지 학교 활동 참여, 현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는 등 교육활동을 진행한다.

반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 21년도는 상반기 교류사업의 경우 학교 단위로 연구회를 결성하여 사업에 참여하였다. 국내 학교의 연구회는 교류국가 학교의 연구회와 1대1로 파트너 연구모임을 통한 교육교류를 실시했다. 참여 교사들은 교수학습 자료와 교육연구·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원격 세미나, 실시간 토론, 주제 발표를 통해 교육교류 활동을 수행했다. 각 연구회는 공동 수업안을 계획하고 교수법을 교환하여 서로의

교육 환경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였고, 공동 수업안에 기반하여 파트너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화상 수업을 월 1회 이상 진행하였다.

하반기 교육교류는 국내의 기파견교사가 교류대상국 교사와의 교류를 통해 온라인 교수학습자료를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교사의 교수학습자료 제작에 필요한 현지 문화와 교육과정 관련 자문을 외국교사가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교사들이 제작한 자료를 외국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하게 된다. 또한 하반기 연구회 활동을 통해 심도 있는 교육교류를 이어나갔다.

(5) 교육활동 보고회

활동 기간 중반부에 실시되는 중간보고회, 활동기간 종료 직전 이루어지는 최종 보고회를 통해 참여한 교사들의 활동 내용을 발표하고 배치학교 관계자의 성과와 소감을 공유한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주로 참가 교사들의 초반 활동기간의 교육성과와 수업 진행시 느낀 점과 고충을 나누며 남은 교류 기간 중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한다. 활동기간 종료 직전 실시되는 최종보고회에서는 종합적인 교육교류활동 과정과 성과를 모든 참가자와 배치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확인하며 참가 교사와 학교의 경험을 확산·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21년도 상반기 교류사업인 한국-말레이시아·태국·필리핀 온라인 교육교류 최종 보고회는 각 대상국가와의 교류 종료 시점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7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말레이시아·필리핀 온라인 교육교류 최종보고회에는 80여명, 8월 온라인으로 개최된 한국-태국 온라인 교육교류 최종보고회에는 70여명의 한국 및 대상국 교육부 관계자와 참가 교사, 학교 관계자가 참여하여 교육교류사업을 평가하고 활동내용과 성과를 공유하였다.

(6) 온라인 교육 교류를 위한 통합 네트워크 'NETS' 구축

기존에 본 사업의 참여 학교와 교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운영되던 NEST (Network for Schools and Teachers)는 신규 플랫폼인 NETS(Network for Teachers and Students)로 통합되어 운영된다. NETS 개발을 통해 교육교류사업의 온라인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산출되는 온라인 교육교류 성과의 지속적인 축적과 확산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의 일원화를 통해 본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학교와 교사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NETS에 축적되는 본 사업의 우수 사례와 성과에 접근하기 쉬워짐에 따라 본 사업 및 세계시민교육(GCED)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율적인 후속 교류활동이 가능한 집약적 시스템으로 지속가능한 교육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7) 성과분석연구

12년도에 본 사업이 처음 실시된 이래로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성과분석연구가 2014년부터 매해 실시되었다. 21년도에는 기존의 연구 방식에서 진일보하여, 사업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참가교사 경험 분석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온라인 교류 사업 내용을 반영한 성과측정도구 개발 연구, 다문화 수용성 개선도 연구, 그리고 글로벌 역량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한 성과분석연구가 이루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중심의 교류가 이루어진 바, 새로운 사업 방식의 효과에 대한 분석과 온라인 교류를 통한 교사역량의 증진 추이 등을 성과지표에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교류 사업 참가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사업 참가 전후 국내외 온라인 설문 실시 및 국내외 기참가 교원과 사업 관계자의 심층 면담을 통한 양적·질적 연구가 시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교류경험을 통해 교원과 학생의 '다문화'와 '세계시민'에 대한 인식 전환 혹은 강화 여부, 향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올해 수행한 성과분석연구 결과는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8) 성과보고회 씬 컨퍼런스(2021 SSAEM Conference)

션(SSAEM-Sharing Stories of Asia-Pacific Education Movement) 컨퍼런스는 한 해 동안의 교육교류사업을 마무리하고 돌아보는 최종성과 보고회이다.

2021 씬 컨퍼런스는 코로나 19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만 행사장에 모인 가운데 국내 발표자들은 현장에서, 해외 발표자들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발표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교육부와 대상국 교육부 관계자, 온라인 교육교류에 참여했던 교사 및 학교 관계자들과 국내외 기참가자 및 교육교류사업에 관심 있는 국내외 교사 등 200여명이 실시간으로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갔으며, 웨비나 페이지와 유튜브로 송출된 행사 영상은 2,000여명이 시청하였다.

특히 올해 씬 컨퍼런스는 "비대면(온라인) 교육교류"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개최되었다. 기존의 대면 교류와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온라인 교육교류사업의 성과와 온라인 교수자료 제작 사업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새로운 시도에 대해 국내외 참여 교사와 교류 대상국 교육부 관계자들이 소회를 나누었다. 특히 향후 대면·비대면 교류의 융합교류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며 사업의 효율화에 대한 제언도 공유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2. '21년도 사업 추진 경과

(1) 연구회 및 참가 교사 선발

- 기 간
 - 접수(단위학교): 21. 2. 3. ~ 21. 3. 5.
(시도교육청): ~ 21. 2. 3. ~ 21. 3. 10.
 - 서류심사: 21. 3. 11.
 - 합격자 발표: 21. 3. 12.
- 선발대상 :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5년 이상 교육 경력이 있는 초/중등 현직교사
- 선발결과 : 국내 총 10개교, 말레이시아 3개교, 태국 4개교, 필리핀 3개교
- 사전연수 : 21. 3. 18.

(2) 실시간 온라인 수업 중간 모니터링

- 기 간 : 21. 6. 2. ~ 21. 7. 5.
- 모니터링 방식 : 교육교류사업 참여 학교에 방문하여 실시간 화상 수업 참관, 학교장 및 참가교사 간담회, 참가 교사 및 학생 인터뷰
- 주요내용 : 실시간 온라인교류의 원활한 진행 여부 확인, 교육교류사업에 대한 교사, 학생의 이해를 돕고 참여 학교 관계자의 현장 목소리 청취 등 사업의 중간 점검

(3) 최종 활동 보고서 제출

- 제출 시기 및 방법 : 온라인 교류사업 종료 이후 각 연구회별로 교류활동 내용 정리한 보고서 제출
- 주요 내용 : 세부적인 연구 활동에 대한 보고, 실시간 화상 수업의 목표와 교육 내용 정리, 파트너 학교와의 공동 프로젝트 수행 과정 및 결과와 사업 참여 소감 등을 망라한 최종 활동 보고서

(4)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초청교사용)

- 기 간 : 21. 5. 28. ~ 21. 11. 19.
- 주요내용 : 외국 초청교사들의 국내 학습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와 교육교류사업의 효과 증진 도모. 초청교사의 집체 연수 최소화과 필수 강의에 대한 접근성 증대를 통한 사업의 효율화 진작

(5)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 기 간
 - 접수: 21. 6. 14. ~ 21. 7. 16
 - 심사: (서류심사) 21. 7. 19. ~ 21. 7. 25. (내용심사) 21. 7. 28. ~ 21. 8. 6.
 - 결과 발표: 21. 8. 19
- 대 상 : 2012~2019 파견초청교사, 국내외 협력교사, 2021 온라인 교육교류 연구회 등 사업 참가자
- 주요 내용 : 교육교류사업이 실시된 2012 이래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했던 국내·외 교사를 대상으로 우수 교육교류 사례를 선발, 수합하여 사업의 성과를 축적하고 참여 교사들의 후속 활동 장려
- 심사 결과 : 국내 교사 9명, 국외 교사9명(각각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선정

(6) 하반기 4개국 교육교류사업

- 기 간 : 21. 9. 1. ~ 21. 11. 30.
- 참여 대상 : 기존 교류사업에 참여했던 국내 교사 및 다문화와 세계시민교육에 관심과 역량이 있는 해외 교사
- 선발 결과 : 국내 초등교사 8명, 중등교사 8명, 해외 초등교사 6명, 중등교사 10명
 - 국내: 기파견교사 중 선정

- 해외: 하반기 교류 대상국 교원 중 선정
- 주요 내용 : 하반기 교류 대상국의 초, 중등학교 수업 또는 원격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온라인 교수학습자료 제작
-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교수학습자료 제작에 참여하는 국내 교사들을 위한 워크숍
 - 기간: 21. 7. 21. ~ 21. 7. 23.
 - 장소: 온라인으로 진행
 - 대상: 국내교사 16명

(7) 성과분석연구

- 기 간 : 3월 ~ 11월
- 연구진 :
 - 다문화 수용성 개선도 연구: 한유경(이화여자대학교)
 - 글로벌 역량 향상도 연구: 박주형(경인교육대학교)
 - 성과측정도구 개발 연구: 박현정 (서울대학교)
 - 사업 참가교사 경험 분석 연구: 박순용(연세대학교)
- 연구 내용
 - 다문화 수용성 개선도 평가
 - 글로벌 역량 향상도 평가
 - 성과측정도구 개발
 - 국제교육교류 사업 참가교사 경험 분석(질적 연구)

(8) 2021 SSAEM Conference 개최

- 날짜 : 21. 10. 28.
- 참가자 : 한국 및 대상국 교육부 관계자, 아태교육원 관계자, 온라인 교육교류 참가 교사 및 학교 관계자, 국내외 기참가자, 교육교류 사업에 관심 있는 국내외 교사 등
- 주요 내용
 - 개회식: 한국 교육부 장관의 개회사, 캄보디아 교육부 장관의 축사
 - 활동 사례 발표: 국내외 온라인 교육교류사업 참여 교사의 경험 및 성과 공유
 - 패널 토론: 대상국 교육부 대표단의 정책적 사업 성과 및 비전 공유
 - 교육활동 전시관: 2021년 상반기 온라인 교육교류사업 활동 결과물 전시
 - 교육교류 홍보관: 교육교류사업에 관심 있는 교사 및 학교 관계자를 위한 사업 홍보관
 - 다문화사업 성과분석 연구 결과 발표: 사업 참가교사 경험분석 등 질적 연구 결과 공유 및 제언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2021년도 사업 최종보고서
제1부 사업 결과보고



기타 주요 자료



기타 주요 자료

1. 참가 교사 및 학교 명단

(1) 상반기 온라인 교육교류

● 말레이시아: 총 6개교 19명 (한국 교사 10명, 말레이시아 교사 9명)

번호	학교	지역	교사명	과목	파트너 학교	지역	교사명	과목
1	도담초등학교	세종	권다슬 (대표)	초등	SK Jalan U3	SELANGOR	MOHD HAFIZ BIN MUNGIN(대표)	영어, 과학, 음악
			박새롬	초등			NETHIA SAMONDESWARI A/P VASUTHEVAN	영어
			박지현	초등			SHARMILA BINTI KOSNIM	영어
			소혜진	초등				
2	담양중학교	전남	이명희 (대표)	영어	SMK SUNGAI KERTAS	SELANGOR	MOHAMAD FARID BIN MOHAMAD FAUZI(대표)	지리, 미술
			이진영	영어			CHE MASNIKA ZAHIRA BINTI ABDUL MALIK	경제, 가정
			기미라	과학			NATASYA HASWANI BINTI HASSAN MERICAN	과학(화학)
3	인천공항 고등학교	인천	김성희 (대표)	국어	KOLEJ VOKASIONAL KENINGAU	SABAH	MOHD AL KHALIFA BIN MOHD AFFNAN(대표)	영어
			강누리	영어			NOOR MUNIRAH BINTI MUHAMMAD YUSOFF	조리
			송인숙	수학			SAUMON BIN MALIKI	조리

● 태국: 총 8개교 40명 (한국 교사 20명 태국 교사 20명)

번호	학교	지역	교사명	과목	번호	파트너 학교	지역	교사명	과목
1	서울공업 고등학교	서울	임현빈(대표)	기계	1	Renunakhon Witthayanukun Secondary School	Nakhon Phanom Province	Kannika Khananan(대표)	영어
2			이혜숙	컴퓨터	2			Jirawan Sutthiphiet	영어
3			임경화	전기·전자·통신	3			Jitra Sornda	컴퓨터, 한국어
4			금종현	기계	4			Chompunut Solanda	영어
5			황수현	국어	5			Wichian Kaewmaneechai	로봇

번호	학교	지역	교사명	과목	번호	파트너 학교	지역	교사명	과목
6	봉담 고등학교	경기	양진영(대표)	영어	6	Satthasamut Secondary School	Samut Songkhram Province	Sila Tuthongkham(대표)	영어
7			박반기	지리	7			Juthamas Thorat	영어
8			박혜정	영어	8			Kesinee Inyong	영어
9			양정희	영어	9			Jaruwat Nakwimon	영어
10			김예진	영어	10			Thapana Khongraksa	영어
11	동산 중학교	대전	최현수(대표)	도덕	11	Siriratanathorn Secondary School	Bangkok	Rujipha Boonsri(대표)	영어
12			소만성	기술·가정	12			Priyakorn Promrak	사회
13			신승욱	미술	13			AdisakThongsuk	음악
14			조혜진	진로와 직업	14			Saowaluck Wongrat	영어
15			김지은	영어	15			Sunari Sarowat	영어
16	둔산 초등학교	대전	김지원(대표)	국어	16	Phyathai Primary School	Bangkok	Sasithorn Kiewkor(대표)	과학
17			김솔지	사회	17			Nopawan lamjan	영어
18			길준한	체육	18			Pinpicha Pienmana	과학
19			전하경	영어	19			Jirachaya Jaranai	영어
20			정규연	즐거운생활	20			Wanassanan Jaimanee	태국어

필리핀: 총 6개교 25명 (한국 교사 10명 필리핀 교사 15명)

번호	학교	지역	교사명	과목	번호	파트너학교	지역	교사명	과목
1	손곡초등학교	경기	유정남 (대표)	초등	1	Renato Lopez Elementary School	Metro Manila	ELIZABETHE.CATIBOG (대표)	영어
2			한혁수	과학	2			EFRAM D. CORONACION	EPP
3			박현희	초등	3			FERGIE M. GONZALES	영어
4			4	BARBARA C. RAMOS	영어				
5			5	EMMANUEL M. DELA CRUZ	수학				
4	신천초등학교	대구	손유정 (대표)	영어	6	Tisa II Elementary School	Cebu City	EDMUNDT.DACUA (대표)	초등
5			김효진	영어	7			HONEY RIZA V. YU VEGA	초등

Ⅲ
기
타
주
요
자
료

다
문
화
가
정
대
상
국
외
의
교
과
교
류
사
업
2021년도 사업최종보고서

번호	학교	지역	교사명	과목	번호	파트너학교	지역	교사명	과목
6			김진삼	초등	8			REGGIE LOU T. SAVIOR	초등
7			이대환	초등	9			REGINE P. LAGRIMAS	초등
					10			JOCELYN B. LLEGO	초등
8	대연초등학교	부산	이재원 (대표)	컴퓨터, 영어	11	Rizal Elementary School	Panabo City	CHERRYLYNV. BALBACAL (대표)	ESP
9			이경섭	사회	12			JOHNNA B. PANO	수학
10			김영미	미술	13			HONEYLINE D. DEPRA	과학
				14	SHELLA ROSE B. AMODIA			영어	
				15	EDGARDO D. PAMUGAS III			EPP	

(2) 하반기 파견교사 온라인 교수자료 제작

● 국내

번호	이름	시도교육청	학교급	(현)학교명	과목	파견국가	파견년도
1	김경미	인천	초등	인천은지초등학교	초등	필리핀	2016
2	김호린	강원	초등	공근초등학교	초등	필리핀	2013
3	김혜란	경기	초등	신흥초등학교	초등(영어)	태국	2018
4	김선영	세종	초등	조치원대동초등학교	초등	캄보디아	2018
5	이정현	서울	초등	서울대림초등학교	초등	필리핀	2016
6	김미리	서울	초등	서울상도초등학교	초등	캄보디아	2019
7	김향숙	인천	초등	인천연송초등학교	초등	태국	2019
8	박새롬	세종	초등	도담초등학교	초등	베트남	2018
9	장병철	서울	중등	(현)한양대학교	전기, 전자, 통신	몽골	2016
10	박혜경	충남	중등	충남대학교 박사과정	지리	말레이시아	2014
11	김선경	전북	중등	용북중학교	국어	베트남	2018
12	김정연	경기	중등	성남문원중학교	미술	베트남	2017
13	곽민정	서울	중등	신상중학교	음악	베트남	2017
14	박신애	대전	중등	관평중학교	국어	필리핀	2015
15	유진영	서울	중등	신길중학교	사회	베트남	2017
16	김현경	경기	고등	김포고등학교	영어	베트남	2016

● 해외

번호	국가	학교	교사명	비고
1	캄보디아	Santhormok Primary School (Primary)	YOU Sorphoan	2018년도 참가자
2			LAO Sok Hor	
3		Wathanak Chhung Leap High School (Secondary)	KEM Malyskrang	2019년도 참가자
4			SRENG Kimheang	
5	인도네시아	SDN Sidotopo 1 Surabaya, East Java (Primary)	Riski	2018년도 참가자
6			Supriyo	
7		SMPN 2 Cileunyi, West Java (Secondary)	Gilang Asri Devianti	2017년도 참가자
8			SMAN 3 Padang Panjang, West Sumatera (Senior High School)	Fitra Murni A.R
9	라오스	Demonstration Secondary School of Bankeun Teacher Training College (Secondary)	Phouangsaeng PHANHBOUND	
10			Kongmengvang CHUECHOR	
11		Dongkhamxang Demonstration Primary School (Primary)	Keomoukda KATTIYAVONG	
12			Panee PATHAMMAVONG	
13	몽골	Khan-Uul complex school (Secondary)	ENKHEE Ariunaa	2015년도 참가자
14			ULZIIBAYAR Ariunbaatar	2018년도 참가자
15		School no.23 (Secondary)	MAGVANRENCHIN Bujin	
16		"Future - XXI century" school (Secondary)	DAGVADORJ Odonchimeg	

III
기
타
주
요
자
료

다
문
화
가
정
2021
년
도
대
상
국
외
의
교
과
교
류
사
업
최
종
보
고
서
업

2. 주요 기관 담당 부서 및 관계자 명단

분류	주요기관	담당 부서	관계자	
주최 / 주관	대한민국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국제교사교류실	
대상국	라오스	교육체육부	교사연수국	Keth Phanlack 국장
			유네스코 라오스위원회	Ovilouth Souksavat 사무관
	말레이시아	교육부	교원양성과	Rosli Jacob 차장
				Ismariwan Shamsudin 사무관
	몽골	교육과학부	ITPD	Enkhtuul Enkhbold 국장
			국제협력국	Enkhbayar Baatartsol 사무관
	인도네시아	교육문화연구기술부	교원인적관리과	Soesilo 부장
				Siti Ubaidah 과장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기초교육국	Kun Ren 사무관
				Mok Sarom 부국장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	대외협력과	Yupha lemsanguan 사무관
				Darakorn Phensiri 사무관
	필리핀	교육부	국제협력과	Margarita C. Ballesteros 과장
				Jaymee Carreon 수석책임관

3. 참가 후기

■ 황수현 (태국 Renunakhon Witthayanukun School 연구회와 교류)

처음 참가하는 온라인 교육교류에 약간은 어색했다. 하지만 화면을 통해서라도 파트너 학교 연구회 선생님들과 얼굴을 자주 보고 익히니 친밀감도 생기고 온라인 교류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나아가 같은 교사로서 교육교류를 통해 전반적인 문화 교류를 넘어 한국과 태국 양국의 학교문화와 교육 활동, 그리고 수업 모델을 공유하며 연대감을 느끼기도 했다.

양국의 문화를 배우며 서로의 문화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도와 이해도가 더욱 높아졌다. 특히 외국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태국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문화와 사회 모습을 다시 한 번 돌아보았고 태국 학생들은 잘 몰랐지만 꼭 소개하고 싶은 우리 문화를 더욱 공부하기도 했다. 한국 학생들 또한 태국 문화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끼게 되었다. 두 나라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피부로 느끼며 문화 다양성과 세계시민의식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직접 학생들을 만나지 못해 아쉽고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태국 학생들의 활동에 충분히 피드백을 주지 못해 아쉬움도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배운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전공과목인 국어 시간에 학생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칠 때 세계시민의식과 문화 다양성까지 담아내는 교과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말과 글에 담긴 문화를 외국인도 공유하고 어떻게 알려야 할지 수업 내용에 담을 것이다.

■ 김준한 (태국 Phythai Primary School 연구회와 교류)

다른 나라의 학생을 위해 수업을 준비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내가 우리나라의 교사들을 대표한다는 생각도 들어 걱정도 되었다. 가장 큰 걱정은 과연 내가 세계시민교육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태국 선생님들과 교류하며 효과적인 다문화 수업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실제로 수업을 위한 자료를 제작하고, 수업안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교수방법, 자료 제작 능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태국 선생님들은 늘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좋은 교육 자료를 만들어 보내주셨고, 태국 학생들과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수업 활동을 위해 태국의 교육 환경과 기자재 활용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주고자 하셨다. 이를 통해 태국의 교실 모습과 교육 문화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수업을 준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실시간 수업은 계획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다시 돌아보면 그래도 흡족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태국 학생들의 프로젝트 참여 의욕이 높아 한국 교사들 또한 즐겁게 수업에 임했고, 한국 학생들도 태국 학생들의 높은 열의를 보며 더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교육 현장에서의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학사 일정 등에 변경이 있는 점은 아쉬웠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학교 연구회, 파트너 학교 선생님들과의 협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

■ 이명희 (말레이시아 SMK sungai kertas 연구회와 교류)

이번 교육교류를 통해 느낀 점은 제일 먼저 교사로서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수업교류와 프로젝트 활동을 위해 말레이시아의 선생님들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자료를 공유한 후 여러 번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수업 방법과 주제, 교실에서의 교수활동까지 상세히 교류하며 그동안 교실에서 나는 어떤 교사였는가를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말레이시아 선생님들의 열정적이고 성실한 교사로서의 자세와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을 보며 나 또한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는 동기 부여가 되었다.

말레이시아 학생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 학생들도 말레이시아 선생님들의 수업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기후, 환경, 전통의상과 음식 등을 직접 체험하였다. 이번 교육교류에 참여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남학생이어서 말레이시아 음식을 요리하고 전통의상 인형을 만드는 바느질에는 서툴렀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 과제를 완성하는 모습을 보며 교육교류가 양국의 학생들에게 수업 이상의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호 호혜적인 교육교류를 통해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문화에 대한 이해와 세계시민교육이 생생하게 전달되고, 글로벌 역량 강화의 기회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 권다슬 (말레이시아 SK Jalan U3 연구회와 교류)

현지 교육교류와는 달리 온라인 교류가 처음이라 조금은 어색한 마음으로 교류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선생님들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었고, 그러면서 점차 온라인교류에 익숙해 질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는 여행으로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현지인과 그것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선생님들과 교류를 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교육교류를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말레이시아의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할

III
기
타
주
요
자
료

다
문
화
가
정
2
0
2
1
년
도
대
상
국
외
의
사
업
최
종
보
고
사
업

수 되었고, 말레이시아의 학교 모습과 교육환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또한 말레이시아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열정과 학생들의 태도는 정말 감동적이었다. 우리에게도 조금 낮은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셨는데, 패들렛을 사용한 수업이나 화상 수업 플랫폼을 이용한 수업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세심하게 수업을 준비하고 차근차근 진행해주셨다. 코로나19로 인해 말레이시아도 등교가 중단이 되는 등 학습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는 학생들에게도 몹시 고마웠다. 학생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가졌고, 특히 글로벌 이슈에도 관심이 부쩍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환경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모습의 차이에서 기인한 여러 나라의 극복 노력에 대해서도 발표하는 등 문화간 이해, 글로벌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 학생들도 말레이시아 선생님들의 수업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기후, 환경, 전통의상과 말레이시아 선생님들은 영어로 소통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한글로 자막을 달아주기도 하셔서 염려했던 부분까지 미리 미리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연구회 기간 내내 의미있는 활동이 지속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활동 시간이 많이 부족하여 좋은 수업들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그러나 양국의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음을 확신한다. 앞으로 교육과정 속에 했던 활동들을 적용하여 다른 선생님들과도 나누고 싶고, 또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학생들도 더욱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유정남 (필리핀 Renato Lopez 연구회와 교류)

직접 필리핀 학교를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나마 다문화 수업과 교육교류를 진행하게 되어 긴장과 흥분이 교차하였다. 온라인 수업 시간에 눈동자를 빛내며 인사하는 필리핀 학생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교사라는 직업과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다. 필리핀 선생님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수업 주제와 수업안을 구상하면서 언어와 환경은 달라도 같은 교사로서의 연대감,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교육목표에 대한 열의를 나누던 시간들을 아직도 기억한다. 필리핀 선생님들의 열정을 보며 나 또한 교사로서의 책임감이 한국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 더욱 확장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였지만,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 또한 다문화 감수성과 세계시민의식이 고양되었다.

많은 수업을 준비하고 실행하였는데, 특히 필리핀 학생들이 한복과 부채를 만들고, 또 필리핀 학생들과 함께 아리랑을 합창하면서 경계도 장벽도 없이 우정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언젠가 할 수 있다면 현지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고 수업할 기회를 얻고 싶다. 팬데믹이라는 커다란 장애요인이 있었지만 교육교류를 위해 모두가 열과 성을 다했고, 또 이렇게 시도하고 성과를 이룬 것이 교육계의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 믿는다.

■ FERGIE M. GONZALES (한국 손곡 초등학교 연구회와 교류)

이번 교육교류사업은 제게는 큰 도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가능한 학습활동을 위한 현재 상황과 이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 사항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즐거운 수업을 지도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식을 고안하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서로 가르치고 나누는데 영어를 사용해 어려운 도전을 더 쉽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반드시 한국에 직접 가서 오프라인으로 교육교류사업을 참여하고 싶다는 열망 또한 더욱 커졌습니다.

파트너 학교 선생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수업을 구현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은 매우 책임감이 있고 저희의 질문에 늘 빠르게 답변을 주셨으며 매우 든든한 동료가 되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수업을 진행하며 더욱 느껴져 한국 선생님들의 헌신에 저희 모두 감동하였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온라인 교육교류를 통해서도 그 점을 매우 실감했습니다. 팬데믹이 종식되고 서로 얼굴을 보며 교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교류 또한 오프라인 못지 않은 많은 열매를 맺었으며 이는 비단 학생들의 성과가 아닌 우리 교사들에게도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 Shella Rose B. Amodia (한국 대연 초등학교 연구회와 교류)

이번 교육교류사업은 진심으로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지속가능한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선생님들과의 교육교류 경험은 여전히 꿈만 같을 정도입니다. 이번 교육교류사업 참여를 통해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저 또한 동료 선생님들에게 교사로서의 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오히려 교류 기간이 좀 더 길어서 학생들과 더 만날 수 있었기를 바라는 마음만 남은 것을 보아 이번 교육교류사업은 제 교사 생활에 대한 큰 격려와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4. 언론보도 및 기타 성과 확산

언론보도 및 기타 성과 확산 목록

번호	매체명	보도날짜	제목
1	연합뉴스	2021-02-23	동남아-한국 학교 간 온라인 다문화 연구 교류 추진
2	매일경제	2021-02-23	동남아-한국 학교 간 온라인 다문화 연구 교류 추진
3	연합뉴스	2021-03-18	한국-동남아 다문화 가정 국가 학교 교류 다음달 시작
4	연합뉴스	2021-04-05	아태교육원, 다문화 관련 교사용 온라인 강의 제작
5	에듀뉴스	2021-05-18	대구신천초, "코로나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위풍당당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학생들"
6	에듀뉴스	2021-06-22	경기 손곡초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려요
7	연합뉴스	2021-06-23	다문화가정 국가 교류 프로그램 참여교사 체험담 공모
8	매일경제	2021-06-23	다문화가정국가교류프로그램참여교사체험담공모
9	금강일보	2021-06-27	대전둔산초, 태국과 실시간 국제교류 수업 실시
10	기호일보	2021-08-02	새로운 교육환경_화성 봉담고등학교
11	매일경제	2021-08-31	태국서 3개월 근무한 교사 소수자 체험, 다문화 교육에 도움
12	중도일보	2021-09-14	[중도일보-대전교육청 공동캠페인] 큰 꿈을 키우며,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대전둔산중'
13	대구일보	2021-10-06	우리학교는요...대구성명초등학교
14	신아일보	2021-10-15	대전둔산초, 국제 교류 파트너 학교와 언택트(Untact)품새 대회 개최
15	동아일보	2021-10-26	2021 쌤 컨퍼런스, 10월 28일 온라인으로 개최
16	세계비즈	2021-10-26	2021 쌤 컨퍼런스, 오는 28일 온라인으로 개최
17	시사뉴스	2021-10-26	2021 쌤 컨퍼런스, 10월 28일 온라인으로 개최
18	연합뉴스	2021-10-27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다문화대상국과 교육 교류 평가회 개최
19	매일경제	2021-10-27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다문화대상국과 교육교류 평가회 개최
20	한국일보	2021-10-28	이 없으면 잇몸으로... 코로나 팬데믹 속 교육 불씨 살린 아시아 경험 공유
21	한국일보	2021-10-28	인터넷 없어 TV로 수업하고, 방호복 입고 집 찾아가 수업물품 전달하고...
22	이데일리	2021-11-05	2021 쌤 컨퍼런스 성료... "팬데믹시대 온라인 교육 교류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23	뉴스웍스	2021-11-05	2021 쌤 컨퍼런스, 팬데믹시대 온라인 교육 교류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24	글로벌에픽	2021-11-06	2021 쌤 컨퍼런스 성료... 팬데믹시대 온라인 교육 교류의 새로운 가능성 제시

III
기
타
주
요
자
료

다
문
화
가
정
대
상
국
과
의
교
류
사
업
최
종
보
고
서

언론보도 및 기타 성과 확산 사례

사례 1.

연합뉴스(21-02-23) 동남아-한국 학교 간 온라인 다문화 연구 교류 추진

2021. 2. 24.

연합뉴스



동남아-한국 학교 간 온라인 다문화 연구 교류 추진

송고시간 | 2021-02-23 13:59



양태삼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말레이시아와 태국, 필리핀과 한국의 초중고 교사들이 서로 연계해 다문화 교육 방안을 연구하는 교류 사업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원장 임현묵, 이하 아태교육원)은 학교 단위로 교·사 5명이 주인의 구상, 이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학교를 이달 5일까지 시도 교육청에 서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3074500371?section=popup/print>

1/2

2021. 2. 24.

연합뉴스

온라인을 통해 산-염기 반응 실험으로 염색 과정을 설명하는 인도네시아 교사
 아태교육원 제공[DB 및 재배포 금지]

교사 교류는 학교별로 구성된 연구회가 상대국 학교와 함께 다문화 또는 세계 시민 교육에 사용할 교안이나 연구 프로젝트를 구성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류 프로그램으로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동수업, 교수학습 자료 교류, 원격 세미나 등을 비롯해 참가 학교가 창의적으로 마련한 것도 가능하다고 아태교육원은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초중고 모든 학교가 참여 가능하며 상대국 학교는 말레이시아 3개교, 태국 4개교, 필리핀 3개교다.

또 교사 1인당 총 120만원의 연구비와 1인당 45만원의 교수활동 지원비, 학교당 기자재 사용료 90만원씩을 각각 지급한다.

아태교육원의 임원진 국제 교사 교류실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교육 교류를 통한 한국과 협력 국가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향상하고 교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교류를 시도한다"고 말했다.

tsy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2/23 13:59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사례 2.

연합뉴스(21-04-05) 아태교육원, 다문화 관련 교사용 온라인 강의 제작

2021. 4. 5.

연합뉴스



아태교육원, 다문화 관련 교사용 온라인 강의 제작

송고시간 | 2021-04-05 08:00



양태삼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원장 임현묵)이 한국의 다문화 가정과 관련된 아시아 7개국 교사를 위해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개발한다.

아태교육원은 국내 이주 여성의 고국인 라오스와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7개국의 교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이들이 한국에 초청받아 방문하기 전 미리 온라인으로 익힐 수 있는 강의 자료를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2109800371?section=popup/print>

1/2

2021. 4. 5.

연합뉴스

지난해 제작한 온라인 강의에 출연한 조대훈 성신여대 교수
아태교육원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이를 위해 교육 콘텐츠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30일부터 내달 5월 4일까지 제안서를 받은 다음 내달 10일 협상 대상자를 정하기로 했다.

모두 24차시인 강의로 '한국의 역사 사회 문화 이해', '한국에서의 교육 활동', '한국 교실에서 한국어 교육' 등을 주제로 잡았고 영어와 캄보디아어, 태국어, 라오스어, 몽골어로 제작된다.

아태교육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더라도 온라인으로 교사들의 역량을 높이고자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교사들이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을 자국어로 익혀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콘텐츠 개발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아태교육원이 주관하는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육 교류'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tsy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4/05 08:00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사례 3.

에듀뉴스(21-05-18) 대구신천초, 코로나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위풍당당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아이들

EDU NEWS

🔍 인쇄하기 📧 할당기

🏠 홈 > 뉴스 > 전국교육청 > 대구

대구신천초, “코로나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위풍당당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학생들”-[에듀뉴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실시

2021년 05월 18일 (화) 10:44:05

권순규 기자 ✉️ edunews@hanmail.net

[에듀뉴스] 대구광역시 신천초등학교(교장 성민순)는 교육부가 주최한 ‘2021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참여교로 선정돼 그 대상국인 필리핀의 Tisa II 초등학교와 지난 6일 첫 수업을 진행했다.



첫 수업은 대구 신천초 교사가 ‘한국의 특별한 날을 알아보고 의미를 생각해보기’를 주제로 양국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쌍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다.

신천초 학생들은 교실에서 개별 태블릿PC를 통해 직접 제작한 ‘한국의 특별한 날 가이드북’을 필리핀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필리핀에도 비슷한 날이 있는지 물어 보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기념하는 날도 다르지만 평화, 민주주의, 인권, 행복 등의 가치를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또 학생들은 온라인 협업도구를 활용해 세계적인 기념일을 함께 지정해 보고 온라인 윗놀이를 즐기며 물리적 거리를 초월해 서로 가까워질 수 있었다.

6학년 권경준 학생은 “필리핀 친구들과 소통이 안 될까봐 걱정했는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외국인 친구

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인순 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교류국 학생들과 실시간 소통과 협업을 하며 지구촌을 몸소 익히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한편 신천초는 교류 국가 학교 교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 5회 이상 수업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사의 글로벌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양국 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며 학생들이 미래의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에듀뉴스(<http://www.edu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Ⅲ

기 타 주 요 자 료

다
문
화
가
정
2
0
2
1
년
도
대
상
국
외
의
교
육
교
류
사
업
최
종
보
고
서

사례 4.

에듀뉴스(21-06-22) 경기 손곡초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려요

2021. 6. 24.

에듀뉴스

EDU NEWS

 로그인하기
 회원가입

[홈](#) > [뉴스](#) > [교육공동체](#) > [수석교사방](#)

경기 손곡초,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려요”-[에듀뉴스]

국가 간 온라인 교육 교류 수업을 통한 글로벌 시민 역량 육성

2021년 06월 22일 (화) 09:01:21

김용민 기자 edunews@hanmail.net

[에듀뉴스] 경기도 용인 손곡초등학교(교장 이진건)는 지난 18일, 필리핀 학생들과의 특별한 수업을 진행했다.

이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주관한 2021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다.



손곡초의 교류 대상 학교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위치한 레나토 로페즈 초등학교(Renato Lopez Elementary School)이며 그동안의 교류 수업은 학교당 한 학급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 쌍방향 화상 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지난 5월 13일부터 우리나라 학생 3회, 필리핀 학생 3회, 총 6회의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필리핀 학생들과 함께한 지난 18일 수업은 지금까지 진행된 프로젝트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수업이었다고 한

www.edunews.co.kr/news/articlePrint.html?idno=62054

2021. 6. 24.

에듀뉴스

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인권 존중, 음식 문화, 국가 간 우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필리핀 선생님과 수업을 함께 했으며 필리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손곡초의 수업은 태극기, 아리랑, 전통 가옥, 한복과 부채, 장안문(수원화성) 만들기 등의 내용을 통해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필리핀 현지 학교 교사와 협업을 통해 지구온난화라는 공통 문제에 함께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환경 보존과 관련된 수업을 추가적으로 2회 더 진행할 예정이다.

수업을 참관 컨설팅했던 손곡초 한기완 수석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서로 가르치고 배우려는 열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번 프로젝트가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진건 교장은 “코로나19로 서로 교류가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을 활용한 이번 프로젝트가 두 나라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면 좋겠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참여한 교사 및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손곡초는 앞으로 세계시민의식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http://www.edu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사례 5.

금강일보(2021-06-27) 대전둔산초, 태국과 실시간 국제교류 수업 실시



HOME > 사회 > 교육

대전둔산초, 태국과 실시간 국제교류 수업 실시

✎ 김지현 기자 | ⓒ 승인 2021.06.27 14:26



대전둔산초와 방콕 Phythai School이 실시간 국제교류 수업을 운영한 가운데 학생들이 퀴즈와 활동을 통해 태국에 대해 배우고 있다. 둔산초 제공

[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대전둔산초등학교(교장 박종용)는 지난 25일 태국 방콕 Phythai School(파이 타이 학교)과 실시간 교류수업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간 교류수업에서 태국 Sasithorn Kiewkor 교사와 Pinpicha Pienmana 교사는 둔산초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절의 변화', '한국과 태국의 계절', '지구 온난화' 등을 주제로 수업을 했다. 학생들은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를 배우고, 흥미로운 놀이로 태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배웠으며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지구 온난화를 퀴즈를 통해 알아봤다.

박 교장은 "외국의 교사들이 한국 학교에 3개월씩 배치돼 문화교류를 하는 사업에 2016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운영돼 아쉽지만 이런 방식으로라도 국제교류를 진행할 수 있어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다문화·세계화 사회에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는 교사 5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교육교류 연구회를 조직해 태국 교사들과 공동수업안(6차시)을 개발했고, 내달 2일에는 한국 교사가 '태권도와 무에타이'를 주제로 수업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사례 6.

매일경제(2021-08-31) 태국서 3개월 근무한 교사 소수자 체험, 다문화 교육에 도움



인쇄하기

취 소

태국서 3개월 근무한 교사 "소수자 체험, 다문화 교육에 도움"

입력 : 2021.08.31 08:51:30

"말은 안 통하고, 음식과 교육 문화, 환경이 모두 다른 곳에서 한국인으로 소수자가 돼 보니 그들의 처지와 심정을 심분 절감했습니다."

안유정 청주 수성초등학교 교사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 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원장 임현묵)이 실시한 '다문화 가정 대상 국가와 교육 교류사업'으로 태국에서 3개월여간 교사 활동을 한 후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태국 학생들과 포즈를 취한 안유정 교사(오른쪽)

안 교사는 2019년 태국 사뭇쁘라칸 지역의 왓 방쁘롱 초등학교에서 3개월 간 영어 교사로 일한 체험 수기를 아태교육원의 우수사례 공모전에 제출, 최근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는 31일 연합뉴스와 카카오톡 등으로 한 인터뷰에서 "못사는 나라 사람들에게는 은연중 우월적 시각을 은연중 갖게 된다"며 "막상 함께 생활해 보니 그들이 우리와 다른 데는 이유가 있고, 배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기에서 태국 수업 도중 파트너인 태국 교사가 학생들에게 말을 거는가 하면 교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등 '무례한 행동'이 나타났지만 그곳의 학습 문화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넘겼다고 적었다.

또 태국의 학교 급식에서 쌀밥과 과일을 제외한 모든 반찬과 음식에 '듬뿍 들어간 고수'를 보고 "태국의 고수가 우리나라의 마늘 같은 게 아닐까"하고 여겨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마늘 냄새를 힘들어하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태국 학교에서 외국인 교사로 생활해보니, 소수자로서 의견을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수에 속하지 못하는 소외감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며 "배려받지 못하는 소수자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얼마나 클지 절감했다"고 말했다.

안 교사는 "여행자들끼리 어울리거나 현지에서 대접받는 관광객과 달리 막상 그곳에서 살아보니 어려움과 불쾌감, 소외감을 느꼈다"며 "한국에 돌아온 후 소수자에 관심이 커졌고,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함께 행복하게 지낼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상대의 문화와 배경을) 모르는 상태다 보니 편견과 무시가 생기는 것"이라며 "체험해보야 두려움이 없어지고, 편견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안 교사는 이후 담임으로 맡은 3학년 반 학생을 태국 학교 학생들과 짝을 지워 편지를 주고받는 학생간 교류를 주선하며 양국 문화를 더 잘 이해하도록 힘쓰고 있다.

아울러 다문화 교육에서도 "그간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함께 행복할 방법을 찾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례 7. 동아일보(2021-10-28) 2021 쌤 컨퍼런스, 10월 28일 온라인으로 개최

뉴스 > 국제 > 국제교류

2021 쌤 컨퍼런스, 10월 28일 온라인으로 개최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입력 2021-10-26 09:00 수정 2021-10-26 09:00



다문화가정 대상 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성과 보고회인 '2021 쌤(SSAEM-Sharing Stories of the Asia-Pacific Education Movements) 컨퍼런스'가 오는 28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참가 교사 및 학교의 교육활동 경험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이 행사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원장 임현묵, 이하 아태교육원)이 주관해 2014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올 행사는 주로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을 부를 때 쓰는 '쌤'들이 주인공이 되는 경험 공유의 장으로 '아태 지역에서 활동한 글로벌 교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한다. 우리나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대상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교육부 관계자, 2012~2021년 파견 및 초청 교사 등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쌤 컨퍼런스에서는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아태 지역의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한 국내외 교사들이 자국에서 온라인을 통해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줄 예정이다.

Ⅲ
기
타
주
요
자
료

다
문
화
가
정
대
상
국
가
와
의
교
육
교
류
사
업
최
종
보
고
서

28일 오전, 8개 사업 참가국 교육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패널토론에서는 교육 교류사업이 각국 교육현실에 어떤 의미가 있고, 학습 결손 등 팬데믹 지속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한다. 오후에는 6개국, 12명의 교사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교육교류 프로그램 경험담을 전할 예정이다.

올해 교사들은 한국 교사와 외국 교사가 온라인 교육교류 연구회를 결성하여 화상 수업, 수업 자료 공유,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 등을 공동 수행하고, 한국 교사들이 외국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 수업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비대면 교육교류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아태교육원 임현묵 원장은 “올해의 성과는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교육 교류 활동에 전념해주신 모든 참가 교사들과 현장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교육당국, 학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향후 대면과 비대면 교류가 공존하는 융합적인 교육교류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쌤 컨퍼런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사전 등록은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27일까지 할 수 있다.

한편, 교육교류사업은 국내 현직 교사(누적 인원 563명)를 아태 지역 학교에 파견하고, 아태 지역 현직 교사(누적 인원 672명)를 국내 학교로 초청하는 상호 교류 사업이다. 2012년부터 시작해 국내외 약 1200명의 교사가 참가해 교육 활동을 수행했다. 2021년까지 교류 국가는 총 8개국으로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과 한국 간 교류로 확대됐다고 아태교육원 측은 전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사례 8.

한국일보(2021-10-28) 이 없으면 잇몸으로

이 없으면 잇몸으로... 코로나 팬데믹 속 교육 불씨 살린 아시아 경험 공유

♡ 4 💬 0

아시아 국가들, 팬데믹 시대 수업 경험 공유
교육부 "한국 온라인교육 시스템 전수 노력"

입력 2021.10.28 16:00 수정 2021.10.28 16:38

#.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교를 폐쇄한 몽골은 록다운 기간 동안 모든 수업을 텔레비전 방송으로 진행했다. 온라인 교육도 시도했지만 기본적으로 전력이 부족하고,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데다 스마트 기기가 갖춰진 가정의 거의 없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몽골 학생 65만여 명 중 17만4,000여 명이 학습결손으로 나타났다.

#. 개학시기를 평소보다 한 달가량 늦춰음에도 여전히 등교수업이 금지된 태국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 정부가 학교 내에서의 모든 활동을 금지한 탓에 선생님들은 사비를 들여 수업 리허설 및 녹화 장소를 대관하고, 한국에서 받은 수업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방호복을 입고 일일이 학생들을 찾아가고 있다.

2021 SSAEM Conference

Opening Ceremony
10:30 - 11:00 (KST)



YDO Eun-hae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LIM Hyun Mook
Director of APECU



HANG Chuon Naron
Minister of Education, Youth and Sport, Cambodia

Panel Discussion
11:00 - 12:10 (KST)



LIM Wonjin Moderator
Head of Office of International Teacher Exchange, APECU



KIM Jinhyung
Director of 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Ren KUN
Deputy Director of Personnel Department, Ministry of Education, Youth and Sport, Cambodia



Rachmadi WIDDIHARTO
Director of Basic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Research and Technology, Indonesia



Vong Deuan OSAY
Deputy Director General of Department of Teacher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 Laos



Azhar AHMAD
Director of Teacher Professionalism Division



Oirov OYUNBILEG
Expert of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iosdado SAN ANTONIO
Undersecretary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Yupha IEMSANGUAN
Deputy Director of Policy and Planning Bureau

III 기타 주요 자료

다문화가정 대상국와의 교류·교류사업
2021년도 사업최종보고서

51

28일 교육부 주최,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APCEIU) 주관으로 열린 '2021 씬(SSAEM) 콘퍼런스'에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한국 등 8개국 교육부 대표가 모였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 교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씬은 '아태 지역에서 활동한 글로벌 교사들의 이야기(Sharing Stories of the Asia-Pacific Education Movements)'의 약자다.

교육부와 APCEIU는 2012년부터 국내 현직 교사와 아태 지역 현직 교사를 서로 초청, 파견하는 교육교류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콘퍼런스는 이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

봉 데우안 오사이 라오스 교육부 부국장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팬데믹은 저개발국가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낱알이 드러냈다"며 "열악한 정보통신 환경은 물론 부족한 인프라로 학습 및 사회정서적 결손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웃 국가들, 국제기구, 전략적 파트너들과 협업을 모색하고 있다"며 "교육교류 사업이 라오스 교육 질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흐마디 위디하르토 인도네시아 교육부 과장도 "학교 폐쇄 비용과 효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APCEIU의 온라인 교육자료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해 인도네시아 교사들을 위한 IT활용 자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를 계기로 한국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아태 지역 국가가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분야는 코로나로 여느 때보다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동시에 코로나로 인해 국제 교육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리기도 했다"며 "이 경험을 계기로 미래 혁신 교육의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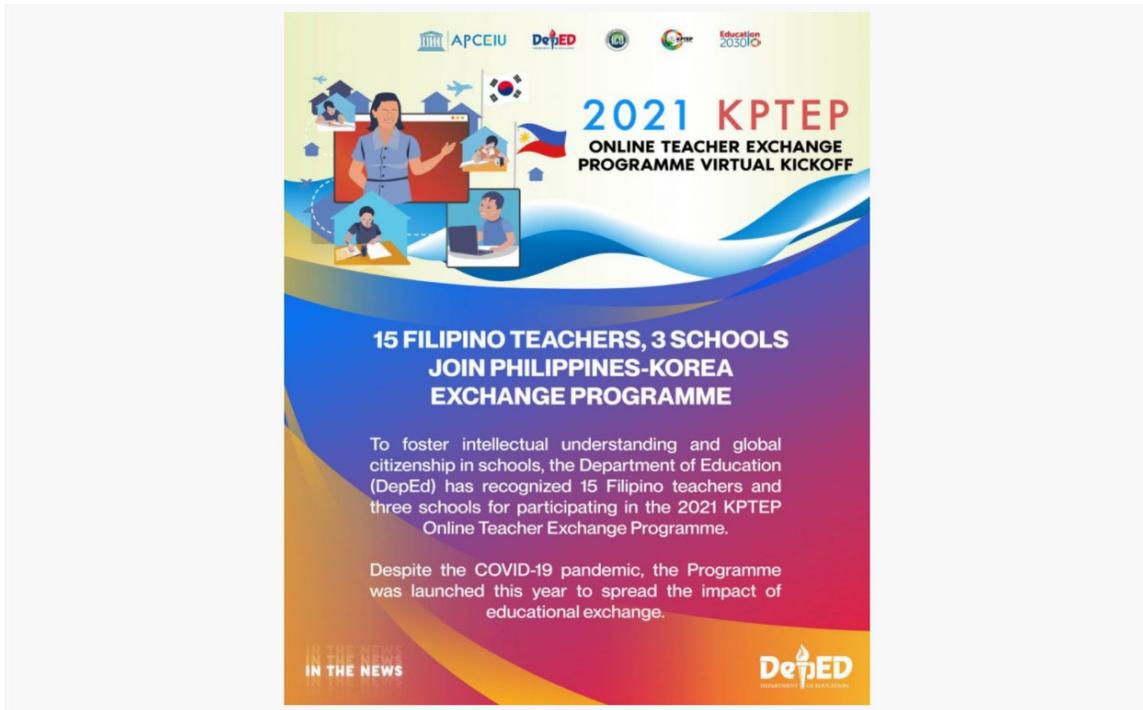
사례 9.

15 Filipino teachers, 3 schools join Philippines-Korea exchange programme



15 Filipino teachers, 3 schools join Philippines-Korea exchange programme

YOU ARE HERE: [PRESS RELEASES](#) > 15 FILIPINO TEACHERS, 3 SCHOOL...



May 13, 2021 – To foster intellectual understanding and global citizenship in schools, the Department of Education (DepEd) has recognized 15 Filipino teachers and three schools for participating in the 2021 KPTEP Online Teacher Exchange Programme.

"I always believe that opportunities to understand other cultures would always enhance the competence and commitment of our fellow teachers in terms of effort to really create learners who are respectful of diversity," Undersecretary for Curriculum and Instruction Diosdado San Antonio said during the Programme's launch.

In partnership with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MOE Korea), the KPTEP Online Teacher Exchange Programme participants in the Philippines are (Luzon) Ms. Elizabeth Catibog (KPTEP Alumna, Lead Coordinator), Mr. Efraim Coronacion, Ms. Fergie Gonzales, Ms. Barbara Ramos, and Mr. Emmanuel Dela Cruz; (Visayas) Mr. Edmund Dacua (KPTEP Alumnus, Lead Coordinator), Ms. Reggie Lou Savior, Ms. Regine Lagrimas, Ms. Honey Riza Yu Vega, and Ms. Jocelyn Llego; (Mindanao) Ms. Cherry Lyn Balbacal (KPTEP Alumna, Lead Coordinator), Ms. Johanna Paño, Ms. Honeyline Depra, Ms. Shella Rose Amodia, and Mr. Edgardo Pamugas III.

Meanwhile, selected Philippine schools for this year's program are Renato Lopez Elementary School in Mandaluyong City, Tisa II Elementary School in Cebu City, and Rizal Elementary School in Panabo City. For each school, participants will be comprised of a study group and one lead teacher that is a KPTEP Alumnus.

"According to our own experience, we've been able to work very well with our Korean counterparts in making sure that participants from the Philippines become fully able to develop and acquire the competencies intended to be focused on as this exchange program is implemented," Usec. San Antonio added.

Despite the COVID-19 pandemic, the Programme was launched this year to spread the impact of educational exchange.

"Through programs like the KTEP, Filipino and Korean teachers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from each other's best practices in the field of education, as well as from strong cross-cultural connections. This exchange epitomizes the true essence of people-to-people cooperation with its focus 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Office of Asia and the Pacific Affairs Assistant Secretary Nathaniel Imperial said in his congratulatory message.

For UNESCO-Asia 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 Director Lim Hyun Mook, countries should work together to overcome the challenges of the pandemic in education.

"Global education emphasizes solidarity and cooperation, which are the keys to problem-solving. So this year's online exchange program is particularly important. Since this is our first attempt, we will be facing a number of unexpected problems and challenges. But through this process, we will also learn valuable lessons that will help us a lot in planning our future exchange programs to include both offline and online equities. APSEIU reaffirms its support to the participating teachers and schools for the success of the program," said Mook.

DepEd Regional Directors Wilfredo Cabral (NCR), Salustiano Jimenez (Region VII), and Allan Farnazo (Region XI) and SDO officials ASDS Dr. Romela Cruz of Mandaluyong City, SDS Rhea Mar Angtud of Cebu City, and SDS Reynante Solitario of Panabo City also gave their support to the participants.

END

사례 10.

연합뉴스(2021-03-18) 한국-동남아 다문화 가정 국가 학교 교류 다음달 시작

2021. 3. 18.

연합뉴스



'한국·동남아 다문화 가정 국가 학교' 교류 다음 달 시작

송고시간 | 2021-03-18 08:01



양태삼 기자
[기자 페이지](#)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 학생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동남아 3개국과 한국 학교 교사와 학생간 온라인 교류가 다음 달 시작된다.

2021. 3. 18.

연합뉴스

교육부가 주최하고 '2021 다문화 가정 대상 국가와 교육 교류 사업'을 주관하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교육원(원장 임현목·아태교육원)은 최근 이 사업에 참여할 10개 학교를 선정해 18일 오후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아태교육원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울공고와 부산 대연초, 대구 신천초, 인천 공항공고, 대전 둔산초, 세종 도담초 등 10개교를 선정했다.

상대 국가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필리핀 등 3개국이다. 이달 중 교류 참여 학교를 확정할 예정이다.

상대 교류 국가 학교와 짝을 이룬 학교 교사들이 수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에 학생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아태교육원은 전했다.

수업 내용으로는 한국 쌀농사와 필리핀 쌀농사 방법을 소개하거나 한국 겨울철 모습이나 고온 다습한 말레이시아 여름 날씨를 비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수업 교류는 다음 달부터 3개월동안 최소 6회 이상 이뤄져야 하고, 교류 결과는 보고서로 제출돼야 한다.

tsy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3/18 08:01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사례 11.

신아일보(2021-10-15) 전문산초, 국제 교류 파트너 학교와 언택트(Untact) 품새 대회 개최

신아일보

≡ 정치 경제 산업 건설부동산 사회 로컬+ 글로벌 Sview 이슈분석

HOME > 로컬+ > 대전충청

대전둔산초, 국제 교류 파트너 학교와 언택트(Untact) 품새 대회 개최

☞ 정태경 기자 | Ⓞ 승인 2021.10.15 13:17 | 💬 댓글 0

코로나 팬데믹에도 태권도로 하나 된 한국과 태국 청소년들



둔산초, 태국 학생들에게 보낸 상장과 상품 그리고 국제교류에 참여한 교사들 (사진=둔산초)

대전둔산초등학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태국 Phaythai School(파야타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품새 동영상 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을 펼쳤다.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아태교육원(APCEIU)에서 주관하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하는 양국의 교사들은 공동수업안을 작성하고, 상대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각 3회에 걸쳐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며 문화교류를 해 왔다.

또한 대전둔산초 교사들은 태국 학생들에게 '무에타이와 태권도'를 주제로 수업한 후 '태극 1장 품새 동영상 대회'를 개최했다. 대전둔산초는 태국 학생들이 품새를 연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외부에서 초빙한 배태진 관장과 12명의 둔산초 유단자 학생들이 태권도 시범 동영상 촬영을 제공했다.

태국 학생들이 제출한 태극 1장 품새 동영상은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11명의 입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입상자들에게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상장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상품을 국제우편으로 전달하였다.

박종용 교장은 "태국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며 한국의 전통 무술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국제교류를 꾸준히 이어가며 학생들의 국제화 능력을 신장하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는 데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jeong3975@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태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

전국 네트워크 뉴스

사례 12. 한국일보(2021-10-28) 인터넷 없어 TV로 수업하고, 방호복 입고 집 찾아가 수업물품 전달하고...

한국일보

인터넷 없어 TV로 수업하고, 방호복 입고 집 찾아가 수업물품 전달하고 ...

김진주 기자 2021.10.28. 16:00



아시아 국가들, 팬데믹 시대 수업 경험 공유
교육부 "한국 온라인교육 시스템 전수 노력"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교를 폐쇄한 몽골은 폭다운 기간 동안 모든 수업을 텔레비전 방송으로 진행했다. 온라인 교육도 시도했지만 기본적으로 전력이 부족하고,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데다 스마트 기기가 갖춰진 가정의 거의 없어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몽골 학생 65만여 명 중 17만4,000여 명이 학습결손으로 나타났다.

개학시기를 평소보다 한 달가량 늦혔음에도 여전히 등교수업이 금지된 태국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 정부가 학교 내에서의 모든 활동을 금지한 탓에 선생님들은 사비를 들여 수업 리허설 및 녹화 장소를 대관하고, 한국에서 받은 수업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방호복을 입고 밀입이 학생들을 찾아가고 있다.

MSN에서 더 보기



© 제공: 한국일보

28일 교육부 주최,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교육원(APCEIU) 주관으로 열린 '2021 뽀(SSAEM) 콘퍼런스'에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한국 등 8개국 교육부 대표가 모였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 교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뽀는 '아태 지역에서 활동한 글로벌 교사들의 이야기(Sharing Stories of the Asia-Pacific Education Movements)'의 약자다.

교육부와 APCEIU는 2012년부터 국내 현직 교사와 아태 지역 현직 교사를 서로 초청, 파견하는 교육교류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콘퍼런스는 이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

봉 대우안 오하이 라오스 교육부 부국장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팬데믹은 저개발국가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낱알이 드러냈다"며 "열악한 정보통신 환경은 물론 부족한 인프라로 학습 및 사회정서적 결손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웃 국가들, 국제기구, 전략적 파트너들과 협업을 모색하고 있다"며 "교육교류사업이 라오스 교육 질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흐마디 워디하르토 인도네시아 교육부 과장도 "학교 폐쇄 비용과 효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APCEIU의 온라인 교육자료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해 인도네시아 교사들을 위한 IT활용 자료 등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를 계기로 한국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아태 지역 국가가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분야는 코로나로 여는 때보다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동시에 코로나로 인해 국제 교육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리기도 했다"며 "이 경험을 계기로 미래 혁신 교육의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2021년도 사업 최종보고서

참가 교사 활동 보고

제2부

Ⅰ. 국내학교 우수사례 모음

Ⅱ. 현지학교 우수사례 모음

Ⅲ. 공모전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2021년도 사업 최종보고서
제2부 참가 교사 활동 보고



국내학교 우수사례 모음



국내학교 우수사례 모음

1. 수업 보고서

제출일: 2021. 8. 9.

(1) 작성자 정보

작성교사	길준한		
소속학교	대전둔산초등학교	연구회명	Growing Together
교류국가	태국	파트너학교	Phyathai School
제출일	2021. 8. 9.		
수업명	Seasons of South Korea and Thailand + Global Warming		

(2) 수업 보고

서론

- 해당 수업 선정 이유
기후변화가 급속해짐에 따라 기후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세계 기후협약이나, 탄소배출 감소 약속하는 등 환경에 대한 각종 규제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기후 변화, 더 나아가 환경에 대한 교육이 요구 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 태국의 기후에 대해 배우고, 지구온난화를 중심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 본 학습 주제가 가지는 의미 및 중요성
본 학습 주제는 국제 교류 수업이라는 특수성을 먼저 고려하였습니다.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를 우선으로 하여 배움에 대한 마음의 벽을 낮추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향이라는 것을 체감하고 더욱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 수업 목표
 1. 계절이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2. 한국과 태국 계절의 차이 이해하기
 3. 지구온난화에 대해 인식하기
 4. 환경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탐색하기

사전준비

- 수업을 위한 사전 준비
태국 학교에서는 계절에 대한 사전 지식과 관련된 교과 내용을 문의했고 이에 6학년 과학의 계절이 생기는 까닭의 내용과 깊이, 그리고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바탕으로 수업에 대해 협의했다. 이를 통해 과학 단원과 창체의 환경 교육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의했습니다.

수업 내용

수업 대상	국내	한국 교사	전하경	외국 교사	Ms.Sasithorn Kiewkor Ms.Pinpicha Pienmana
과목	과학	학년/반	6학년 3반	수업 시간	35분
주제	한국과 태국의 계절				
학습 목표	1. 계절이 생기는 까닭 이해하기 2. 한국과 태국 계절의 차이 이해하기 3. 지구온난화에 대해 인식하기 4. 환경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탐색하기				
구분	학습단계	학습 활동		수업 자료	
수업 진행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에 대한 소개하기 한국과 태국의 위치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과 태국의 지리적 위치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리젠테이션 자료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절이 생기는 까닭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와 태양의 위치에 따라 빛의 양이 변하는 것을 알고 이를 통해 계절의 변화 이해하기 태국의 계절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국의 계절은 3개임을 알고 계절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기 지구온난화에 대해 인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와 언론 보도 뉴스등을 통해 이상 기후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해 이해하기 환경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탐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활동지를 통해 찾고 발표하기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늘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환경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 			

결론 및 제언

구분	내용
수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나라의 계절에 대한 이해 일부 학생들은 모든 나라가 사계절이 있으며 나라에 대해 춥고 더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사계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나 이에 따른 오개념이 있다. 이번 태국 계절에 대한 사례를 통해 계절은 나라마다 다양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계절이 생기는 까닭에 대한 관심 재고 나라별로 계절이 다른 까닭을 지구와 태양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을 배움으로서 나라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리적 위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다. 환경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환경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이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에 대한 성과 환경 교육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교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는지 몸소 느끼게 되어 신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교육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비슷한 방향이라고 느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실시간 수업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실시간 수업을 할 때 준비해야 하는 장비들과 수업에 문제가 생겼을 시에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수업 사진



설명: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특정 부분이 잘보이도록 화면 확대/축소 조절을 하는 상황



설명: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특정 부분이 잘보이도록 화면 확대/축소 조절을 하는 상황

제출일: 2021. 7. 8.

(1) 작성자 정보

작성교사	이재원		
소속학교	대연초	연구회명	응골찬 세계시민교육 교사연구회
교류국가	필리핀	파트너학교	Rizal Elementary School
제출일	2021. 7. 8.		
수업명	보드게임과 함께 하는 한국의 음식 문화		

(2) 수업 보고

서론

- 해당 수업 선정 이유 :한국과 필리핀 학생들의 인식들을 사전 설문을 통해 알아보고,그 내용을 이미지로 변경하여 비교해 보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이해와 차이점을 공유
- 본 학습 주제가 가지는 의미 및 중요성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력 향상
- 수업목표 ;이미지를 활용한 상호 문화 이해하기

사전 준비

- 수업을 위한 사전 조사 내용 ;여러가지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책,환경오염과 관련된 제작 영상
- 파트너 학교 교사와의 협의 내용: 학생들의 설문 참여,필리핀 문화와 관련된 사진 준비,다양한 질문 사전 조사

수업 내용

수업 대상	필리핀	한국 교사	이재원	외국 교사	Johnna B. Paño, HoneylineDepra, Shella Rose Amodia, Edgardo Pamugas III
과목	도덕,사회	학년/반	필리핀	수업 시간	60분
주제	이미지를 활용한 한국과 필리핀 문화 이해하기				
학습 목표	한국과 필리핀 학생들의 인식차이를 이해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세를 이야기할 수 있다.				
구분	학습단계	학습 활동		수업 자료	
수업 진행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초청강사 소개:필리핀계 캐나다인 • 한국-필리핀 학생의 인식 조사 결과 나누기 		구글 설문 결과 PPT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인식을 이미지를 활용하여 나누기 • “세계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이야기 		프린트물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할 바른 자세에 대한 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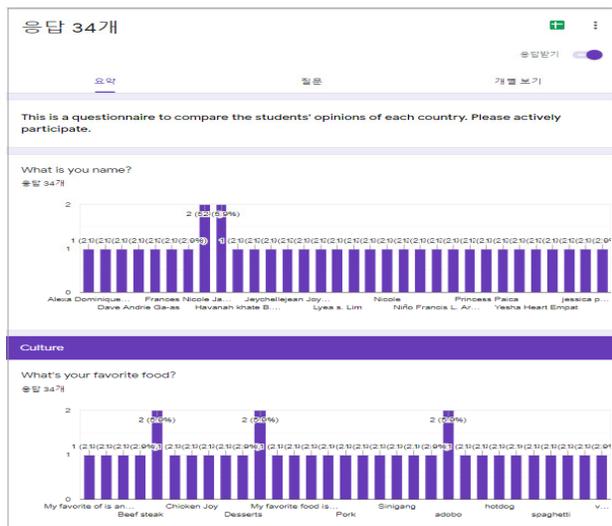
결론 및 제언

구분	내용
수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직접 한국의 문화를 체험해 봄 • 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제공 • 줌을 통해 다양한 상황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음 • 학생들이 집에서 한국 음식을 활용한
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전달할 수 있어서 부뒸하였다. • 학생들이 스스로 게임을 제작해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교육의 결과가 상당히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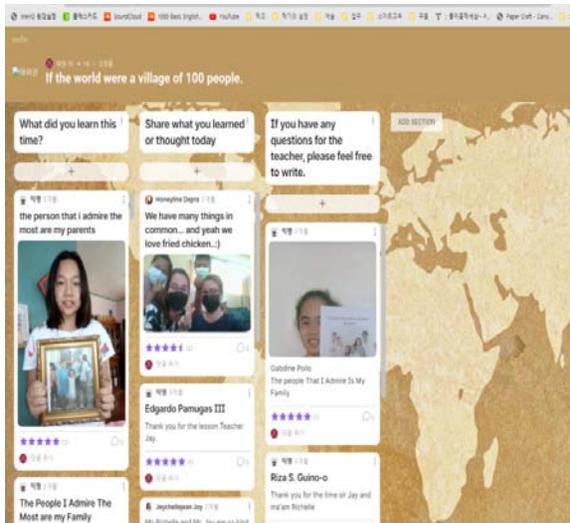
수업 사진



설명: 필리핀계 캐나다 교사 협동 수업



설명: 한국 필리핀 학생 대상 설문



설명: 활동 결과 공유



설명: 환경 오염을 위한 세계시민 교육 방향

제출일: 2021. 6. 30.

(1) 작성자 정보

작성교사	기미라		
소속학교	담양중학교	연구회명	KOMTEP 2021
교류국가	말레이시아	파트너학교	SMK SUNGAI KERTAS
제출일	2021. 6. 30.		
수업명	한국의 다양한 사계절과 전통음식 및 팥빙수 만들기		

(2) 수업 보고

서론

- 세계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나라의 기후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탐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며 한국의 전통 음식과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며, 나라별 기후가 다른 이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기름.
- 한국의 사계절 별 특징을 설명하고 계절별 즐겨먹는 전통음식을 알리며, 학습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여름 음식 팥빙수 만들기를 진행함.

사전 준비

-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고 한국 음식(라면, 팥빙수, 치킨)등을 좋아한다고 함.
- 상대 학교 선생님들과 협의를 통해 더운 여름날 즐겨 먹는 팥빙수 만들기를 수업 내용으로 정함.
- 국가마다 기후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사계절의 대표 모습들을 사진으로 구성 다양한 활동, 음식들을 소개하기로 함.
- 말레이시아 학교가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 등교가 어려운 관계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팥빙수 만들기를 진행하기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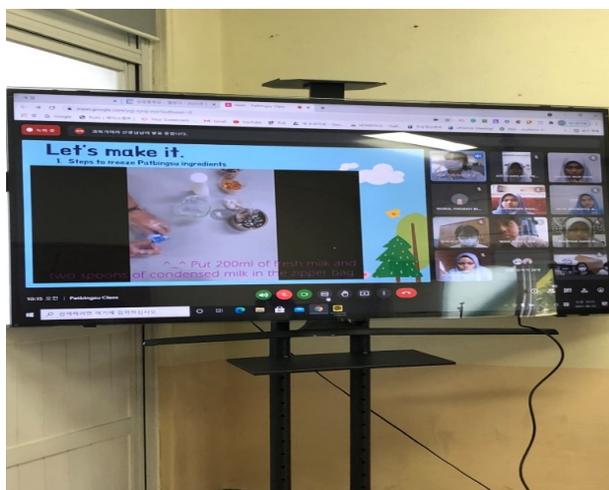
수업 내용

수업 대상	말레이시아 SMK SUNGAI KERTAS 학생	한국 교사	기미라	외국 교사	Mohamad Farid Che Masnika Natasya Haswani
과목	과학	학년/반	13~15세(35명)	수업 시간	2021.6.23(금) 10:00~11:00
주제	한국의 사계절과 전통음식을 배우고 팥빙수 만들기				
학습 목표	한국의 사계절 특징과 여름 대표 음식 팥빙수 만들기				
구분	학습단계	학습 활동			수업 자료
수업 진행	도입	-한국의 사계절이 생기는 이유 설명하기 한국의 사계절을 볼 수 있는 영상 보기			- Google meet - Canva - youtube
	전개	• 한국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특징 설명하기 • 사계절별 전통 음식 알아보기 • 전통음식 송 듣기 • 여름대표 음식 팥빙수 만들기 영상을 소개하고 동영상 제공하기 • 팥빙수 만들기 • 자신이 만든 팥빙수를 페들렛에 업로드하기			- Canva - worksheet
	정리	• 학생들이 올린 사진에 댓글 달고 소통하기 오늘 수업에 대한 소감과 한국에 대한 궁금한 점을 소통하며 마무리하기			Padl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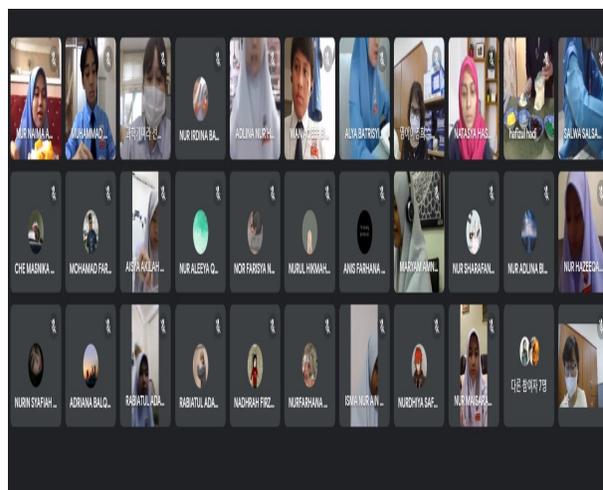
결론 및 제언

구분	내용
수업 성과	학습자 중심의 수업 성과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우리나라 사계절의 특징을 배울 수 있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에 볼 수 없는 눈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겨울에 관심이 많았음. • 학생들이 집에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팥빙수를 만들었으며, 한국의 다양한 음식들에 흥미를 가짐. • 말레이시아 현재의 기후가 더워서 우유가 빨리 녹아버려 팥빙수 만들기에 아쉬움을 보임. • 사계절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통해 말레이시아 기후나 날씨와 다른 음식, 여가활동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가 됨.
개별 성과	교사 중심의 개별 성과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플랫폼 등을 사용하므로 수업의 전문성을 향상을 위해 노력함. •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고 방법 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됨. • 다양한 교육 주제들을 여러 활동을 통해 제시 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함.

수업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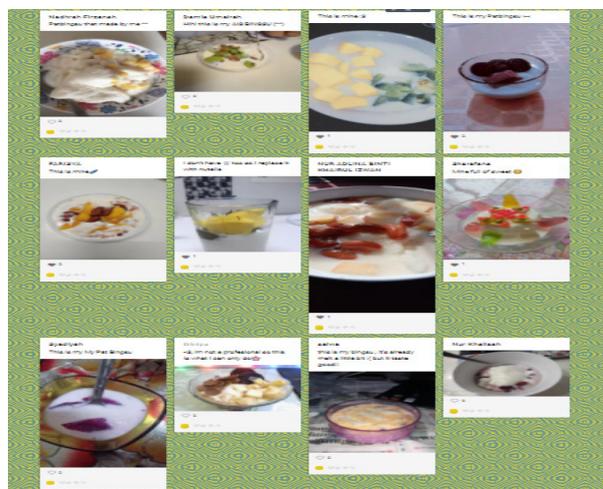
설명: 팥빙수 만들기를 동영상 통해 설명



설명: Google Meet를 이용하여 수업에 참여하고 있음.



설명: Google Meet를 이용하여 사계절을 설명함.



설명: 학생들이 만든 팥빙수를 패들렛에 업로드 함.

수업 자료 - 수업용 슬라이드(PDF) 별첨

※ 본 수업 보고서 양식은 내용에 따라 작성자 개인의 요구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제출된 수업 보고서는 추후 결과 보고서, SSAEM Conference 등에 탑재 및 활용될 예정입니다.

2.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제출일: 2021. 7. 5.

(1) 연구회 정보

연구회명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소속 학교	인천공항공고등학교
교류 국가	말레이시아	파트너 학교	Keningau Vocational College
대표 교사	김성희	회원 교사	송인숙
회원 교사	강누리	제출 일	2021. 7. 5.

(2)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Food Harmony, Co2 foot print!
주제	라면챌린지와 에코브릭스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은 누구나 관심이 많고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소재가 됩니다. 전반적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증진된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서로의 문화를 즐기고 나아가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방안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면 챌린지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나라의 라면 레시피를 소개하고 상대편 국가의 라면 레시피를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 나라마다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라도 끓이는 방식과 첨부하는 재료에 따라 개별화된 개성있는 음식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통해 세계화와 현지화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나아가 라면봉투 등 공정과정에서 탄소가 일으키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탄소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운동과 관련 지어 에코브릭 캠페인을 소개했습니다.
연구/프로젝트 수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소개 : 패들렛을 활용하여 글과 이미지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댓글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양국 학생이 서로를 알고 친밀감을 쌓게 함 프로젝트 실행방법 설계 : 양국의 교사 6명이 모여 전반적 운영과 방법에 대해 협의한 후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 보완함 참가학생 개별 라면 레시피 소개 : 학생들 각자 패들렛의 자신의 이름 밑에 라면종류, 사용한 재료, 요리과정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 플레이팅 등을 게시함 한국교사 강의 : 기후변화와 탄소발자국을 주제로 강의하고 중요 정보로 퀴즈활동함 상대국 라면 끓여보기 : 상대국가에서 배송된 라면을 상대국가 학생이 올린 레시피를 보면서 요리해 봄 소모임 : 양국학생이 6개의 소모둠실로 모여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우고 느끼고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발표함 말레이시아 교사 강의 : 에코브릭 캠페인과 제작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 방법을 토의함 전체모임 : 양국에서 제작한 브이로그와 패들렛 등 프로젝트 결과물을 열람하고 대표교사와 대표학생의 소감발표 및 질의응답시간을 가짐본 활동이 마무리 된 후 동영상, 사진첨, 보고서 등의 자료집을 제작한다.
프로젝트 산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패들렛 자료(자기소개, 양국 라면 레시피 소개)
프로젝트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면 챌린지(Ramen Challenge)'란 라면이라는 비교적 저렴하고 보편적인 음식을 참가학생들이 개성있게 요리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그 과정을 통해 각국의 식재료와 문화적 특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나아가 버려지는 라면봉투와 연관지어 지구환경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고찰하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3) 과업 내용

교사명	담당 과업
김성희 (대표교사)	전반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교류국가 소통 및 조율
강누리	학생들 활동 모니터링 및 언어적 지원
송인숙	필요물품 구입 및 배부, 발송

(4) 프로젝트 내용 및 결과

프로젝트 수행 내용

활동	세부내용
교사 사전 회의	•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면서 문화다양성과 지구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프로젝트 주제를 모색하다가 음식, 그 중에서도 라면을 떠올림
학생 사전 회의	• 라면을 중심으로 요리문화를 교류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패들렛에 학생 각자의 레서피를 v-logue형식으로 올리기로 함 • 희망자에 한해 요리를 제외한 다른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도 만들어 문화적 교류를 하기로 함
자료 제출 형식 구상	• 학생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개별화된 소통을 하기 위해 레이아웃은 '셀프'로 하고, 좌측에 탑재방법과 예시를 탑재하기로 함
자기소개	• 프로젝트에 들어가기 전에 온라인과 서면으로 자기소개활동을 진행함
학생별 라면 레서피 탑재	• 자기소개 활동에서 진행한 틀에 맞춰 학생들 각자 패들렛의 자신의 이름 밑에 라면종류, 사용한 재료, 요리과정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 플레이팅 등을 게시함
한국교사 강의	• 기후변화와 탄소발자국을 주제로 강의하고 중요 정보로 퀴즈 활동함
라면 및 레서피 패들렛 교환	• 자국의 라면을 구입하여 교류국에 전달함. 취합된 자국의 라면레서피 패들렛 주소를 교류국가 공유함
상대국 라면 요리	• 선물로 받은 교류국 라면을 레서피를 보면서 요리해서 먹음
소모임활동	• 양국학생을 6개의 소모둠실로 나누어 진행함.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우고 느끼고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친밀감을 높임
말레이시아 교사 강의	• 에코브릭 캠페인과 제작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 방법을 토의함
평가회	• 양국에서 제작한 브이로그와 패들렛 등 프로젝트 결과물을 열람하고 대표교사와 대표학생의 소감발표 및 질의응답시간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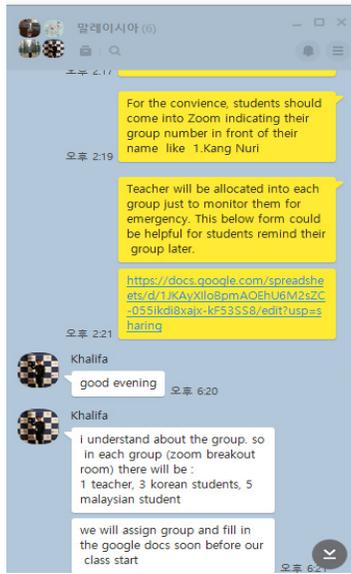
프로젝트 수행 결과 (연구결과 + 결론 및 제언)

프로젝트 결과	• 양국의 학생들이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요리에 관한 이야기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문화이해도를 높임
함의 및 제언	• 패들렛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에 레서피를 설명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보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것에 능숙하다는 것을 알게 됨 • 비대면으로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국제교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체험함 • 언어적 한계도 번역기를 활용하여 극복할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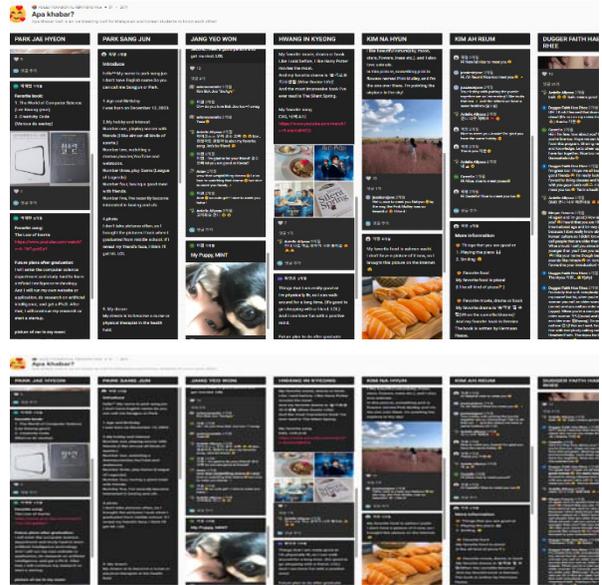
프로젝트 산출물 (활용방안 + 기대효과)

산 출 물	• 자기소개 패들렛 : 각국 학생의 특징과 관심사항이 잘 드러나 있음 • 라면 레서피 : 각국에서 자주 쓰는 식재료나 요리법을 알 수 있음 • 브이로그 : 일상의 삶의 모습과 함께 살고 있는 장소의 특징을 알 수 있음
활 용 방 안	• 한국 라면, 혹은 말레이시아 라면의 요리법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패들렛 링크 공유, 혹은 pdf자료로 배포
기 대 효 과	• 요리라는 친근한 주제를 통해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존재를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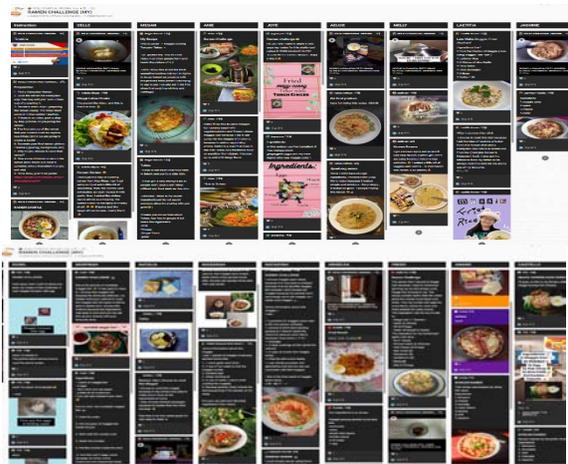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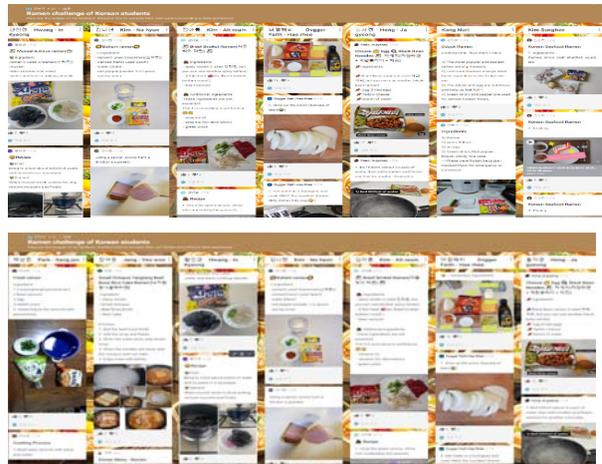
<카카오톡으로 담당교사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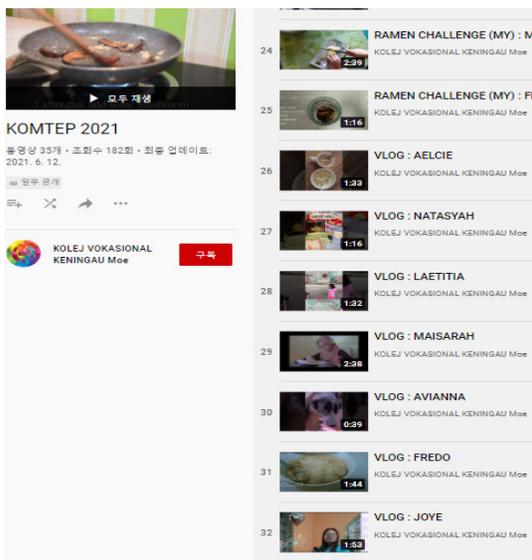
<패드렛으로 학생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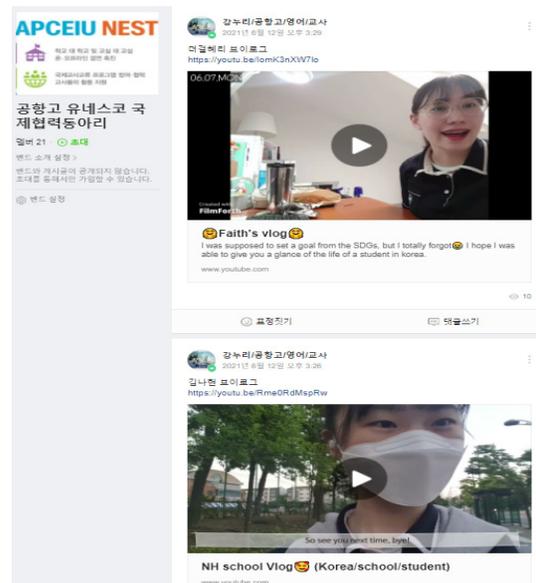
<라면챌린지-말레이시아라면레서피>



<라면챌린지-한국라면레서피>



<말레이시아 학생 브이로그>



<한국학생 브이로그>

I
국내학교 우수사례 모음

다문화가정 대상국와의 교육교류사업
2021년도 사업최종보고서

(1) 연구회 정보

연구회명	대구어벤져스	소속 학교	대구신천초등학교
교류 국가	필리핀	파트너 학교	Tisa II Elementary School
대표 교사	손유정	회원 교사	김효진
회원 교사	이대환	회원 교사	김진삼
회원 교사		제출 일	2021. 7. 8.

(2)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www프로젝트로 www.상생 지구촌.com 접속하기
주 제	에듀테크 활용 해외 교류 수업 방안
목 적	에듀테크 활용 실시간 쌍방향 세계시민 수업 매뉴얼 제작
배 경	또래 상대국 학생들과의 온라인 협력 경험을 통한 세계시민 의식 제고
연구/프로젝트 수행 방법	-자료집(지도안) 제작: 에듀테크 활용 실시간 쌍방향 세계시민 수업 매뉴얼 제작
프로젝트 산출물	자료집(지도안)
프로젝트 요약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의 제한으로 인해 쌍방향 수업이 진행 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도구 사용이 활성화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상대국 교사 뿐 아니라 상대국 학생과 국내 학생 간의 쌍방향 소통 수업을 진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세계 시민 교육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양한 협력 학습 도구를 쌍방향 수업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6회의 수업을 통한 지도안을 통해 매뉴얼화 하였다.

(3) 과업 내용

교사명	담당 과업
손유정 (대표교사)	프로젝트 구상 및 수업 진행을 통한 매뉴얼 제작
김효진	매뉴얼 제작 보조 및 쌍방향 수업 진행
이대환	수업 진행 보조
김진삼	학생 수업 진행 보조

(4) 프로젝트 내용 및 결과

프로젝트 수행 내용 프로젝트 활동 및 각 활동의 세부 내용 기술

활동	세부내용
사전회의 및 사전조사	• 국내 교사 간 협의회 진행 및 프로젝트 계획 수립. 교류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도구 발굴. • 국외 교사와의 협의회 진행을 통해 수업 계획 수립, 각 차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도구 계획
프로젝트 구상	수업 진행 계획 및 프로젝트에 필요한 문헌 조사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	협의회 진행을 통해 각 차시 수업을 진행하며 사용하였던 에듀테크 도구와 시행 착오 수합, 수업 성찰을 통해 매뉴얼 제작

프로젝트 수행 결과 (연구결과 + 결론 및 제언)

프로젝트 결과	쌍방향 국제 교류 수업 자료집 제작
함의 및 제언	상대국 교사와의 수업으로도 의미 있는 세계 시민교육이 가능하지만 상대국 학생과의 교류는 학생들이 더욱 능동적으로 세계 시민의식을 갖게 할 수 있음.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에듀테크 도구를 사용한다면 국경을 넘는 협력 체험을 통해 효과적인 세계시민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음.

프로젝트 산출물 (활용방안 + 기대효과)

산 출 물	자료집
활 용 방 안	해외 학교와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한국 교사들에게 배포
기 대 효 과	온라인 협력 도구를 이용한 해외 학교와의 쌍방향 교류 수업에 이바지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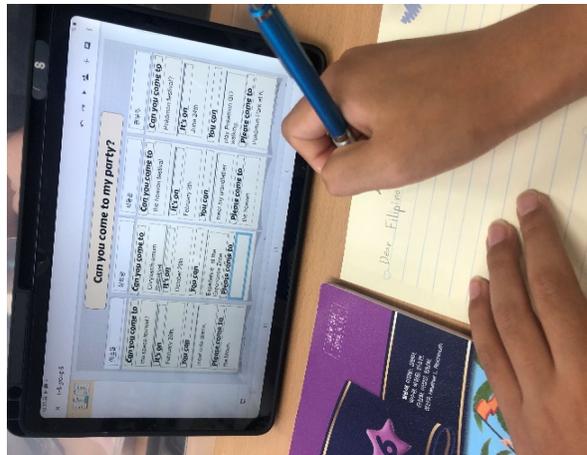
수업 진행 전 상대국 선생님과의 수업 협의 및 일정 조정



본교 교사 협의회를 통한 프로젝트 수행 내용 협의 및 역할 분담



에듀테크 활용 쌍방향 교류 수업 진행



쌍방향 교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사례 발굴



메타버스 활용 가능성 모색



쌍방향 교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사례 발굴

I
국내학교 우수사례 모음

다문화가정 대상국와의 교육교류사업
2021년도 사업최종보고서

(1) 연구회 정보

연구회명	동산가디언스	소속 학교	대전동산중학교
교류 국가	태국	파트너 학교	Siriratanathorn Secondary School
대표 교사	최현수	회원 교사	신승욱
회원 교사	조혜진	회원 교사	김지은
회원 교사	소만성	제출 일	2021. 8. 9.

(2)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함께 하는 작은 세계 프로젝트 (1.함께 하는 작은 교실 + 2.세계는 둥글다 : 부제. 다다르다 프로젝트)														
주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과 혐오를 줄이는 문화 이해 교육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의사소통을 기반한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 함양 -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력 향상 및 자신감 고취 - 직접 참여를 통한 다원적 가치 이해와 세계시민의식 신장 - 그림책 읽기와 다양한 주제 토의를 활용한 문해력 향상 														
배경	<p>1. 함께 하는 작은 교실 본교의 다문화 학생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출신 국가 또한 다양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인해 학습에 대한 수행력 부족 등 전반적 학교 생활의 적응력이 매우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및 자신감을 고취시켜 그들의 생활 전반을 도울 필요가 절실한 때다.</p> <p>2. 세계는 둥글다. (부제: 다다르다 프로젝트) 지구촌 시대, 세계시민으로서 학교에서는 어느 때보다 민주시민의식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 변화와 환경문제, 인공지능 발달과 일자리 감소, 저출산과 고령화 위기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되며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세계시민의식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이 협력하며 살아가는 사회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통해 공동체임을 깨닫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영구적인 번영을 이룩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 프로젝트를 통해 차별과 혐오, 인권과 존중, 평화와 갈등 문제를 다루며 감성적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p>														
연구/프로젝트 수행 방법	<p>1. 함께 하는 작은 교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학생과 담임교사가 멘티:멘토를 이뤄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 : 수행 프로그램 (영어 공부 정복하기, 키다리 아저씨가 필요해요, 나만의 필통 꾸리기, 나의 발이 되어줘, 깔끔한 내 모습 찾기) <p>2. 세계는 둥글다. (부제: 다다르다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학생 대상 공동체 의식에 대한 사전, 사후 인식 조사 실시 - 사례연구: 주제 관련 사전 사례 분석 실시 및 방향 설정 - 워크숍: 프로젝트 수업 운영 관련 연수 및 전문가 초청 강연 실시 - 토의하기: 주제토의 하브루타(질문 만들기), 월드카페(해결방법 모색) 														
프로젝트 산출물	연구보고서, 프로젝트 운영 프로그램(활동지)														
프로젝트 요약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25%;">1단계 준비</td> <td style="width: 5%;"></td> <td style="width: 25%;">2단계 계획</td> <td style="width: 5%;"></td> <td style="width: 25%;">3단계 실행</td> <td style="width: 5%;"></td> <td style="width: 25%;">4단계 정리</td> </tr> <tr> <td>- 선행 사례 분석 - 세계시민의식 실태 분석</td> <td>⇒</td> <td>- 과제 설정 - 프로그램 개발</td> <td>⇒</td> <td>- 수업 진행 - 학생 활동 실시</td> <td>⇒</td> <td>- 결과 분석 - 보고서 작성</td> </tr> </table>	1단계 준비		2단계 계획		3단계 실행		4단계 정리	- 선행 사례 분석 - 세계시민의식 실태 분석	⇒	- 과제 설정 - 프로그램 개발	⇒	- 수업 진행 - 학생 활동 실시	⇒	- 결과 분석 - 보고서 작성
1단계 준비		2단계 계획		3단계 실행		4단계 정리									
- 선행 사례 분석 - 세계시민의식 실태 분석	⇒	- 과제 설정 - 프로그램 개발	⇒	- 수업 진행 - 학생 활동 실시	⇒	- 결과 분석 - 보고서 작성									

(3) 과업 내용

교사명	담당 과업
최현수 (대표교사)	프로젝트 수업 진행, 선행 사례 분석, 보고서 작성
조혜진	프로젝트 수업 진행, 워크숍 준비
신승욱	설문 조사 실시, 자료 분석 및 관리
소만성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 수업 진행,
김지은	자료 분석 및 관리, 결과물 정리

(4) 프로젝트 내용 및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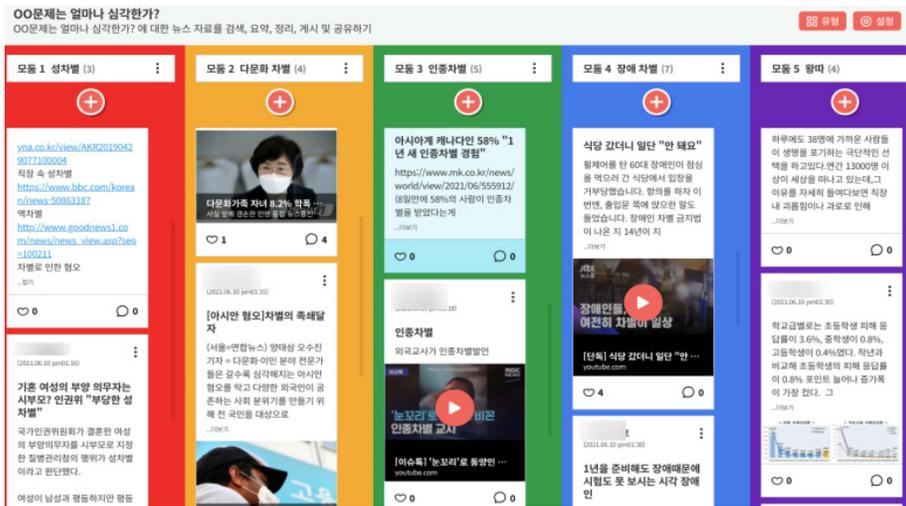
📌 프로젝트 수행 내용 - “세계는 동글다(다다르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동	세부내용																																																		
선행 사례 분석	<p>1. 활동내용</p> <p>가. 참고사이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ICA 교육자료 (ODA 교육원) ▪ 교육부 교육자료(www.gcetdclearinghouse.org) ▪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https://asp.unesco.or.kr/) <p>나. 선행 사례</p> <table border="1"> <thead> <tr> <th>순번</th> <th>제목</th> <th>내용</th> <th>실천 방법</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우리는 세계 시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연결성에 대한 이해 • 세계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td> <td>협력 게임, 영상 시청을 통한 배경지식 이해, 그리기 정리 활동</td> </tr> <tr> <td>2</td> <td>담장 너머 지구촌 보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날 프로젝트 만들기 </td> <td>영상 시청을 통한 동기 부여, 실천 목록 만들기, 실천 서약하기</td> </tr> <tr> <td>3</td> <td>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팬데믹 시대의 혐오와 차별극복</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을 읽고 혐오와 차별의 작동 과정 이해 • 해결 방안 도출 • 해결 방안 홍보 </td> <td>책 읽고 토론하기, 미디어 이해 활동, 해결 방안 탐구, 캠페인 활동, 소감문 쓰기</td> </tr> <tr> <td>4</td> <td>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그림책 읽기 방법 연구</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 구조 파악하기 • 맥락으로 해석하기 </td> <td>그림책 읽기, 질문 제기하기, 주제와 그림책 텍스트 연결지어 생각하기</td> </tr> </tbody> </table> <p>2. 결과</p> <p>가. 세계시민교육은 협력적 의사소통을 기반한 공동체 활동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p> <p>나. 세계시민교육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수업이 효과적이다.</p> <p>다. 학생 체험 중심의 수업 운영이 필요하며,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정 설계가 중요하다.</p>	순번	제목	내용	실천 방법	1	우리는 세계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연결성에 대한 이해 • 세계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협력 게임, 영상 시청을 통한 배경지식 이해, 그리기 정리 활동	2	담장 너머 지구촌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날 프로젝트 만들기 	영상 시청을 통한 동기 부여, 실천 목록 만들기, 실천 서약하기	3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팬데믹 시대의 혐오와 차별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을 읽고 혐오와 차별의 작동 과정 이해 • 해결 방안 도출 • 해결 방안 홍보 	책 읽고 토론하기, 미디어 이해 활동, 해결 방안 탐구, 캠페인 활동, 소감문 쓰기	4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그림책 읽기 방법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 구조 파악하기 • 맥락으로 해석하기 	그림책 읽기, 질문 제기하기, 주제와 그림책 텍스트 연결지어 생각하기																														
순번	제목	내용	실천 방법																																																
1	우리는 세계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연결성에 대한 이해 • 세계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협력 게임, 영상 시청을 통한 배경지식 이해, 그리기 정리 활동																																																
2	담장 너머 지구촌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날 프로젝트 만들기 	영상 시청을 통한 동기 부여, 실천 목록 만들기, 실천 서약하기																																																
3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팬데믹 시대의 혐오와 차별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을 읽고 혐오와 차별의 작동 과정 이해 • 해결 방안 도출 • 해결 방안 홍보 	책 읽고 토론하기, 미디어 이해 활동, 해결 방안 탐구, 캠페인 활동, 소감문 쓰기																																																
4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그림책 읽기 방법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 구조 파악하기 • 맥락으로 해석하기 	그림책 읽기, 질문 제기하기, 주제와 그림책 텍스트 연결지어 생각하기																																																
세계시민의식 실태분석	<p>1. 사전 설문 조사 실시</p> <p>가. 대상: 대전동산중학교 1학년 40명</p> <p>나. 시기: 2021.05.17.(월) - 05.21.(금)</p> <p>다. 내용: 다양성 이해도 및 문화 감수성, 공동체성</p> <p>2. 설문 내용 및 결과</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영역</th> <th rowspan="2">설문 내용</th> <th colspan="3">응답 수(명)</th> </tr> <tr> <th>그렇다</th> <th>보통이다</th> <th>그렇지 않다</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다양성 이해도 및 문화 감수성</td> <td>나는 다양한 나라에 대해 알고 있다.</td> <td>14</td> <td>16</td> <td>10</td> </tr> <tr> <td>나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td> <td>10</td> <td>15</td> <td>15</td> </tr> <tr> <td>나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름을 이해한다.</td> <td>15</td> <td>18</td> <td>7</td> </tr> <tr> <td>다른 나라의 문화도 우리 문화처럼 소중하다</td> <td>16</td> <td>17</td> <td>7</td> </tr> <tr> <td>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재미있다.</td> <td>19</td> <td>14</td> <td>7</td> </tr> <tr> <td rowspan="5">공동체성</td> <td>나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와 모둠 활동을 하기 힘들지 않다.</td> <td>17</td> <td>18</td> <td>5</td> </tr> <tr> <td>친구가 어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td> <td>28</td> <td>10</td> <td>2</td> </tr> <tr> <td>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짜증 낼 때가 있다.</td> <td>13</td> <td>17</td> <td>10</td> </tr> <tr> <td>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td> <td>22</td> <td>17</td> <td>1</td> </tr> <tr> <td>나는 친구들과 놀이하는 것을 좋아한다.</td> <td>33</td> <td>7</td> <td>-</td> </tr> </tbody> </table>	영역	설문 내용	응답 수(명)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다양성 이해도 및 문화 감수성	나는 다양한 나라에 대해 알고 있다.	14	16	10	나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10	15	15	나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름을 이해한다.	15	18	7	다른 나라의 문화도 우리 문화처럼 소중하다	16	17	7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재미있다.	19	14	7	공동체성	나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와 모둠 활동을 하기 힘들지 않다.	17	18	5	친구가 어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	28	10	2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짜증 낼 때가 있다.	13	17	10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22	17	1	나는 친구들과 놀이하는 것을 좋아한다.	33	7	-
영역	설문 내용			응답 수(명)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다양성 이해도 및 문화 감수성	나는 다양한 나라에 대해 알고 있다.	14	16	10																																															
	나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10	15	15																																															
	나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름을 이해한다.	15	18	7																																															
	다른 나라의 문화도 우리 문화처럼 소중하다	16	17	7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재미있다.	19	14	7																																															
공동체성	나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와 모둠 활동을 하기 힘들지 않다.	17	18	5																																															
	친구가 어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	28	10	2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짜증 낼 때가 있다.	13	17	10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22	17	1																																															
	나는 친구들과 놀이하는 것을 좋아한다.	33	7	-																																															

활동 세부내용

■ 3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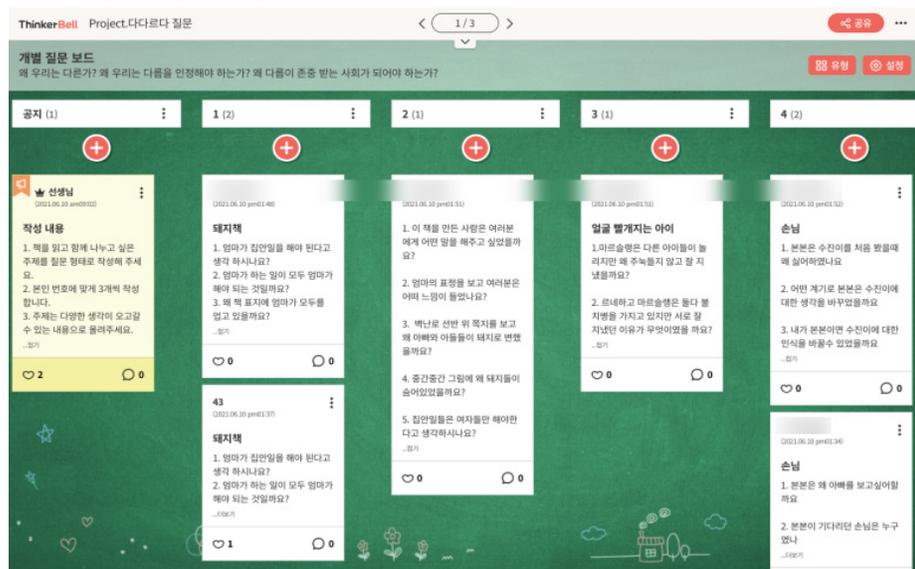
1. 뉴스 검색하기: 주제별 뉴스 검색 및 피해 사례 작성하기



2. 대화하기(모둠별 2권씩 함께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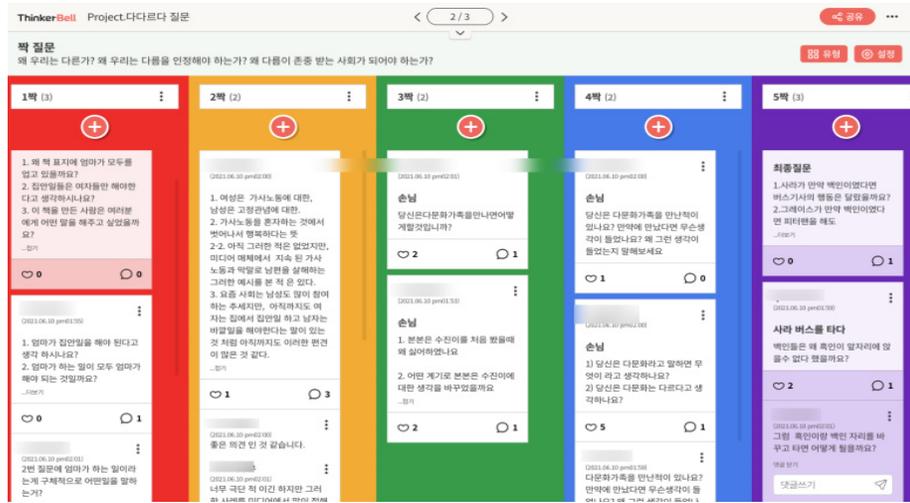
3. 토의 주제(질문) 만들기: 개별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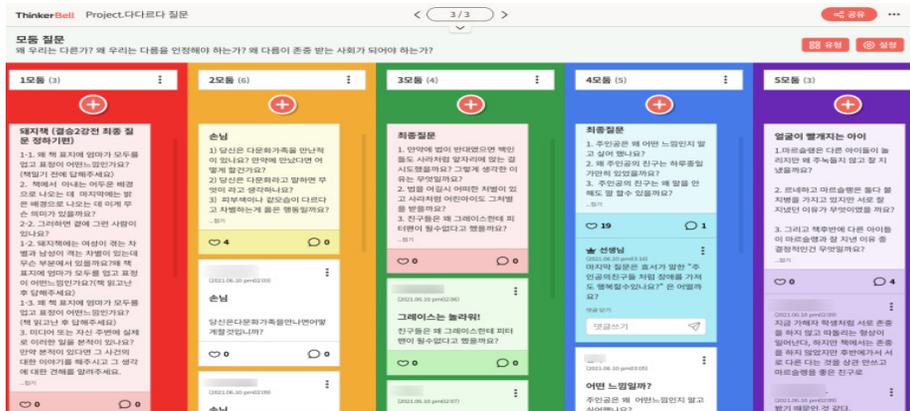
활동

세부내용

■ 4차시
1. 토의 주제(질문) 만들기: 짝별 질문



2. 토의 주제(질문) 만들기: 모둠별 질문



3. 내 생각 쓰기

Project 다다르다 활동지

이름: _____	이름: _____
이름: _____	이름: _____

◆ 권위에 대한 복종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소동이 불가할 상황을 캐뎽릴 사회적 비판과 저항의 목소리가 정식되던 작은 우리 자신에게도 언제든 나타날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한나 아렌트-

1. 모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	내 생각
1) 친구들은 왜 그레이스한테 피터팬이 될수없다고 했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흑인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나빴기 때문에 그레이스가 피터팬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2) 법을 어길시 어떠한 처벌이 있고 사라처럼 어린아이도 그 처벌을 받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자가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어린아이도 백인이 아닌 이상 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다.
3) 만약에 법이 반대였으면 백인들도 사라처럼 앞자리에 앉는 걸 시도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도했을 것 같다. 그 이유는 백인 아이들 중에도 사라처럼 용기를 가지고 시도할 만한 아이가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작성자	
1) 친구들은 왜 그레이스한테 피터팬이 될수없다고 했을까요?	흑인에 대한 평견과 피터팬이 백인이라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반대 하였다.
2. 법을 어길시 어떠한 처벌이 있고 사라처럼 어린아이도 그 처벌을 받을까요?	어린이는 그정도는 아니라도 경찰이 온걸바신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것같다.
3) 만약에 법이 반대였으면 백인들도 사라처럼 앞자리에 앉는 걸 시도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라는 어린이의 호기심을 앞자리로 갔기 때문에 백인의 어린 아이도 겁이 호기심을 이긴다면 사라처럼 할것같다.

I
국내 학교 교육 사례 모음

다문화가정 대상국과의 교육 교류 사업
2021년도 사업최종보고서

활동

세부내용

■ 5-6차시: 월드카페-과제3 실행(문제 해결 및 실행)

1. 호스트 선정: 호스트는 다른 모둠 참여자 3명을 맞아 토론을 이끈다.
2. 1차 토론: 그림책 읽기, 주제(질문 3가지) 제시, 질문과 응답
3. 2차 토론: 그룹 이동, 1차 토론 요약 및 주제 제시, 토론 진행
4. 3-4차 토론: 그룹 이동, 전과 동일. 학급 내 모든 친구와 만나 모둠 별 주제에 따른 토론 실시.



■ 7차시: 수업 감상문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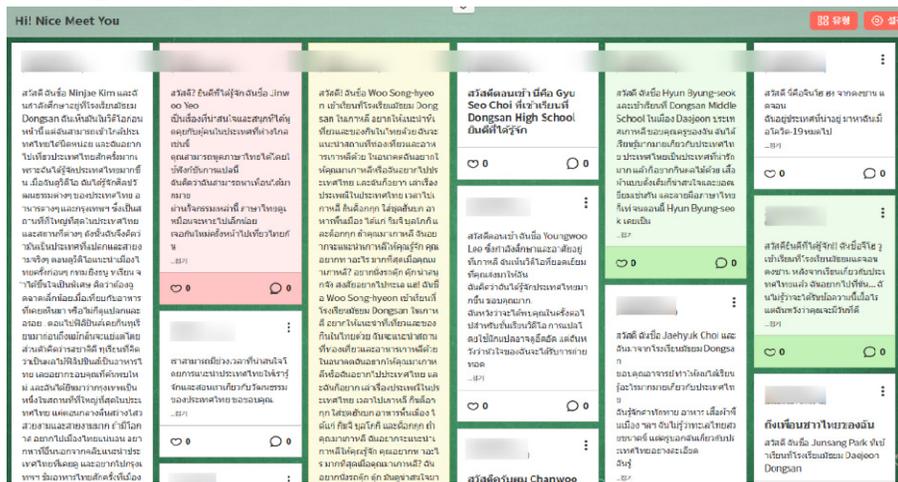
수업 감상문

1. 지금까지 읽었던 책(구글클래스룸 참조), 수업 활동(아이스브레이킹, 하브루타, 짝-모둠활동) 등
2.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세요.
3. 주제(왜 우리는 다른가? 왜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가? 왜 다름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가?)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세요.
4. 자신의 삶 또는 경험과 연결 지어 작성하세요.

제목: 차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지금까지 짝 모둠활동을 하면서 엄청 힘들었지만 혼자만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안 좋지 않았다 그리고 읽었던 책 **점복이와 감정**이 하나는 버림 받았고 하나는 장애가 있다는 거에서 분위기가 나쁠거 같았는데 주인공들이 강아지고 분위기도 의외로 밝아서 재미있게 본거 같다 이 책에 주인공중 한명인 감정은 장애가 있다 하지만 감정은 밝게 살아간다 감정이 처럼 우리 주변에는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다 이런분들을 보면 불쌍하다 안타깝다 생각이 들지만 이분들은 나보다도 밝게 살아간다 나는 맨날 학교가고 집으로 무한반복하는 스트레스 받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맨날 죽고싶다는 생각만 하는데 장애인 분들은 그런생각 일절없이 열심히 살아간다 아닌분들도 있겠지만 내가보고 내가 만나본 장애인 분들은 전부 밝았다 다른건 살짝 다른 모습 밖에 없고 생각하는건 나보다 한수위다 장애인 분들은 보며 저렇게 되지는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 내 자신이 후회스러웠다 다른건 모습밖에 없다 우린 전부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다 **다들** 거 하나도 없다 모두 존중하면서 살아가자

■ 8차시: 태국 친구에게 편지쓰기



활동	세부내용				
결과 분석 정리	1. 사전, 사후 설문 결과 분석				
			〈그렇다〉응답률(%)		
	영역	설문 내용	사전	사후	증감률
	다양성 이해도 및 문화 감수성	나는 다양한 나라에 대해 알고 있다.	35	52	+17
		나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25	52	+30
		나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름을 이해한다.	37.5	69	+31.5
		다른 나라의 문화도 우리 문화처럼 소중하다	40	77	+37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재미있다..	47.5	85	+37.5
	공동체성	나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와 모둠 활동을 하기 힘들지 않다.	42.5	62	+19.5
		친구가 어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다.	70	83	+13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짜증 낼 때가 있다.		32.5	30	-2.5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55	77	+22.	
나는 친구들과 놀이하는 것을 좋아한다.		82.5	84	+1.5	
- 다양성 이해도 및 문화 감수성 응답률이 대부분 30% 이상 증가한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다름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높게 증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짝활동과 모둠활동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에서 약간의 갈등이 발생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유대감이 상승하고 협력적인 자세를 익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실제 활동에서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I
국내학교 우수사례 모음

프로젝트 수행 결과 (연구결과 + 결론 및 제언)

프로젝트 결과	1. 과제1의 운영 결과 - 과제1: 상호연결성을 이해하고, 차이를 존중해야 할 필요성 탐색 - 다다르다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시민사회에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가를 배웠다. 차별에 따른 여러 사례(다문화, 장애, 왕따, 성차별, 인종)를 살펴보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길렀다.
	2. 과제2의 운영 결과 - 과제2: 그림책을 읽고 주제와 관련된 질문 만들기 - 모둠별 2권씩 총 10권의 책을 함께 읽으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따져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질문형태로 주제를 선정하였다. 비판적 사고를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야를 넓히고, 미디어(그림책, 뉴스, 영상)를 해석하며 문해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신장시켰다.
	3. 과제3의 운영 결과 - 과제3: 학급 단위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하기 - 월드카페 토론을 통해 감성적인 의사소통 시간을 가지며 협력적인 문화 속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었다. 세계시민의식을 실제 주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익힐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이 성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였다.
함의 및 제언	-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미디어(책, 뉴스, 영상)를 통해 흥미 요소를 찾아보고,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 시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문제 해결력은 단순히 지식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어렵다.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공백 없는 풍부한 지식과 다자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공감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 다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적 태도를 갖추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인류 문화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
문
화
가
정
2
0
2
1
년
도
대
상
국
외
의
교
육
국
교
류
사
업
최
종
보
고
서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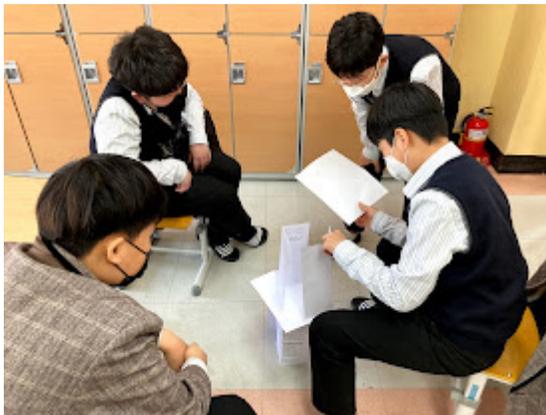
프로젝트 산출물 (활용방안 + 기대효과)

산 출 물	연구보고서
활 용 방 안	본 보고서를 활용하여 초, 중등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학습자 스스로 주제에 맞게 그림책을 선정한 후 함께 읽기 과정을 통해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짝 하브루타를 이용하여 주제를 찾고, 월드카페를 진행하여 협력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탐색할 수 있다. 일률적인 프로그램 적용이 어렵다면 일부분을 도입하여 교수-학습 환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기 대 호 과

본 프로젝트는 학습자 주도성을 전제로 개발되었다.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계획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게 변용할 수 있는 유연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특히 프로젝트 주제 선정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학습자의 능동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통해 동기가 유발된다면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도 무난하게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 선택권을 교사에게서 학생에게 이양하면 수업 준비 부담이 줄며, 적극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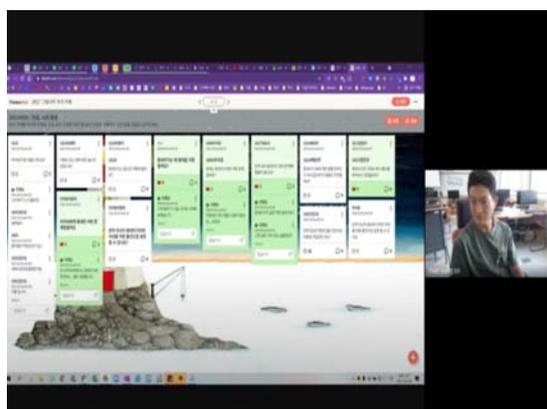
〈관계맺기-종이탑 쌓기〉



〈관계맺기-이야기톡 보드게임〉



〈그림책 읽기〉



〈원격수업-그림책 함께 읽기〉



〈질문 만들기〉



〈수업 감상문 작성하기〉

(5) 참고 문헌 및 자료

- 아태교육원, 글로벌시민교육: 새로운 교육의제, 2014
- 유네스코&아태교육원, 다시 생각하는 교육: 교육은 전지구적 공동체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한국어판), 2018
- 유네스코, Teaching and learning transformative engagement, 2019

3. 최종 활동 보고서

제출일: 2021. 7. 20.

(1) 연구회 정보

연구회명	응골찬 대연 국제교류 교사연구회	소속 학교	대연초등학교
교류 국가	Philippines	파트너 학교	Rizal Elementary School.
대표 교사	이재원	회원 교사	이경섭
회원 교사	김영미	회원 교사	박지원
제출일			2021. 7. 20.

(2) 세부 활동 보고

교육 활동

회차	수업 대상	일시	수업 형태 (실시간/비실시간)	수업 유형	수업주제	담당교사 (국내, 국외)
1	한국 학생 (6-4)	May 13, 2021	실시간 (on-line, real time)	Regular class	Developing health and wellbeing through Filipino folk dances	Johnna B. Paño
2	한국 학생 (6-7)	May 18, 2021	실시간 (on-line, real time)	Regular class	Developing appreciation of one's culture through Filipino cuisine	Shella Rose B. Amodia/Honey line D. Depra
3	한국 학생 (6-8)	June 3, 2021	실시간 (on-line, real time)	Regular class	Taking action to protect natural resources	Edgardo D. Pamugas III
4	외국 학생	May 4, 2021	실시간 (on-line, real time)	Regular class	Cultural exchange with Art Class	Yeong-Mi Kim
5	외국 학생	May 17, 2021	실시간 (on-line, real time)	Regular class	Understand each other using Boardgame	Gyeong Seop Lee
6	외국 학생	June 2, 2021	실시간 (on-line, real time)	Regular class	To be the Global Citizen Using Images	Jae Won Lee

회차	수업 대상	수업 내용 및 성과
1	한국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의 전통 춤을 직접 영상으로 배우고 집에서 연습하여 학교에서 단체 영상을 촬영함. 필리핀의 민속 의상 그리고 전통 춤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의 존재와 이해력을 높임 - 후기: 내가 필리핀친구의 이름을 걸어서 뿌듯하기도 하고 필리핀친구도 좋아해주면 좋겠다. 필리핀에 꼭 한번가고 싶다
2	한국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전통음식과 파나보 시티의 산업형태를 배움 - 우리가 먹는 바나나의 산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체험을 하고 직접 집에서 전통 음식을 만들어 먹는 체험 활동을 진행함 - 후기: 내 이름이 있는 망그로브 나무를 보니 신기했고 필리핀 선생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필리핀 다바오에 가보고 싶다
3	한국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의 자연환경과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비교하고,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필리핀 선생님께 배움. - 자연보호를 위한 포스트를 만들어보고 필리핀 학생들과 함께 비교하며 발표 함(한국학생과 필리핀 학생 동시 수업 진행) - 후기: 필리핀에 내 이름을 나무에 걸어주신게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이 망그로브나무가 환경에도 도움이 되니 저도 뿌듯하네요. - 제 이름을 걸어주신 필리핀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가르쳐 주신거 다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회차	수업 대상	수업 내용 및 성과
4	외국 학생	- 어머니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의 편지 접기 방식을 이용하여 직접 제작해보고 한국 친구들의 작품을 교환해 보았음. (한국과 필리핀 학생 동시 수업) - 후기: I had fun in making cards and I learned the different kinds of craft in Korea.
5	외국 학생	- 한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에 대해 배우고, 한국의 음식 문화를 알 수 있는 재미있는 보드게임을 직접 만들고 가족들과 함께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짐 - 후기: It was fun making this (but i don't have someone to play with) i love to stare at Tteokbokki it looks so delious!
6	외국 학생	- 필리핀계 캐나다인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한국학생과 필리핀 학생의 생각을 비교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봄. - 세계시민교육과 SDGs의 의미를 직접 나누어서 의견을 나눔 - 후기: The korean food i really want to taste someday is Tteokbokki i imagine it me eating it deliously yum..

활동프로젝트 활동

프로젝트명	필리핀 친구와 함께 세계시민 되기
프로젝트 산출물	https://ko.padlet.com/tata3now/b49cbiuqp45cgq29 https://padlet.com/projectlayag2021/gbweg7ac4fmxyivm https://padlet.com/wwfm01/f4ghldns6q https://ko.padlet.com/tata3now/adnb1mvhc3ucukbp https://ko.padlet.com/tata3now/b49cbiuqp45cgq29 https://ko.padlet.com/qwertice41/3kroba2qukq4wgmj https://ko.padlet.com/qwertice41/n8xs749yg7wh1lq https://ko.padlet.com/qwertice41/tyop7v58gr0qoh5i https://ko.padlet.com/qwertice41/fhxsymbn1b2s2eco https://ko.padlet.com/xhslqoqmfaksakstp/ngp5pgtgbrb4hyji
프로젝트 요약	<p>총 4단계의 걸쳐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국가의 문제점을 서로 교류하고 더 나아가 온라인 상태로 각 국을 여행하고, 자신이 가상의 여행을 진행하며 각국의 상황을 이해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필리핀 영상, SDGs 관련 영상, 도서 구입을 통한 상호 국가를 이해 활동 2. 양국의 친구들과 이메일, 편지를 교류 진행 3. 가상의 여행 경로를 설정하고, 양국의 친구는 자신의 친구를 안내하는 가이드가 되어 여행해 봄 4. SDGs의 항목을 충족하는 절차로 여행을 한 결과를 다양하게 나누기

기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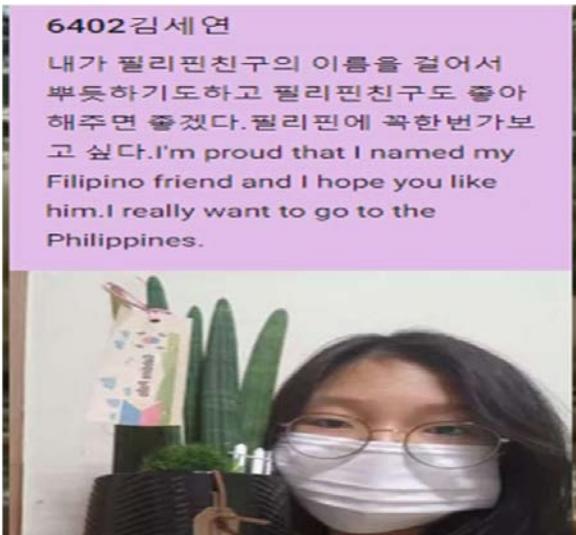
종류	활동 내용 및 성과
펜팔	<p>1 대 1로 학생들을 매칭하여, 각 나라의 학생들의 삶을 소재로 교류하는 활동을 가짐. 수업이 아니라, 편지를 통해서 교류하는 과정이다보니 보다 그 나라에 대해서 친숙해지는 계기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전통 문양의 선물을 학생들에게 직접 보냄 - 한국의 전통 나전칠기 키트를 필리핀으로 보냄
가상 여행하기	<p>자신의 펜팔 짝과 함께 필리핀 여행 코스(필리핀의 학생은 한국 여행)를 직접 설정하도록 해보고, 자신들이 가고 싶은 여행을 가상으로 진행하고 다양한 느낌을 나누고 체험해 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후 기록을 공유하고 다양하게 나누고 이야기함
나무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에서는 한국학생과 선생님들의 이름으로 맹글로브 나무를 심어줌 - 한국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집에 나무를 키우고 그 나무에 이름을 표시하여 전달

(3) 프로그램 참여 소감 및 제안

	교사명	내용
참여 소감	이경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리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서 한국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맹그로브 나무를 심어서 보내준 유튜브 영상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어적 차이로 인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역시 선생님들은 선생 님이구나! 란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학생들과 필리핀 선생님,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보람되었습니다.
	김영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리핀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수업준비와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태 도에 감동받았습니다. SDG 주제에 맞는 수업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교육교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이 넓어지고, 교사도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리핀 선생님들의 열정과 함께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서로에 게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교류 활동 방법을 알게 되었고, 실제 교류 만큼이나 좋은 결과가 나와서 좋았다. 교류기간이 다소 짧아서 아쉽고,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 기를 바랍니다.
	리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국가의 교류를 도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 고, 나에게도 정말 좋은 기회였다. 선생님들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드린다. 필리핀 선생님들의 열정과 함께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후속 활동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리핀 학생들은 졸업을 하기 때문에 해당 학생들과 지속적인 관계는 어렵지만, 필 리핀 선생님들과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 학생들의 편지가 서로 왕래되도록 도와주고, 한국 전통물품을 직접 배송하여 학생들 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소 짧은 교류기간이 아쉽지만,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1회성 활동보다는 해당 교사들이 3년 정도의 회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수업간에 통역이 지원이 된다면 더 유익한 수업이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I
국내학교 우수사례 모음

(4) 활동 사진



필리핀 친구들에게 나무를 심어준 내용



보드게임을 통한 한국음식 문화 즐기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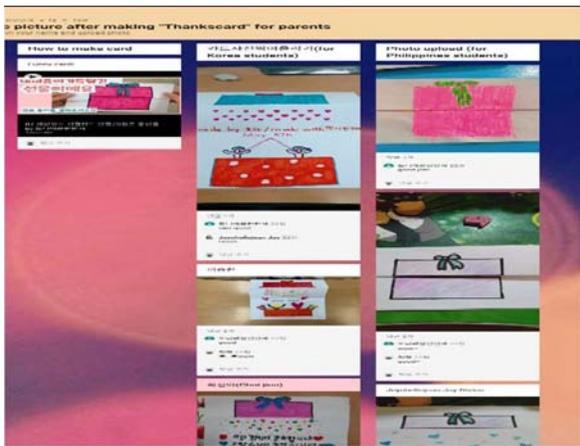
다
문
화
가
정
2
0
2
1
년
도
사
업
최
종
보
고
사
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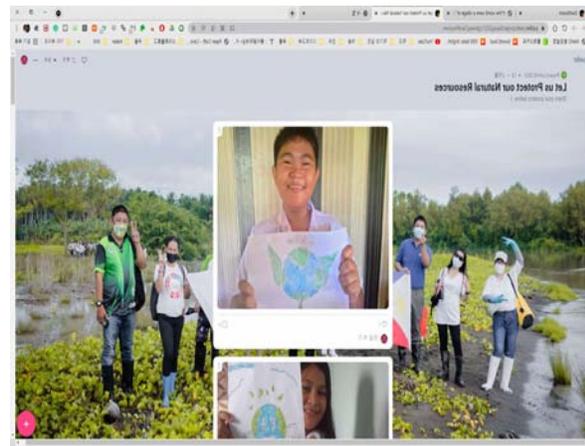
홍보 플래카드 부착



필리핀 전통 음식 만들기



편지 쓰기 결과물



자연 보호 활동 하기

제출일: 2021. 7. 14.

(1) 연구회 정보

연구회명	다문화가정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	소속 학교	인천공항공고등학교
교류 국가	말레이시아	파트너 학교	Keningau Vocational College
대표 교사	김성희	회원 교사	송인숙
회원 교사	강누리	제출일	2021. 7. 14.

(2) 세부 활동 보고

교육 활동

회차	수업 대상	일시	수업 형태 (실시간/비실시간)	수업 유형	수업주제	담당교사 (국내, 국외)
1	한국 학생	6.15	실시간	방과후	말레이시아 전통 문화	Mr. Khalifa 전원 참석
2	한국 학생	6.22	실시간	방과후	말레이시아 음식 문화	Ms. Munirah 전원 참석
3	한국 학생	6.28	실시간	방과후	말레이시아 과일 아트 과일 카빙	Mr. Saumon 전원 참석
4	외국 학생	5.19	실시간	방과후	한국과 말레이시아 문화 비교 이해	강누리 전원 참석
5	외국 학생	5.26	실시간	방과후	세계 기후 변화와 수학적 접근	송인숙 전원 참석
6	외국 학생	6.3 6.11 (2회)	실시간	방과후	세계 평등의 의미 한국문학과 한글	김성희 전원 참석

회차	수업 대상	수업 내용 및 성과
1	한국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내용: 말레이시아의 전통과 역사에 관해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 및 토론하는 수업 활동 수업 결과: 말레이시아 문화에 대한 다층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짐 수업 성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을 습득함.
2	한국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내용: 말레이시아의 전통 음식인 Cek Mek Molek 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 상대국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고 즐겁게 체험함. 수업 결과: 전통 음식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됨. 수업 성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을 습득함.
3	한국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내용: 말레이시아의 과일 카빙 방법을 배워보는 활동을 통해 시각적 아름다움과 맛의 조화를 체험해 보는 기회를 제공함. 수업 결과: 다양한 과일 카빙 방법을 직접 배우는 계기가 됨. 수업 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구체화 나감.
4	외국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내용: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문화를 비교해 보는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해 나감 수업 결과: 실생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함. 수업 성과: 문화 상대주의의 관점을 확장하고 상호문화교류의 가치를 깨달음
5	외국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내용: 세계적인 기후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기후 그래프를 통해 수학적으로 접근해 보는 시도를 함 수업 결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함. 수업 성과: 기후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을 통해 향후 발전을 도모함.
6	외국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내용: (1차시) 포스트 팬데믹 시대 '평등'의 가치에 대해 한국 문학 '춘향전'과 '한글'을 통해 이해하는 시도를 함 (2차시) 한글 도장 만들기 활동을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체험함. 수업 결과: 평등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토론을 통해 학습자 이해를 높임. 수업 성과: 글로벌 세계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세계 평등 역량을 향상시킴

프로젝트 활동

프로젝트명	• 라면챌린지 & 에코브릭스 활동
프로젝트 산출물	• 라면챌린지 - 유튜브 채널 개설 및 토론 게시판(패들렛) 활용 • 에코 브릭스 활동- 강의 수강을 통해 에코 브릭스 이해
프로젝트 요약	• 주제: 라면챌린지 & 에코브릭스 활동 • 목적: 생활 속에서 Glocalization (globalization & localization) 체험해 보기 • 수행 방법: 양국 학생들이 자신의 라면 요리법을 소개하고 서로 라면을 교환해 요리해보는 활동을 통해 라면의 세계화와 음식 문화의 다양화를 (globalization)이해함. 나아가 음식의 세계화와 이를 자신의 지역사회 또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적용해보는 현지화(localization) 활동을 통해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을 시도함.

기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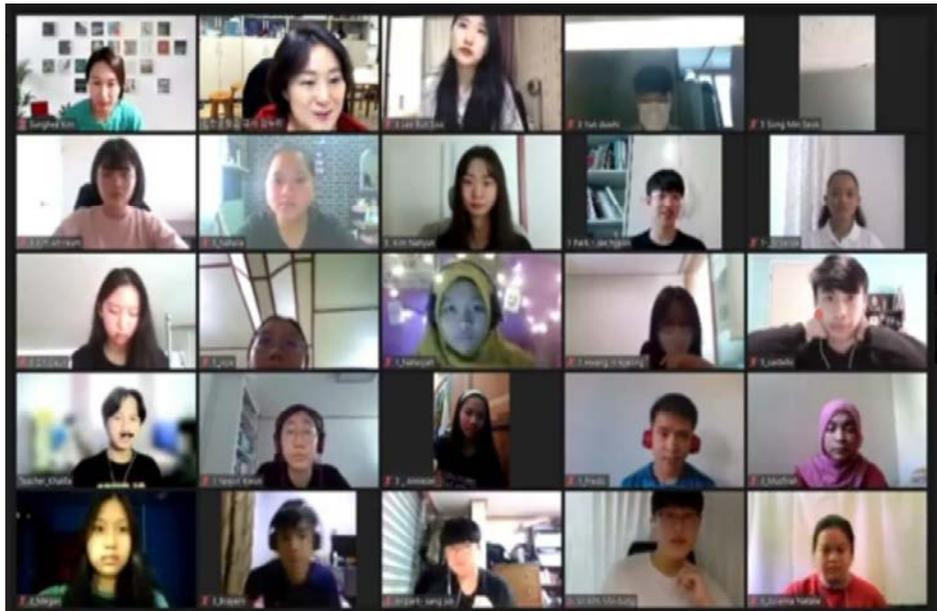
종류	활동 내용 및 성과
학생 프로젝트	• 주제: Korean Student's V-log "My shiny one day" • 형태: 브이로그 • 내용: 한국 학생의 일상 하루를 담은 브이로그 채널을 제작하여 양국 학생들의 생활상을 이해하고 친목을 도모함
교사 프로젝트	• 주제: 온택트 시대 한국의 교육 현황 • 형태: 웨비나 Webinar • 일시: 7. 2. 15:00~16:00 (Korean time) • 내용: 온택트 시대 한국의 학교 운영 (강사: 인천공항공 교감 전영대) 온택트 시대 한국의 블렌디드 교육 (강사: 인천공항공 교사 김성희)

(3) 프로그램 참여 소감 및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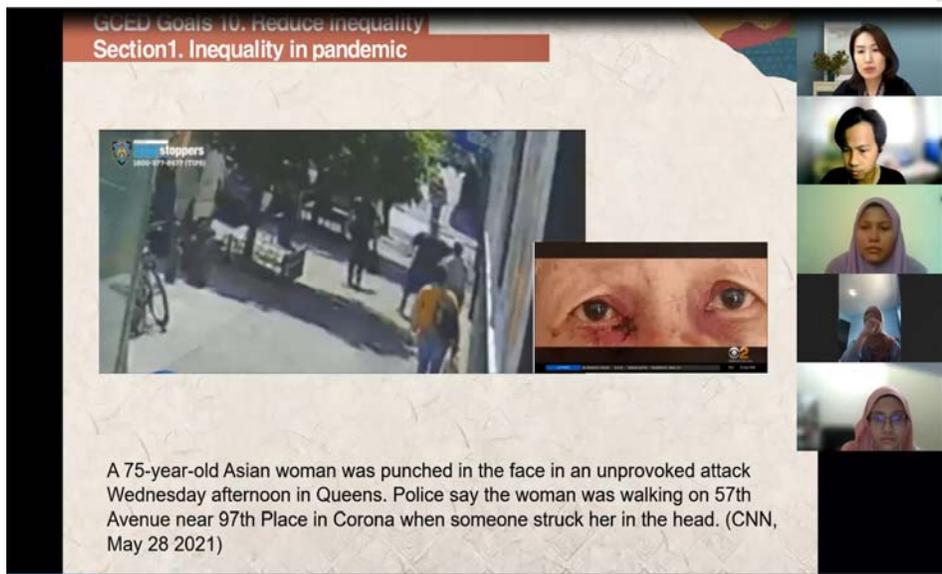
교사명	내용
참여 소감 김성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회 활동(수업 및 프로젝트) 및 교류 활동 전반을 통해 이룬 개인적, 혹은 교내 성취 본 연구회 활동을 통해 개인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외국 학생들과의 문화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함. 특히, 다문화 국가와의 직접적인 교류 활동은 본국의 다문화 학생을 다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됨. 나아가 한국 학생과 외국 학생의 협력 학습을 통해 학생 상호간 이해를 높인 것이 유의미한 활동이었다고 여김. • 외국 교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배우거나 느낀 점 생생한 외국 교육 현장을 느낄 수 있었으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협업을 통한 더 큰 교육 가치를 추구해나가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함. • 활동 수행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 상호 국가의 교육 체계의 차이점과 상대 학교에 대한 설명이 사전교육으로 제공될 필요를 느낌. 한국, 말레이시아의 교육 체계의 차이(초중고학제, 상대국의 학교의 특징)를 사전에 파악했으면 함. 이번에 매칭된 상대 학교급은 college로서 우리나라에서 다소 생소한 학제라 처음에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림. • 향후 교육활동에 적용할만한 점, 향후 교내 발전 방향 등 향후 교내 다문화 국제 이해 관련 학생 및 교사 동아리를 운영할 예정임. 기회가 된다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내, 국외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한 유네스코 차원의 동아리를 결성하여 향후 지속적인 교육 교류 진행을 지원을 희망함. • I learned a lot about global citizenship through the Asia-Pacific Teacher Exchange for Global Education (APTE) program. Teachers and students, as citizens of the world, improved mutual cultural understanding and created a better worl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s a KOMTEP teacher, it is a great program for me to dream of a better future and grow up. I want to participate again next time. Thank you.

	강누리	It was rewarding for me to inform Malaysian students of Korea's history and culture. I was surprised by the attitude and passion all participants had showed. It would be nice that more Korean students experience this wonderful exchange program to expand their understanding as a global citizen.
	송인숙	I appreciate that you gave us this opportunity. I've never been to Malaysia. But after this exchange program, I could feel I've been there and have some friends as well. We communicated just online. But it was enough to learn many thing from them. They inspired me a lot. It was the wonderful experience to know their culture and people etc. I'm looking forward to getting the second chance of it.

(4)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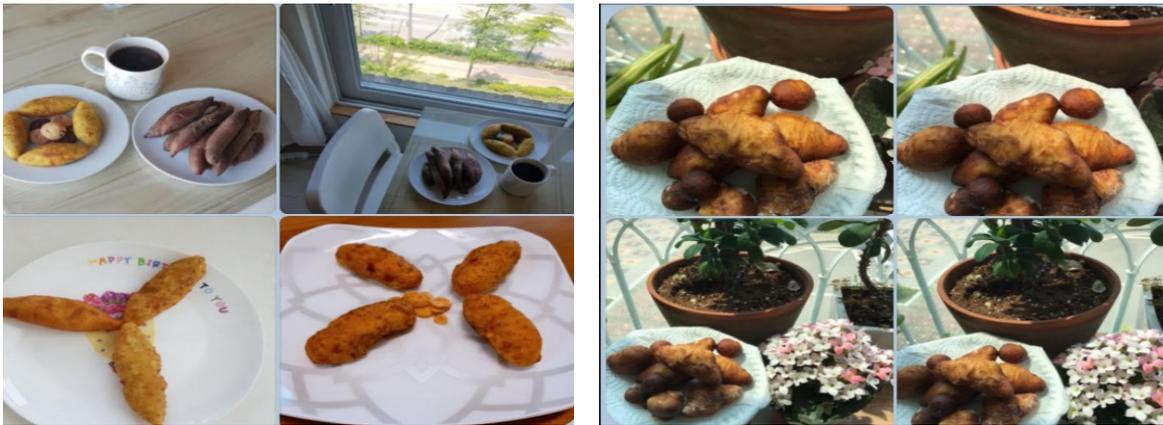
한국과 말레이시아 문화 비교 수업 (1차시)



포스트 팬데믹 시대 평등과 한글의 의미 (3차시)



말레이시아 교사 수업 참여 (음식 만들기)



말레이시아 교사 수업 참여 (음식 만들기)

(5) 각종 자료 링크

1. 라면챌린지 유튜브
https://youtube.com/playlist?list=PLJYrG9i4QKUz9LJuUL8MUIYNo_q9Ck7Sf
2. Equality in post-pandemic 토론 패들렛
<https://padlet.com/koreanedukim/apceiukoreanMalaysia>
3. Ontact-era 웨비나 패들렛
https://padlet.com/g_71237191/ontact2021
4. 라면챌린지 패들렛
<https://padlet.com/nayanuri77/4c8f0keodier5lfh>

(1) 연구회 정보

연구회명	Growing Together	소속 학교	대전둔산초등학교
교류 국가	태국	파트너 학교	Phyathai Primary School
대표 교사	김지원	회원 교사	전하경
회원 교사	길준한	회원 교사	정규연
회원 교사	김솔지	제출일	2021. 8. 17.

(2) 세부 활동 보고

교육 활동

회차	수업 대상	일시	수업 형태 (실시간/비실시간)	수업 유형	수업주제	담당교사 (국내, 국외)
1	한국 학생	6월 8일 (5학년)	비실시간	정규수업	식물의 구조와 스승의 날	Sasithorn Kiewkor
		6월 14일 (2학년)				Wanasanan Jaimanee
2	한국 학생	6월 25일	실시간	정규수업	한국과 태국의 계절과 지구 온난화	Sasithorn Kiewkor Pinpicha Pienmana
3	한국 학생	9월초(예정)	비실시간	정규수업	송크란 축제	Jirachaya Jaranai Nopawan lamjan
4	외국 학생	7월 2일	비실시간	정규수업	태국 전통 스포츠 무에타이(Muetai)와 한국 전통 스포츠 태권도를 비교하고 태극 1장 배워보기	전하경
5	외국 학생	8월 6일	비실시간	정규수업	분리수거 방법을 알아보고 실천해보기	김솔지
6	외국 학생	8월 10일	실시간	정규수업	한국 문화 속 동물을 살펴보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법 알아보기	전하경

회차	수업 대상	수업 내용 및 성과
1	한국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월 8일 (5학년), 6월 14일 (2학년) 대상 비실시간 수업 진행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태국에서 특별한 날에 전달하는 꽃에 담긴 의미를 통해 태국의 스승의 날에 대해 알아봄. 태국에서는 어버이날에 자스민 꽃을, 스승의 날에 익소라 꽃과 가지꽃을 선물한다는 것을 알게 됨. 태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기념한다는 것을 알고, 부모와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가 같음을 알게 됨. 감사한 마음을 담아 꽃을 색칠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작성하고 전달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게 됨.
2	한국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25. 한국 학생 (6학년) 대상 실시간 수업 진행.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 태국과 한국의 계절,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발표함. 수업 진행 후 느낀 점과 소감을 공유함 학생들은 태국의 계절을 배우고 많은 흥미를 가졌으며, 계절의 변화가 왜 생기는지 학습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토론하고 공유하며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됨. 수업을 진행하며 문화와 교과지식, 글로벌 이슈까지 다루는 수업을 함께 진행하며 학생들을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됨.

회차	수업 대상	수업 내용 및 성과
3	한국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일정 변경으로 인해 9월 초 실시 예정
4	외국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 2. 외국 학생 대상 비실시간 수업 진행 • 태국의 전통 스포츠 무에타이와 한국 전통 스포츠 태권도를 비교해보고, 태권도를 연습하며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 스스로의 문화를 소중히 해볼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함. • 학생들은 전통 스포츠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두 스포츠를 비교하며 더 자세히 알아봤으며, 태권도를 연습하고 연습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함. • 촬영한 영상은 태권도 관장님의 도움을 받아 심사하였고 참여한 학생들에게 인증서와 상품을 전달함. • 학생들에게 익숙한 스포츠를 주제로 하여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었으며 혼자 연습할 수 있는 태극1장을 학습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음.
5	외국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 6. 외국 학생 대상 비실시간 수업 진행 • 학생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한국과 태국의 분리수거 방법을 익히고 실천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함. • 학생들은 분리수거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였으며, 수업 후의 느낌과 앞으로의 결심을 나누며 수업을 내면화함 • 학생들이 진행한 공동 프로젝트를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함.
6	외국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 10. 외국 학생 대상 실시간 수업 진행 • 호랑이를 통해 상징물, 민화, 동화책 등의 한국 문화를 살펴보고 생태 피라미드를 통해 생태계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토론했으며 수업을 구성함. • 학생들은 동물 숫자 감소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학습하였으며,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패들렛을 통해 공유하며 의견을 나눔. •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았으며,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하여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음.

프로젝트 활동

프로젝트명	21days for our world
프로젝트 산출물	프로젝트 참여 독려 포스터, 프로젝트 참여 기록물 (Journal)
프로젝트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일간 환경보호에 참여하고 파트너 학교와 공유하며 환경보호 참여 촉구 • 주변을 탐색하며 환경보호에 쉽게 참여할 수 있음을 알고 꾸준한 실천의지를 다짐 • 프로젝트 참여 독려 포스터 제작 • 파트너 학교와 프로젝트 참여 독려 포스터 공유 및 느낌나누기 • 21일간 주변에서 할 수 있는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실천 내용 기록 (Journal 이용) • 환경보호 실천 내용 공유 • 프로젝트 결과 분석, 활동 후 인증서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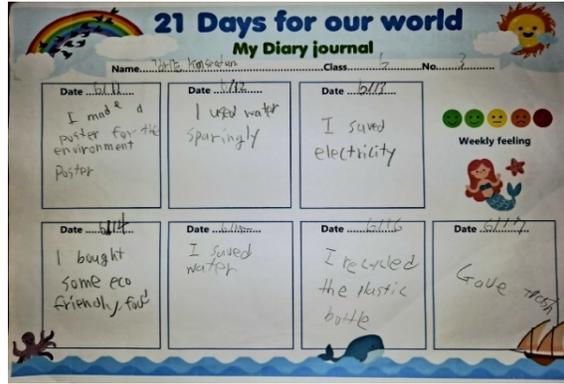
기타 활동

종류	활동 내용 및 성과
수업활동 후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후 활동 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과 한국의 전통 스포츠 수업 후 태국 학생들에게 태권도 연습 동영상 11편을 받아 심사하였으며, 국제우편으로 참여 학생들에게 참여 기념품 및 인증서 전달

(3) 프로그램 참여 소감 및 제언

	교사명	내용
참여 소감	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대상국가(태국)과의 교육교류 연구회 활동을 통해 다문화 이해도 및 다문화감수성이 높아짐. • 태국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태국의 교육 환경 및 문화에 대해 많이 알고 배울 수 있었음. • 태국선생님들이 교육 자료를 성실히 제작하여 보내주시고, 학생들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수업 적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협의하시는 점이 좋았음. • 코로나19확산으로 한국, 태국 모두 학사일정이 조정 및 연기되면서 수업교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데에 제약이 따라 아쉬움. 향후 더 안정적인 수업교류가 되길 희망함. .
	전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선생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 좋았으며 수업 뿐 아니라 프로젝트도 공동으로 진행하여 소통할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었음 • 태국 선생님들께 효과적인 다문화 수업 방법과 기자재 사용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음 • 태국 학생들의 수업과 프로젝트 참여 의욕이 높아 수업과 프로젝트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으며, 태국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한국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여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느낌 • 수업 진행 중 태국의 교육과정은 다음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
	길준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나라의 학생을 위해 수업을 준비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었고, 나라의 이미지가 실추될까 걱정도 되었으나 수업을 하고 자료를 제작하면서 수업 스킬이나 자료 제작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 실시간 수업은 계획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지나고 보면 나름 잘 했다는 생각이 들. 그러나 더 많은 경험과 영상, 음성 장비들이 뒷받침 된다면 수업 외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 같음. • 타국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할 때는 주로 교실TV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데, TV가 65~75인치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 영상 자료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글씨나 그림이 작은 경우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음. 사전 협의할 때 이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음. • 올 해 연구회 활동을 하며 괴롭혔던 생각은 과연 내가 세계시민교육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잘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음. 스스로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수업을 구성한다면 더욱 진정성 있는 세계시민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김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국가의 문화와 수업 방법을 실제로 경험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음 • 세계시민자질 함양의 중요성과 가치를 학습하고 세계화의 작은 주체가 된 것 같아서 보람참 • 코로나 상황이어서 일정변경이 있었던 점이 아쉬웠으나 그 과정에서도 협업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 뿌듯함
	정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생각보다 많은 관심이 있고,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을 알게 됨. 향후 수업 계획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위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음. • 다른 나라 학생들을 위한 수업 준비를 하며 중립적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고, 언어의 장벽으로 인하여 정확한 의도를 전달할 수 없어 아쉬움을 느낌.
후속 활동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k me., My friend - 프로젝트 종료 후 학생 교류활동 - 동영상 교환을 통해 학생들이 그 동안 각 나라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묻고 답하기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을 사용한 실시간 수업을 계속한 계획이면 시차가 크지 않은 나라간 매칭이 이루어지면 좋겠음. - 교류 활동 시작 후 학사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4) 활동 사진



[프로젝트] 포스터 만들기 및 공유

[프로젝트] 환경보호 실천하며 기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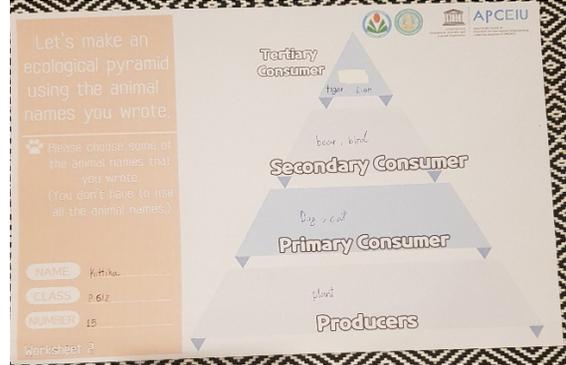


I
국내학교 우수사례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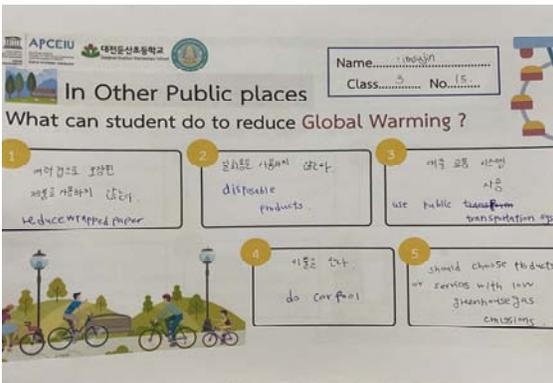
다문화가정 대상자와의 교육 교류 사업
2021년도 사업최종보고서



[한국→태국] 태권도 수업 진행 및 대회 참여 학생 기념품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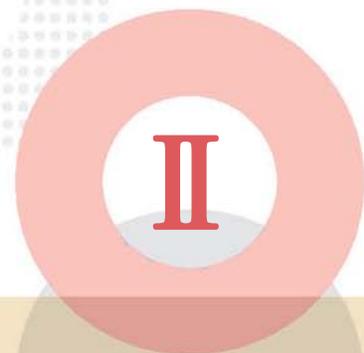
한국→태국 실시간 수업 진행



[태국→한국] 실시간 수업 진행



[태국→한국] 스승의 날과 꽃의 의미 알고 카드 전달하기



현지학교 우수사례 모음



현지학교 우수사례 모음

1. 수업 보고서

제출일: 2021. 8. 9.

(1) 작성자 정보

작성 교사	Pinpicha Pienmana		
소속 학교	피아타이 학교 (Phyathai School)	연구회명	피아타이 파이팅 (Phyathai Fighting)
국 가	태국	파트너 학교	대전 둔산 초등학교
제출 날짜	2021년 8월 9일		
수업 주제/제목	한국과 태국의 계절과 지구 온난화		

(2) 수업 보고서

서론

- 해당 수업 선정 이유
한국과 태국의 계절,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내용이 교육 과정 및 교과 내용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수업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학생들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이 바뀐다는 사실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각 나라의 위도가 다르기 때문에 계절도 다르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계절이 다르면 생활 방식과 문화도 달라집니다. 비록 나라마다 계절은 다르지만, 현재 모든 나라는 지구 온난화라는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홍수, 물 부족, 산불, 가뭄, 경제적 손실 등은 모두 지구 온난화에 의해 발생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고, 용지를 재활용하고, 천 가방을 사용하는 등의 작은 실천을 통해 지구 온난화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세상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 본 학습 주제가 가지는 의미 및 중요성
(a) 태국과 한국의 계절은 달라도 두 나라 모두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b)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실천을 통해 지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수업 목표
 1. 계절이 바뀌는 이유 이해하기
 2. 한국과 태국의 계절 차이를 이해하기
 3.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살펴보기
 4. 학생들이 일상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 제공하기

사전 준비

-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공부해야 하는 과학 주제를 먼저 편성했습니다. 이 주제(계절)는 전 세계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양국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였고, 프로젝트(전 세계를 위한 21일)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수업 내용

학생	한국인	교사	Pinpica Pienmana 선생님 Sasithorn Kiewkor 선생님	한국인 교사	전하경
과목	과학	학년/반	6학년 3반	수업 시간	35분
주제	한국과 태국의 계절				
목표	1. 계절이 바뀌는 까닭 이해하기. 2. 한국과 태국의 계절 차이를 이해하기. 3. 지구 온난화가 미치는 영향 생각해보기 4. 일상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 방법 탐색하기				
구분	학습 단계	학습 활동		수업 자료	
수업 진행	도입	1.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서로 소개하며 한국과 태국의 계절에 대한 수업 시작 2. 다음 질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태국과 한국을 이해시키기 2.1 지도를 보며 질문 #1 여러분은 어디에 있나요? 한국은 무슨 색인가요? (핑크색, 오렌지색, 초록색, 보라색 중 무슨 색인가요?) (정답은 초록색) 2.2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보라색, 노란색, 연녹색, 진녹색 중 무슨 색인가요? (정답은 진녹색) 3. 태국과 한국의 거리는 비행기로 5시간 거리인 약 3,730km이며, 지도를 통해 태국이 한국 아래에 위치한 것을 확인하기 두 국가의 위치를 살펴보기. 한국은 북위 34~38도 사이, 태국은 북위 5~20도에 위치. 위도가 다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보기		    	
	전개	1. 한국의 계절이 몇 가지인지 질문 2. 6월 22일에 지구의 북극은 태양을 향해 방향을 틀어, 북반구에 있는 한국은 여름이 되었음 3. 9월 23일에 지구의 북극은 태양에서 약간 멀어졌음. 이로 인해 전 세계의 일조량이 감소하며 가을에는 식물이 감소 4. 12월 22일에 지구의 북반구는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멀어졌으며 낮은 일조량과 함께 겨울이 됨. 5. 3월 21일, 지구의 일조량이 증가하고 기온이 상승. 나무에 새 잎이 돌아나는 봄이 됨 6. 도표를 보고 한국의 계절을 알아 맞춰 보기 7. 도표를 보고 한국의 계절을 알아 맞춰 보기 8. 태국에는 어떤 계절이 있을까요? 9. 태국은 적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름과 우기, 겨울의 3계절만 존재		    	

II
현직학교우수사례모음

다문화가정 대상국과의 교육교류사업
2021년도 사업최종보고서

		<p>10. 게임을 통해 태국에 대해 알아보기. 게임 방법 설명</p> <p>10.1 태국의 계절에 대한 3가지 이음표를 책상에 올려 놓기</p> <p>10.2 TV 화면의 사진을 관찰</p> <p>10.3 지시하면 태국의 계절과 일치하는 계절 이음표를 선택하기. 이음표를 가장 많이 고른 사람이 승리</p> <p>11. 위도가 다르면 태양에 노출되는 정도가 달라져서 계절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p> <p>12. 사진을 통해 우리 모두 이례적으로 더운 여름 날씨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p> <p>13. 지구 온난화와 우리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지구 온난화 태국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p> <p>14. 참여방법: 제시된 상황을 읽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보기.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생각한다면 이유를 말해보기</p> <p>15. 지구 온난화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음. 다음 활동을 통해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워보기</p> <p>16. 방법</p> <p>16.1 모든 그룹이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시트를 읽기</p> <p>16.2 모든 그룹이 "환경을 생각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변화" 시트를 읽기</p> <p>16.3 각 그룹은 워크시트 수령</p> <p>16.4 스스로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사각형 안에 적거나 그리기(한국어도 쓸 수 있음).</p> <p>16.5 10분 동안 활동을 완료 후 발표하기</p> <p>17. 학생들의 발표합니다.</p>	     <p>파워 포인트 13-20 페이지 - 계절 이음표</p>    <p>파워 포인트 23-26 페이지</p>   <p>- 리딩 시트 - 워크 시트</p> 
	<p>정리</p>	<p>1. 이 시간을 통해 계절에 대해 배우기. 태국과 한국의 계절 차이를 이해하고, 전 세계의 어느 곳에 있든 지구 온난화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이러한 목표와 함께 '전 세계를 위한 21일' 캠페인에도 참여하기</p>	

결론 및 제언

구분	내용
수업 성과	<p>학습 결과(학생이 성취한 내용 위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계절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 배우고 태국의 계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학생들의 성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토론하고 지구 온난화를 멈추기 위한 방법을 실천하도록 했다. • 관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태국에 대해 배웠고, 두 나라간의 일반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별 성과	<p>성취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경험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태국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과학적인 지식을 학습했고, 우리가 직면했던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향후 교육 활동에 적용 가능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훌륭한 수업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수업 시간이 줄어들어서 아쉬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좋은 의견을 내어 주어서 발표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수업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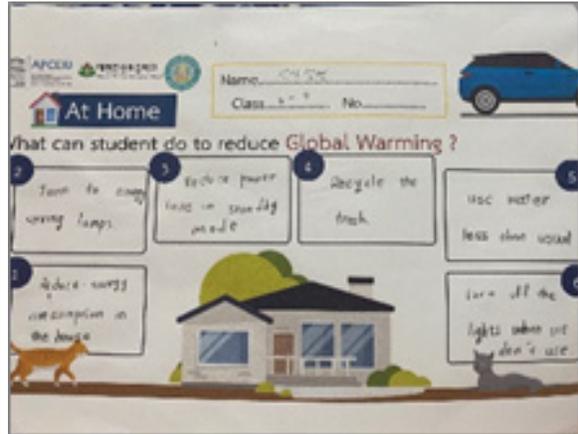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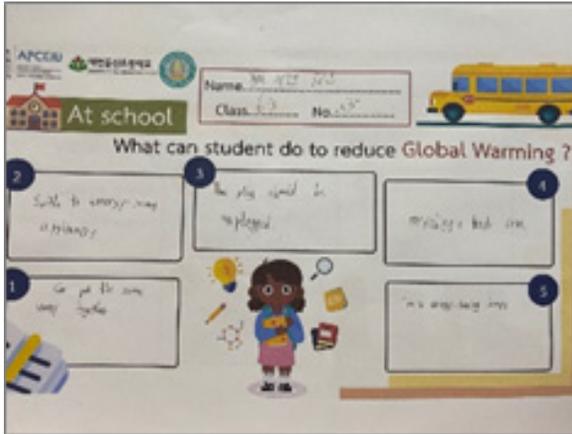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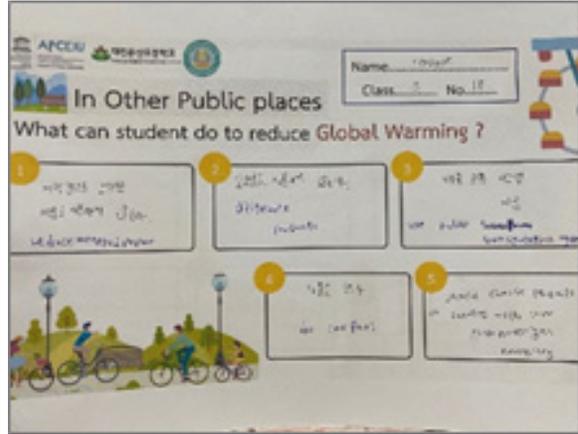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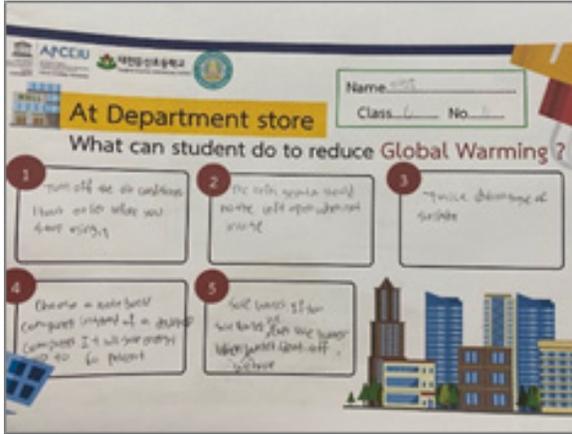
〈인사〉

〈태국에 대해 배우기〉

II

현직학교우수사례모음

다문화가정 대상국와의 교육교류사업
2021년도 사업최종보고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

제출일: 2021. 7. 8.

(1) 작성자 정보

작성 교사	Elizabeth E. CATIBOG		
소속 학교	레나토 로페즈 (RENATO LOPEZ) 초등학교	연구회명	FILIPINO TEACHERS
국 가	필리핀	파트너 학교	손곡초등학교
제 출 일	2021년 7월 8일		
수 업 명	국경을 넘은 우정		

(2) 수업 보고서

● 서론

- 해당 수업 선정 이유
한국과 필리핀의 상호 이해를 강화하여 SDG 17 파트너십을 위한 국가 간의 이해와 우정의 중요성을 한국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본 학습 주제가 가지는 의미 및 중요성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특히 다른 인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데 이번 수업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나와 다른 문화와, 외모, 생활 방식, 신념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자세를 배우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입니다.
- 수업의 목표
이 수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간 우정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합니다.
 - 다른 나라에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핀어 단어를 배웁니다.

● 사전 준비

- 수업 준비를 위한 예비 조사
- 한국 선생님들과 상의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한국 선생님들과 상의하여 수업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수업 자료와 활동,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 후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 선생님과도 상담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선생님과 수업 내용, 필요 자료, 수업 일정과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수업 내용

수업 대상	한국학생	외국 교사	필리핀 교사	한국 교사	유정남
과목	다문화 수업	학년/반	5학년	수업 시간	1시간
주제	국가 간의 우정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간 우정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합니다. - 다른 나라에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핀어 단어를 배웁니다. 				
구분	학습 단계	학습 활동			수업 자료
수업 진행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에게 동영상 프레젠테이션 과정 중에 우정에 대한 노래를 소개했습니다. 			동영상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의 개념을 전개하기 위해 선생님과 학생 간에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비교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의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생산적인 활동도 수행하였습니다. 			파워 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미술 재료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내용을 SDG 17과 이어지도록 하였고,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결과물(창문 장식)로 보여줌으로써 수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창문 장식

결론 및 제언

구분	내용
수업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에게 즐겁고 흥미로운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우정과 이해라는 가치가 여러 국가를 아우르는 요소라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 학생들의 성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한국과 필리핀의 우정에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수업 주제인 '감사하는 마음'을 공유할 수 있었고 나아가 필리핀 사람들과 필리핀 선생님들에게도 애정을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주어진 실습 활동도 완수하였습니다. • 관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교육교류는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의미가 깊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은 교육교류에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했습니다. - 교사들은 양측 모두가 협조적이었습니다. -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 교사들은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였으며 주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개별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경험에 대한 의견 <p>팬데믹 기간에 한국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굉장히 뜻 깊었습니다. 이는 팬데믹이 배움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방증입니다. 교사로서 교육에 대한 열정과 굳은 마음가짐이 있다면, 많은 자원과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통해 교육은 지속될 수 있으며, 물리적 제약 속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p> • 향후 교육 활동에 적용 가능한 점 <p>교육교류는 청소년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종차별을 근절하고, 나라와 문화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우리는 모두 동등하며 삶에 대한 권리와 존중 받을 권리,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p>

수업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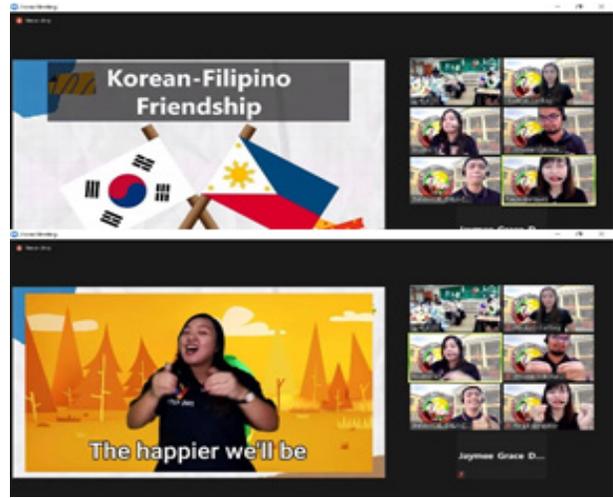
한국 학생들이 한국-필리핀의 친선 깃발을 기쁘게 흔드는 모습



수업 내용을 창문 장식으로 전시하는 학생들



우정에 대한 한국 수업을 참관하는 APCEIU 직원들



노래와 ppt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필리핀 선생님

II

현직학교 우수사례 모음

다문화가정 대상국과의 교육교류사업
2021년도 사업최종보고서

2.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제출일: 2021. 8. 9.

(1) 연구회 정보

연구회명	파야타이 파이팅 (Phyathai Fighting)	학 교	파야타이 학교(Phyathai School)
국 가	태국	파트너 학교	대전 둔산초등학교
대표 교사	Sasithorn Kiewkor	회원 교사	Jirachaya Jaranaï
회원 교사	Nopawan lamjan	회원 교사	Pinpicha Pienmana
회원 교사	Wanassanan Jaimanee	제 출 일	2021년 8월 9일

(2)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세상을 위한 21일
주제	태국과 한국 학생들의 환경을 위한 책임감을 함양합니다.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행동 목록을 만듭니다. •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고취시킵니다.
배경	<p>이번 프로젝트는 두 나라의 학생들이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설계하였습니다. 환경 문제는 인간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욕심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된 주요한 전세계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환경을 보호하는데 동참하는 것은 세계시민의 의무입니다. 학교에서도 환경에 대해 한발 더 나아가 교육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은 환경 문제에 대해 이미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실에서 접하는 지식과 이에 대한 인식이 아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지속적으로 유의한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면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과 인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이러한 참여 활동을 통해 특정 국가의 환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환경을 생각하며, 천연 자원과 환경을 보전, 복원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사용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파괴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학생들을 위해 21일 동안 진행되는 세계 환경 보전 프로젝트에 참여하세요.</p>
연구/프로젝트 수행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규모 그룹으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모인 학생들은 한국과 태국 학생들을 21일 간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초대하기 위한 포스터를 만듭니다. 태국 선생님들이 활동에 참여할 20명가량의 태국 학생들을 모집하고 20명가량의 한국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 포스터를 한국 선생님에게 전달합니다. 2. 프로젝트에 참여한 두 나라의 학생들은 21일 동안 환경 보전을 위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활동 내역을 기록합니다. 활동 내역을 글로 작성하거나 팸플릿 앱에서 게시하고, 사진이나 그림으로도 남길 수 있습니다(양국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3.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두 나라의 선생님들은 각 학생들에게 태국 학생이나 한국 학생들이 환경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내용을 담은 샘플, 사진, 보상 카드 또는 수집 카드를 보내 학생들을 격려합니다. 4. 프로젝트가 끝나고 21일간의 활동을 마친 학생들에게는 환경 지킴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5.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만든 세계를 위한 21 간의 활동 저널에 있는 정보를 취합하여 학생들의 환경 보호 참여 활동을 요약합니다.
프로젝트 산출물	연구 보고서와 동영상
프로젝트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0명의 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가하였으며, 태국 학생 51명, 한국 학생 48명이 함께 21일간의 활동을 완수했습니다. 3명의 학생(4%)은 15~20일간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5명의 학생(7%)은 8~14일간 활동에 참여하였고 14명의 학생(20%)은 1~7일간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 학생들은 44가지의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가장 많이 한 활동은 순서대로 전자 제품 사용 후 전원 플러그 뽑기(37%), 다회용 물병과 푸드박스 사용하기(10%), 천 가방 사용하기(5%), 에너지 절약형 제품 사용하기(2%), 플라스틱 병 재사용(2%)이었습니다. - 학생들이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은 각 나라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도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태국 학생들은 천 가방을 들고 에너지 절약형 전기 제품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종이 빨대 사용하기에 많이 참여 하였습니다. 정보를 찾아보니 한국에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신문지를 재활용하는 법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많은 한국인들이 종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과업내용

교사명	담당 과업
Sasithorn Kiewkor (대표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논의 - 프로젝트 실행 계획 수립 - 대전 둔산초등학교의 선생님들과 실행 가능성 상의 - 대전 학교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수행활동 내용 조정 - 파야타이 학교 선생님들에게 담당 업무 분배 - 태국과 한국 학생들의 프로젝트 활동을 모니터링 - 태국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 프로젝트 활동 계획 조정 - 학생 참여 독려 - 대전 둔산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정보 및 사진 요청 조율 - 파야타이학교와 둔산초교의 정보를 분석 담당 선생님들에게 전송 -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인터뷰 - 데이터 분석 계획 참여 - 프로젝트 정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기획 -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
Wanassanan Jaiman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논의 - 프로젝트 활동 참여 - 프로젝트 실행 계획 수립 - 데이터 분석 계획 수립 - 데이터 분석 - 발표
Pinpicha Pienma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논의 - 프로젝트 활동 참여 - 프로젝트 실행 계획 수립 -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인터뷰 - 발표 - 프로젝트 미참여 학생에게 수행 활동 확장
Jirachaya Jaranae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논의 - 프로젝트 실행 계획 수립 -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정보 제공 - 21일간의 세계 캠페인 포스터 제작 위한 학생 배정 - 정보의 수집/정리 및 보고 - 프로젝트 미참여 학생에게 수행 활동 확장
Nopawan lamj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논의 - 프로젝트 실행 계획 수립 -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정보 제공 - 21일간의 세계 캠페인 포스터 제작 위한 학생 역할 배정 - 정보 수집 및 정리 - 프로젝트 미참여 학생에게 수행 활동 확장

(4) 프로젝트 내용 및 결과

● 프로젝트 수행 내용

활동	세부 내용
교사 사전 회의	연구회 선생님들은 양국 학생들의 프로젝트 주제 결정을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둔산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6학년 학생들이 계절에 대해 배울 수 있는지 물어본 후, 계절과 관련된 학습 계획을 설계하였고 프로젝트가 수업 계획과 연관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활동 계획 논의	학생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프로젝트 활동을 설계했습니다. 태국의 코로나 상황으로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함께 활동을 완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했기 때문에 매우 오랜 시간 논의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 활동에 관심을 보이고 가까이 협력할 의사를 밝힌 대전 둔산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상의했습니다.

활동	세부 내용
사전 활동	저희는 학생들이 21일간의 세계 프로젝트에 대해 이해하도록 장려했습니다. 그 후 학생들에게 프로젝트에 참여할 다른 학생들을 모집하는 포스터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학생들만 포스터 제작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양국 학생들이 만든 포스터를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자 많은 학생들이 포스터 제작에 흥미를 보였으며 활동 참여에는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 전개	한국 학생들이 자신의 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저널을 고안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학생들이 사진 찍히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로 글을 작성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태국 학생들은 저널을 기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패들렛 애플리케이션에 사진과 글을 게시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태국 학생들은 편리하게 패들렛에 글을 게시하였으며 저희는 학생들이 적합한 내용을 쉽게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동기 부여 및 후속 조치	이 활동은 21일 동안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보상 카드와 카드 수집입니다. 매주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포인트를 적립했는지 알려주고 라인(LIN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지하여 학생들이 포인트를 계속 모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라인 그룹에 고지하면 학부모도 적립된 포인트를 볼 수 있으므로 아이들에게 이러한 활동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친구들처럼 보상 카드를 받기 위해 활동에 자진해서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세상을 위한 21일”에서 학생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산초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활동을 저널에 기록합니다. - 파야타이 학교 학생들은 패들렛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활동을 기록합니다.
설문 결과 및 학생 활동에 대한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기록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참여 빈도와 비율을 분석했습니다. - 선생님은 학생들이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인터뷰했습니다.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보고서에 정보를 기재합니다. -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대표교사가 그룹 구성원에게 보고서를 공유합니다. - 선생님들은 지침에 따라 최종 보고서를 수정하고 NEST에 이를 제출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 (연구결과 + 결론 및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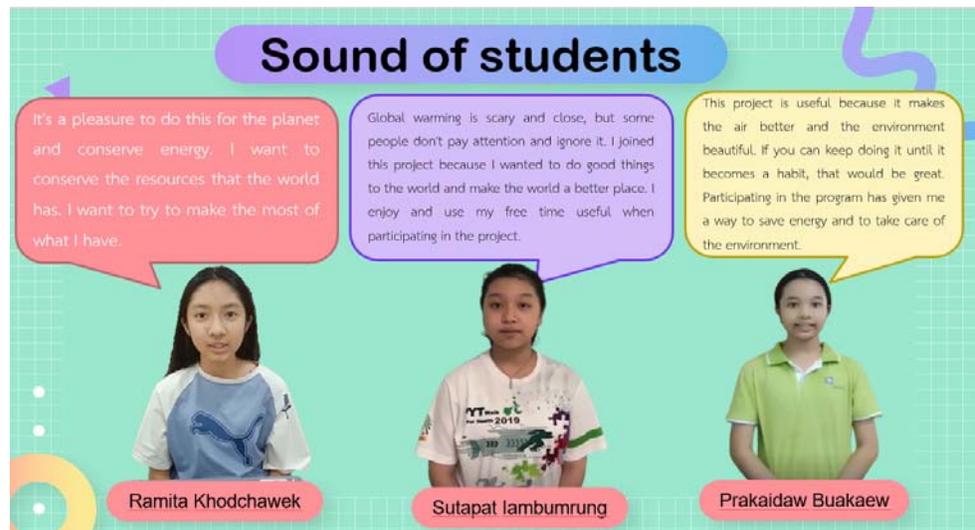
프로젝트 결과



1. 이 프로젝트에는 태국 학생 51명과 한국 학생 19명을 합쳐 총 7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2. 29명의 태국 학생(56.86%)이 21일간의 세계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한국 학생은 19명(100%)이 참가했습니다.
3. 태국 학생들은 38개의 프로젝트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총 41회의 활동을 기록한 3개의 프로젝트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4. 태국 학생들은 “세상을 위한 21일” 활동을 608회 수행하였으며, 한국 학생들은 215회를 수행하여 총 823회를 수행했습니다.
5. 태국 학생들은 35가지 활동을 수행하고 한국 학생들은 19가지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6.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 제품 사용 후 전원 차단하기(37%), 물병과 푸드박스 사용하기(10%), 천 가방 사용하기(10%), 에너지 절약형 제품 사용하기(2%), 플라스틱 병 재사용하기(2%)입니다.



학생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각 나라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달랐습니다. 태국 학생들은 천 가방과 에너지 절약형 전기 제품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학생들은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 학생들의 소리

Ramita Khodchawek

“지구를 보호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참여 할 수 있어서 기쁘요. 지구의 자원을 아끼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요.”

Sutapat lambumrung

“지구 온난화는 무섭고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를 무시해요. 저는 지구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지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자유 시간을 즐겁고 알차게 보낼 수 있었어요.”

Prakaidaw Buakaew

“이 프로젝트는 공기를 더 맑게 하고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유익해요.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실천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어요.”

함의 및 제언

- “세계를 위한 21일” 프로젝트는 다른 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가 필요합니다.
- 선생님이 활동 시작 전에 학생들을 위해 지구 온난화 학습 활동을 준비하면 학생들은 활동을 완수하기 위해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선생님들은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환경 관리 활동 사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산출물 (활용방안 + 기대효과)

산출물	동영상 및 연구 보고서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의 일부 내용을 활용하여 최종 발표일에 공개합니다. - 동영상을 활용하여 다른 학생들을 프로젝트에 모집합니다. - 다른 학교의 동료 선생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소셜 미디어에 게시합니다.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스스로 지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 이 프로젝트는 다른 학교의 선생님에게 학생들이 실제 행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사례를 제공합니다.

활동 사진



〈한국 학생의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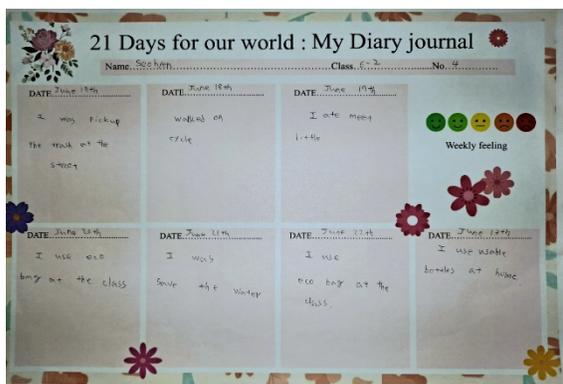
〈한국 학생의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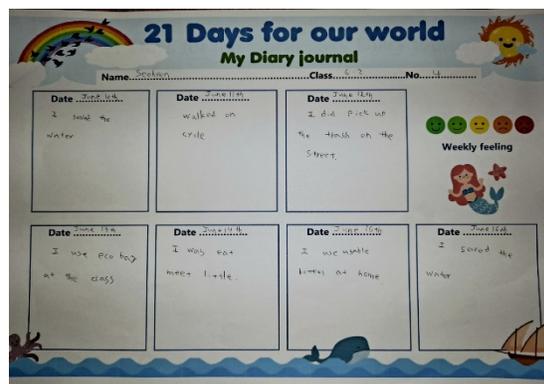
〈태국 학생의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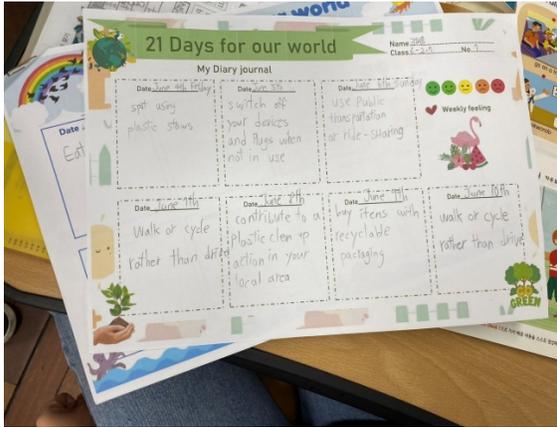
〈태국 학생의 포스터〉



〈한국 학생의 저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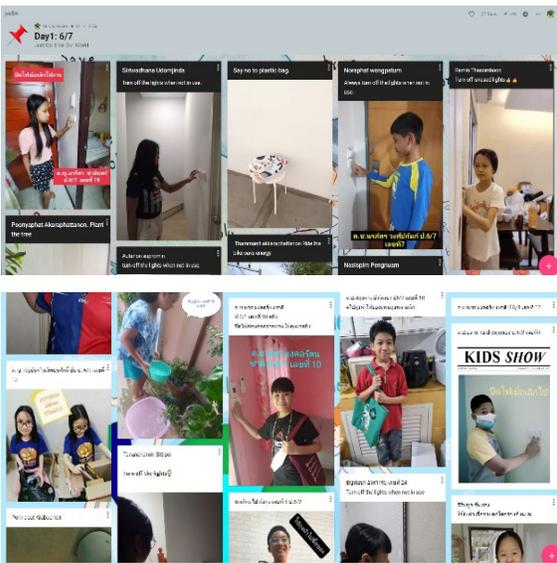
〈한국 학생의 저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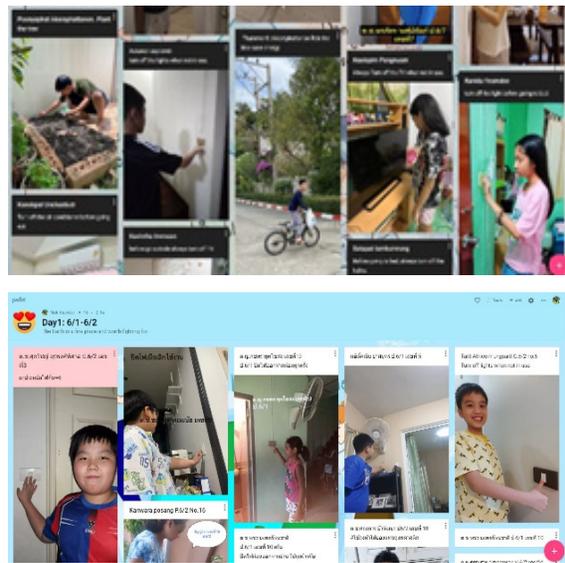
〈한국 학생의 저널〉



〈한국 학생의 포스터〉



〈패들렛에 게시한 태국 학생의 저널〉



〈패들렛에 게시한 태국 학생의 저널〉



〈보상 카드〉



〈보상 카드〉

II
현직학교 우수사례모음

다문화가정 대상자와의 교육·교류사업
2021년도 사업최종보고서

(1) 연구회 정보

연구회명	LAYAG 팀	소속 학교	Rizal 초등학교
국 가	필리핀	파트너 학교	대연 초등학교
대표 교사	Cherry Lyn V.Balbacal	회원 교사	Shella Rose B. Adia
회원 교사	Johnna B. Paño	회원 교사	Edgarto D. Pamugas III
회원 교사	Honeyline D. Depra	제 출 일	2021년 7월 8일

(2)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GCED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나무 심기
주제	GCED의 날
목적	1. GCED와 Rizal 초등학교(필리핀) 및 대연초등학교(한국)와의 파트너십을 기념 2. 지구 생태계를 보호, 복원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하도록 장려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산림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단 및 SDG15(땅 위의 생태계) 생물 다양성의 저하를 멈춤
배경	세계는 점점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반면, 인권 침해와 불평등, 빈곤은 여전히 평화와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GCED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대응 방식입니다. GCED는 모든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이러한 과제가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임을 이해하고 보다 평화롭고 관대하며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GCED는 유네스코 교육 부문 프로그램의 전략적 영역이며 평화와 인권 교육을 기반으로 합니다. GCED의 목표는 학습자에게 창의성, 혁신, 평화, 인권,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헌신(https://en.unesco.org/themes/gced)과 같은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을 지향하는 가치, 태도 및 행동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교사들은 GCED의 약속인 "식물 친구들(Plnat Buddies)"을 통해 한국과 필리핀 시민들에게 GCED를 홍보하는 공동 활동인 GCED의 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세계 시민 교육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더 나은 세계 시민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학생들에게 고취시킬 것입니다.
연구/프로젝트 수행 방법	파나보 맹그로브 공원에 한국 학생들과 교사의 이름이 붙은 맹그로브 나무를 심고 가꾸기
프로젝트 산출물	1. 맹그로브 공원 출입 허가증 확보 2. 맹그로브 공원 확장에 기여하기 위해 최소 200그루의 맹그로브 묘목 심기
프로젝트 요약	필리핀 측 교육교류 참여자는 한국 참여교사와 학생들의 이름이 적힌 맹그로브 나무를 심습니다. 이는 양측의 지속적인 우정과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학교 안팎에서 GCED를 더욱 강화시키는 약속을 상징합니다. 이를 위해 Rizal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은 한국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대신하여 나무를 심습니다.

(3) 과업 내용

교사명	담당 과업
Cherry Lyn V.Balbacal	• 지역의 환경/천연자원과의 지원을 위한 서면 커뮤니케이션 • 여행 서류 준비
Honeyline D. Depra	• 묘목에 붙일 이름표 만들기
Johnna B. Paño	• 묘목에 붙일 이름표 만들기
Shella Rose B. Adia	• 묘목에 붙일 이름표 만들기
Edgarto D. Pamugas III	• 나무 심기 활동 참가자들의 확인서 발급 준비

(4) 프로젝트 내용 및 결과

📍 프로젝트 수행 내용

활동	세부 내용
계획	활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리핀과 한국의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계획 세션을 진행합니다.
서류 준비	조율 책임자와 팀 구성원은 활동 수행 전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수행합니다.
CENRO와 회의	맹그로브 공원 출입과 목목 준비에 대한 적절한 조율이 이뤄지도록 지역의 환경/천연자원과로부터 허가를 받습니다.
나무 심는 날	2021년 5월 29일에 파나보 맹그로브 공원의 확장 구역에서 나무 심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GCED의 날	3교시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에게 나무심기 활동의 근거와 함께 활동 진행 사항을 보여주는 간단한 GCED의 날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 프로젝트 수행 결과 (연구결과 + 결론 및 제언)

프로젝트 결과	프로젝트 과정을 담은동영상을 제작하고 파나보 맹그로브 공원에서 맹그로브 나무를 심을 수 있었습니다.
함의 및 제언	한국 학생들은 필리핀 교사와 학생들의 정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필리핀과 필리핀의 새로운 친구들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프로젝트 산출물 (활용방안 + 기대효과)

산출물	1. 동영상 2. 다 자란 맹그로브 나무
활용 방안	제작된 동영상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소중한 기념품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동영상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개념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설명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를 배우는 단계에 있는 교사와 학습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장기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학생과 교사들 사이에 깊은 우정을 심어 줄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가 중요한 이유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 활동 사진



계획 세션



참가자들을 위한 증명서와 커뮤니케이션 문서 준비



나무 심기 현장



집결 지점 도착



참가자들에게 맹그로브 묘목을 심는 방법을 설명하는 CENRO 직원



맹그로브 나무 심기



맹그로브 나무 심기



맹그로브 나무 심기

제출일: 2021. 8. 9.

(1) 연구회 정보

연구회명	Satthasamut 학교	소속학교	Satthasamut
국 가	태국	파트너학교	봉담고등학교
대표교사	Sila Tootongkum	회원교사	Thapana Khongraksa
회원교사	Kesine Inyong	회원교사	Judamaus Thorat
회원교사	Jarawat Nakwumol	제 출 일	2021년 8월 9일

(2) 프로젝트 개요

프로젝트명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교류사업 중 GCED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연구
주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교류사업 중 GCED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은 성공적인 학습자, 자신감 있는 개인, 책임감 있는 시민, 효과적인 기여자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의견을 탐구, 개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기르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주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세기는 물리적인 소통의 제약이 이전보다 적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지역과 국가, 나아가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배경에 관계없이 타인과 자신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 옹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는 인권, 종교적 다원주의, 성 평등, 환경 보호와 빈곤 대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구/프로젝트 수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국 교사들은 회의를 열어 프로젝트에서 수행할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저희는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교류사업 중 GCED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연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활용하는 도구는 설문지입니다. 대상자는 태국-한국 교사 교류 프로그램의 온라인 수업에 참석하는 태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입니다.
연구/프로젝트 수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지는 온라인 교육과 GCED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설문지 데이터는 통계(백분율)를 사용해 해석, 얻은 정보를 통해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한 내용을 보고서나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듭니다.
프로젝트 산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내용은 프로젝트 보고서 형식으로 전달됩니다.
프로젝트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은 연구자가 만든 설문지를 사용하여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교류사업 중 GCED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연구하는 것입니다. 설문지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교육교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이고 두 번째는 교류 교사와 함께 공부한 후 평가한 GCED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입니다. 모든 항목에 대해 참가자들은 대부분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중에서 선택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GCED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GCED 문제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GCED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II

현직학교 우수사례모음

다문화가정 대상국과의 교류교류사업
2021년도 사업최종보고서

(3) 과업 내용

교사명	담당 과업
Sila Tootongkum 남선생님	- 프로젝트 진행 위한 회의 개최 - 설문지 개발
Thapana Khongraksa 여선생님	- GCED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 수업 활동 이행
Kesineey Inyong 여선생님	-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설문지 배포 - 설문 결과 및 학생 활동 분석
Judamaus Thorat 여선생님	-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
Jarawat Nakwumol 남선생님	

(4) 프로젝트 내용 및 결과

프로젝트 수행 내용

활동	세부 내용
사전 회의 및 조사	- 태국 선생님들은 GCED와 관련된 문제를 토론하고 분석했습니다. - 토론 결과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주제를 찾는 데 활용했습니다.
설문지 문항 개발	- 피드백 결과를 통해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를 활용한 한국 학생들 용으로 설문지를 고안했습니다. 태국 선생님들은 영어로 설문지 문항을 작성하고 한국 학생들이 보다 쉽게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게 한국 선생님들에게 한국어 번역을 요청했습니다.
GCED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 태국 선생님들은 이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설문지 링크를 전송했습니다.
GCED 인식에 대한 학생들의 활동	- 학생들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설문 결과 및 학생 활동에 대한 분석	- 태국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작성한 설문지를 취합하고 그 결과를 요약했습니다.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	- 취합한 설문지 내용을 토대로 프로젝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 (연구결과 + 결론 및 제언)

〈표 1〉 글로벌 교육 프로젝트를 위한 교육교류사업의 GCED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번호	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중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수업 주제가 재미있었다.	42%	44%	7%	4%	3%
2.	수업을 통해 선생님 국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34%	47%	13%	5%	1%
3.	수업이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주었다.	27%	44%	20%	6%	3%
4.	다른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	35%	47%	12%	4%	2%
5.	나는 태국 선생님의 수업이 즐거웠고 중요한 정보를 많이 얻었다.	33%	45%	17%	3%	2%
6.	나는 다른 나라들의 문화 다양성에 대해 배우고 싶다.	39%	41%	15%	4%	1%
7.	나는 태국 선생님의 수업이 현장(오프라인)에서 직접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33%	41%	19%	5%	1%
8.	비록 문화가 다르더라도 나는 모두와 친구가 될 수 있다.	38%	47%	9%	4%	1%
9.	나는 상대방의 문화를 고려해서 좋은 단어와 표현을 선택할 수 있다.	27%	53%	14%	6%	1%
10.	나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이 주는 유용함을 이해하고 있다.	32%	46%	17%	3%	1%
11.	나는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받아들인다.	27%	55%	11%	6%	1%
12.	나는 태국 선생님의 수업에 제시된 GCED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한다.	23%	42%	27%	7%	1%
13.	나는 세계시민교육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5%	46%	21%	7%	1%
14.	나는 우리 사회가 세계적인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29%	48%	17%	4%	2%
15.	이 수업을 통해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	32%	45%	16%	6%	1%

	<p>표 1을 기준으로 볼 때 모든 항목에 대해 참가자들은 대부분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를 선택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항목 1을 보면 42%가 질문 내용에 대해 '매우 그렇다'를, 44%가 '그렇다'로 대답했습니다. 한편, 질문 내용에 대해 학생들 중 7%는 '중간'에, 4%는 '그렇지 않다'에, 3%는 '매우 그렇지 않다'로 대답했습니다.</p> <p>항목 2의 결과를 보면 47%인 대다수의 학생이 '그렇다'라고 대답한 반면, 34%는 "해당 수업이 선생님의 모국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에 '매우 그렇다'로 대답했습니다. 반면에 질문 내용에 대해 13%의 학생들은 '중간'을, 5%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를, 1%의 학생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했습니다.</p> <p>항목 3의 '수업이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키워주었다'에 대해서는 44%의 학생들이 '그렇다'를, 27%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질문 내용에 대해 20%의 학생들은 '중간'을, 6%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를, 3%의 학생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했습니다.</p> <p>항목 4의 "수업이 다른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다."에 대해서는 47%의 학생들이 '그렇다'를, 35%의 학생들이 이 '매우 그렇다'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질문 내용에 대해 12%의 학생들은 '중간'을, 4%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를, 2%의 학생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했습니다.</p> <p>항목 5의 "나는 수업을 즐겼고 중요한 정보를 많이 얻었다."에 대해서는 45%의 학생들이 '그렇다'를, 33%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질문 내용에 대해 17%의 학생들은 '중간'을, 3%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를, 2%의 학생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했습니다. 항목 6의 "다른 나라들의 문화 다양성에 대해 배우고 싶다."에 대해서는 41%의 학생들이 '그렇다'를, 39%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질문 내용에 대해 15%의 학생들은 '중간'을, 4%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를, 1%의 학생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했습니다.</p> <p>항목 7의 "수업이 현장(오프라인)에서 직접 진행되었으면 좋겠다."에 대해서는 41%의 학생들이 '그렇다'를, 33%의 학생들이 이 '매우 그렇다'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질문 내용에 대해 19%의 학생들은 '중간'을, 5%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를, 1%의 학생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했습니다. 1~7번 항목을 살펴보면 각각의 항목에 대해 거의 모든 학생들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글로벌 교육 프로젝트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교사 교류 프로그램의 GCED 수업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p> <p>항목 8의 "비록 문화가 다르더라도 나는 모두와 친구가 될 수 있다."에 대해서는 47%의 학생들이 '그렇다'를, 38%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질문 내용에 대해 9%의 학생들은 '중간'을, 4%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를, 1%의 학생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했습니다.</p> <p>항목 9의 "나는 상대방의 문화를 고려해서 좋은 단어나 표현을 선택할 수 있다."에 대해서는 53%의 학생들이 '그렇다'를, 27%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질문 내용에 대해 14%의 학생들은 '중간'을, 6%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를, 1%의 학생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했습니다.</p> <p>항목 10의 "나는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이 갖는 유용함을 이해하고 있다."에 대해서는 46%의 학생들이 '그렇다'를, 32%의 학생들이 이 '매우 그렇다'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질문 내용에 대해 17%의 학생들은 '중간'을, 3%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를, 1%의 학생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했습니다.</p> <p>항목 11의 "나는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받아들인다."에 대해서는 55%의 학생들이 '그렇다'를, 27%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질문 내용에 대해 11%의 학생들은 '중간'을, 6%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를, 1%의 학생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했습니다.</p> <p>항목 12의 "나는 GCED(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한다."에 대해서는 42%의 학생들이 '그렇다'를, 23%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질문 내용에 대해 27%의 학생들은 '중간'을, 7%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를, 1%의 학생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했습니다.</p> <p>항목 13의 "나는 세계 시민 교육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에 대해서는 46%의 학생들이 '그렇다'를, 25%의 학생들이 이 '매우 그렇다'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질문 내용에 대해 21%의 학생들은 '중간'을, 7%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를, 1%의 학생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했습니다.</p> <p>항목 14의 "나는 우리 사회가 세계적인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에 대해서는 48%의 학생들이 '그렇다'를, 29%의 학생들이 '매우 그렇다'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질문 내용에 대해 17%의 학생들은 '중간'을, 4%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를, 2%의 학생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했습니다.</p> <p>항목 15의 "이 수업을 통해 GCED(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다."에 대해서는 45%의 학생들이 '그렇다'를, 32%의 학생들이 이 '매우 그렇다'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질문 내용에 대해 16%의 학생들은 '중간'을, 6%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를, 1%의 학생들은 '매우 그렇지 않다'를 선택했습니다.</p> <p>8~15번 항목을 살펴보면 각각의 항목에 대해 거의 모든 학생들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GCED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GCED 문제를 가르치고 배우는 데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GCED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p>
<p>결 과</p>	<p>저희는 3회의 GCED 교육 수업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교육 방법과 GCED 내용이 포함된 더 많은 수업을 수행할 수 있다면 프로젝트 결과에 더욱 일관성이 있을 것입니다.</p>
<p>함의 및 제언</p>	

프로젝트 산출물 (활용방안 + 기대효과)

산출물	프로젝트 문서 또는 보고서
활용 방안	프로젝트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 방법을 개선하고 GCED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학생들은 GCED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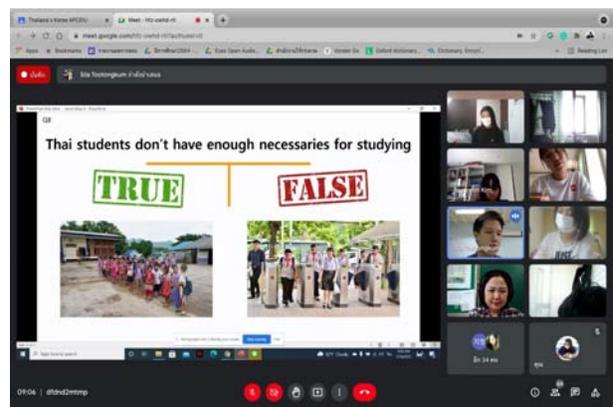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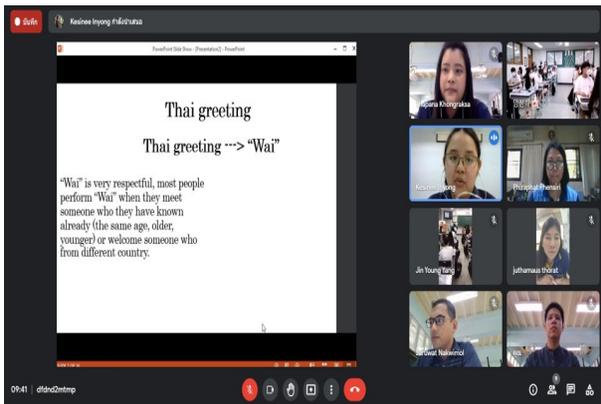
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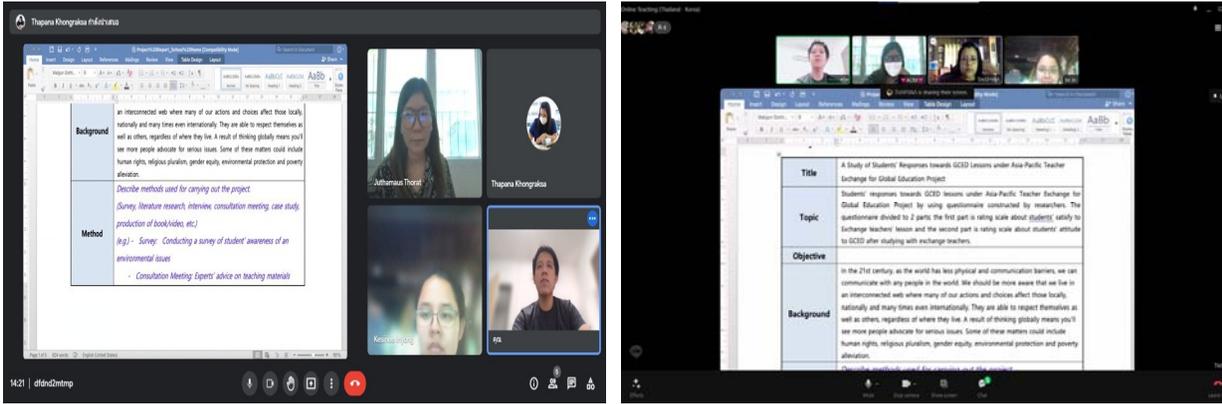
주제 선정을 위한 회의



설문지 작성을 위한 회의



수업에 추가된 GCED 활동



프로젝트 결과 요약 회의

II

현직학교 우수사례모음

3. 최종 활동 보고서

제출일: 2021. 7. 20.

(1) 연구회 정보

연구회명	ONSOI	소속학교	KOLEJ VOKASIONAL KENINGAU
국 가	말레이시아	파트너학교	인천 공향 고등학교
대표 교사	MOHD AL KHALIFA BIN MOHD AFNAN	회원교사	NOOR MUNIRAH BINTI MUHAMMAD YUSOFF
회원교사	SAUMON MALIKI	제 출 일	2021년 7월 20일

(2) 세부 활동 보고

교육 활동

회차	수업 대상	일시	수업형태 (실시간/ 비실시간)	수업 유형	수업 주제	담당 교사 (국내, 국외)
1	말레이시아 학생	2021년 5월 19일	실시간	방과 후	문화 비교	강누리
						Mohd Al Khalifa bin Mohd Afnan
2	말레이시아 학생	2021년 5월 26일	실시간	방과 후	탄소 발자국	송인숙
						Mohd Al Khalifa bin Mohd Afnan
3	말레이시아 학생	2021년 6월 3일	실시간	방과 후	사회적 평등	김성희
						Mohd Al Khalifa bin Mohd Afnan
4	한국 학생	2021년 5월 15일	실시간	방과 후	말레이시아 소개	강누리
						Mohd Al Khalifa bin Mohd Afnan
5	한국 학생	2021년 5월 22일	실시간	방과 후	말레이시아의 케이크 만들기	김성희
						Noor Munirah binti Muhammad Yusoff
6	한국 학생	2021년 5월 28일	실시간	정규 수업	과일/ 야채 조각품	강누리
						Saumon bin Maliki

회차	대상 (수업의 경우)	수업 내용 및 성취
1	말레이시아 학생	<p>한국에 관한 흥미로운 점들 수업의 내용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흥미로운 점들이었습니다. 강누리 선생님은 게임을 수업에 포함하고 객관식 게임과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수업 내용을 재미있게 전달했습니다.</p> <p>■ 성취: 1. 혼자서는 인터넷에서 찾기 어려운 한국 문화에 대해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p>

회차	대상 (수업의 경우)	수업 내용 및 성취
2	말레이시아 학생	<p>수학으로 보는 기후변화 책임감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수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기후 변화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p> <p>■ 성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들은 기후 변화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었으며 문제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배웠습니다. 2. 학생들은 지구를 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수학에 전보다 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3	말레이시아 학생	<p>사회적 평등 한국 역사의 관점을 통해 사회적 평등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회적 평등을 위해 불의에 맞서 싸웠던 시민의 이야기인 존항전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또한 한글에 대한 연구와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창제하여 널리 보급했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p> <p>■ 성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들은 한국 역사를 더 자세히 배웠습니다. 2. 학생들은 수업 중에 큰 소리로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	한국 학생	<p>말레이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문화 소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말레이시아와 말레이시아 문화(역사, 언어, 유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이러한 교육교류를 통해 학생들에게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p>■ 학습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말레이시아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 학생들은 'APA Khabar'라는 문장을 연습하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p>■ 성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말레이시아의 교사가 만든 패들렛(Padlet) 벽보를 통해 소통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 학생들은 패들렛 벽보에서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5	한국 학생	<p>말레이시아의 케이크 소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음식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p>■ 학습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과 활동을 바탕으로 음식을 통해 말레이시아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학생들은 말레이시아의 케이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 학생들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말레이시아 케이크와 한국의 떡에 접목할 수 있었습니다. <p>■ 성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실시간 시연을 통해 말레이시아 현지 케이크를 직접 만들 수 있었습니다. • 학생들은 패들렛 벽보에 남긴 피드백과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6	한국 학생	<p>과일과 야채 조각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에 대한 흥미를 키웁니다. • 과일과 야채를 사용하여 수공예로 만든 부케를 준비합니다. <p>■ 학습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재료를 가지고 장미와 나뭇잎을 조각했습니다. • 학생들은 식물의 가치를 예술에 접목했습니다. • 한국 학생들은 패들렛에 자신들의 조각품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p>■ 성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채소 조각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최선을 다했고 수업을 즐겼습니다.

프로젝트 활동

프로젝트 명	두 나라의 라면
프로젝트 산출물	인쇄물(도서/포스터) 및 온라인 게시(웹사이트/소셜 미디어)
프로젝트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그룹 프로젝트의 제목은 "말레이시아의 라면 vs 한국의 라면"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활동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라면 챌린지라는 과제를 완수해야 합니다. • 라면 챌린지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국가의 라면을 직접 요리하고, 그 후에 자신만의 스타일과 조리법을 사용하여 파트너 국가의 라면을 직접 요리해야 합니다. • 학생들은 챌린지의 마지막 주에 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 우리는 이 활동이 흥미롭고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말레이시아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활동을 인포그래픽 책으로 엮어서 사진과 요리 재료, 요리법 및 요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담기로 결정했습니다. • 인스턴트 라면을 통해 손쉽게 세상을 연결하는 것이 이 책을 만드는 목적입니다.

기타 활동

구분	활동 및 성과
학생 프로젝트	<p>도장 만들기 수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성희 선생님과 한국 학생들로 구성된 팀은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한국의 전통 도장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수업 전에 학생들은 미리 키트를 받았고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이름도 한글로 적어주었습니다. 제작이 잘 진행되도록 한국 학생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6월 11일에 줌(Zoom)의 소회의실 기능을 통해 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성취: 학생들 모두 개인 도장을 완성하고 이름을 찍어보았습니다. 또한 도장의 역사와 한국인들에게 도장이 갖는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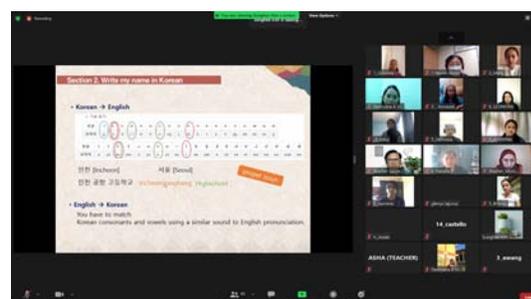
(3) 프로그램 참여 소감 및 제언

	교사명	내용
참여소감	Mohd Al Khalifa bin Mohd Afn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수업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유로 가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 온라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 온라인 수업의 내용 전달에 더 적합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수업에서는 게임 등 학생 활동을 통해 보다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 하고 싶습니다.
	Noor Munirah binti Muhammad Yusoff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교류에서는 전세계의 학생들에게 요리와 관련된 말레이시아의 문화를 전달하는 보다 심도있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겼습니다.
	Saumon bin Maliki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교육교류에서도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말레이시아 요리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후속 활동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Keningau 전문 학교와 인천 공학 고등학교 간 교육교류를 더 진행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이든 한국에서 직접 수업을 진행하든, 한국 학생들과 관계를 지속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는 우리 연구회가 직접 한국의 날을 개최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파트너 학교에서 조연을 구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멋지고 유의미한 한국의 날을 만들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교사와 학교 임직원들을 위해 더 많은 웨비나를 열고자 합니다. APTE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교사들이 최소한 저희가 앞으로 열 웨비나를 통해 혜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학습 보조 수단으로 앞서 설명한 라면 챌린지 활동을 기반으로 한 보드 게임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상호 작용하는 GCED 제품을 만드는 데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월 내에 시간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추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교육교류 기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교육교류 참가자에게 소정의 경비와 함께 상대방의 나라에 방문할 기회를 주거나, 최소한 짧은 기간이라도 대면 프로그램(세미나 또는 회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 활동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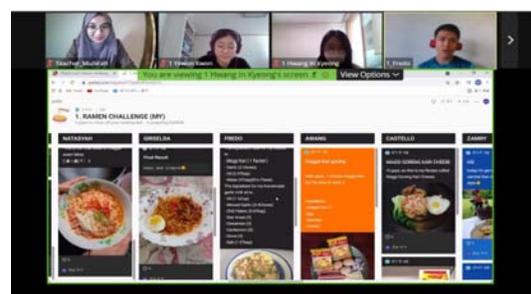
받았던 수업 중 최고의 수업



도장 찍기 수업



프로젝트 계획의 진행 과정



라면에 대해 발표하는 학생들

제출일: 2021. 7. 18.

(1) 연구회 정보

연구회명	SEKOJAU3	학 교	SK JALAN U3
국 가	말레이시아	파트너 학교	도담초등학교
대 표 교 사	MOHD HAFIZ BIN MUNGIN	회 원 교 사	NETHIA SAMONDESWARI A/P VASUTHEVAN
회 원 교 사	SHARMILA BINTI KOSNIM SANI	제 출 날 짜	2021년 7월 18일

(2) 세부 활동 보고

교육 활동

회차	수업 대상	일시	수업형태 (실시간/ 비실시간)	수업 유형	수업 주제	담당 교사 (국내, 국외)
1	말레이시아 5학년/ 6학년	2021년 6월 3일	비실시간	정규 수업	전통 게임	Nethia, Sharmila, Hafiz
						Sue
2	말레이시아 4학년	2021년 6월 3일	비실시간	정규 수업	전통 춤	Nethia, Sharmila Hafiz
						Sally
3	말레이시아 1학년	2021년 6월 3일	비실시간	정규 수업	한국 음악	Nethia, Sharmila Hafiz
						Jean
4	말레이시아 1학년/ 4학년	2021년 6월 3일	비실시간	정규 수업	한국 음식	Nethia, Sharmila, Hafiz
						Bella
5	도담 초등학교 5학년	2021년 6월 29일	비실시간	정규 수업	국가 문양	Bella, Sue, Jean, Sally
						Hafiz
6	도담 초등학교 5학년	2021년 7월 3일	비실시간	정규 수업	전통 모자 "Ketapu IBAN과 Marek Empang, Gat"	Bella, Sue, Jean, Sally
						Nethia
7	도담 초등학교 5학년	2021년 7월 5일	비실시간	정규 수업	전통 요리: 아빌 발릭 (Apam Balik)	Bella, Sue, Jean, Sally 여선생님
						Sharmila 여선생님

회차	대상 (수업의 경우)	수업 내용 및 성취
1	1학년/ 4, 5학년/ 6학년	• 말레이시아 파트너 학교(SK Puchong Perdana, SK Seksyen 20, SK Setia Alam)와 SK Jalan U3의 학생들은 본 수업에 따라 주어진 과제를 완수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떡지를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종이 공예 만드는 영상을 녹화했습니다. 1학년생들도 어렵지 않게 떡지를 만들었습니다.
2	1학년/ 4학년	• 말레이시아 파트너 학교(SK Puchong Perdana, SK Seksyen 20, SK Setia Alam)와 SK Jalan U3의 학생들은 직접 가면을 만들고 탈춤 공연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동 제한 조치에 따라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았는데도 최선을 다해 의상과 소품을 준비하였습니다.

II

현직학교 우수사례모음

다
문
화
가
정
2
0
2
1
년
도
대
상
국
외
의
교
과
교
류
사
업
최
종
보
고
서
업

회차	대상 (수업의 경우)	수업 내용 및 성취
3	4학년/ 5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학년과 5학년 학생은 한국어로 노래 가사를 적을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선생님과 한국 선생님들이 과제를 마치지 못한 학생들이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도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4학년/ 5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은 찜닭이라는 새로운 요리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인 야채 전, 김치, 치즈 떡볶이, 파전, 불고기, 주먹밥, 김치찌개, 잡채, 라면, 계란말이와 새우 라면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5	한국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레이시아 파트너 학교(SK Puchong Perdana, SK Seksyen 20, SK Setia Alam)와 SK Jalan U3의 학생들은 본 수업에서 주어진 과제를 완수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학생들이 만든 국가 문양을 패들렛 사이트에 이를 공유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두 나라의 중요한 국가 문양들을 강조하고 단순하지만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를 해석했습니다. 도담초등학교 학생들은 방학이 끝나고 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6	한국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레이시아 학교의 1학년 학생과 파트너 학교의 4학년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창의적으로 말레이시아 전통 모자인 Ketapu와 Marek Empang, Gat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짧은 댄스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집에서 가져온 재활용품과 저희가 제공한 색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도담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방학이 끝난 후에 수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7	한국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이 패들렛에 계속 접속하여 영상을 재생활 수 있어서 수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피드백은 훌륭했으며 음식을 요리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와 같은 팬데믹 기간에 몇 가지 제한 사항도 있었지만 수업은 잘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집에서 성공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기호에 따라 자신만의 레시피를 추가하여 개성있는 팬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방학이 끝난 후에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 활동

프로젝트명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전래 동화
프로젝트 산출물	5개 학교 모두 스톱 모션 동영상은 성공적이고 창의적으로 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스톱 모션 시연일에 자신의 영상을 발표합니다.
프로젝트 요약	<p>1.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전래 동화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들은 즐겁게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은 꽤 길었지만 학생들 스스로 프로젝트를 완수했습니다. 학생들은 전래 동화 고르기, 이야기 쓰기, 스토리보드에 그림 그리고, 캐릭터와 배경 장면을 만들기, 사진 촬영, 사진을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마지막에는 영상 편집 작업을 하였습니다. 각 학교의 모든 대표자가 업무를 처리하고 작업한 내용을 시연일에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영상들은 매우 훌륭했으며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기타 활동

종류	활동내용 및 성과
수업 활동 후 피드백	<p>2. 마이크로그린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역할을 멋지게 수행했습니다. 학생들은 포스터를 만들고, 마이크로그린을 키우고, 성장을 기록하고, 수확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학생들 스스로 사고력과 배움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수업 활동 후 피드백	<p>5가지 문화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가지 문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라마단(축제) 미니 향신료 랑골리, 등불(전통 장식) 세팍 타크로 및 가싱 (전통 게임) SKJU3 및 파트너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주어진 모든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도담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방학이 끝난 후 9월에 활동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프로그램 참여 소감 및 제안

	이름	내용
참여소감		1. 학생들은 처음으로 다른 문화에 노출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 다양한 실습 환경에서 자신의 강점과 생각을 활용하여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3. 한국 학교 선생님들과 저희가 공유한 유대감과 협력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향후 교육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상에 대한 경험(코로나) •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학생들은 수업에 더욱 집중하며 상황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경험한 내용을 실생활에서 더욱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문에 기반한 학습 경험 • 지역 사회 활동 및 서비스 학습 • 경험을 통한 학습
후속 활동 계획		후속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업(도담초등학교 학생들은 방학 이후 9월에 계속 수업을 진행함) 2. 학교에 GCED 영어 교실 도입 3. 학교에서 도시 정원 프로젝트 수행 4.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전래 동화 미니 페스티벌 5. SK Jalan U3에 도담초등학교 우정 나무 심기 6. 도담초등학교와 SK Jalan U3 간 학생 회의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 좋겠습니다 • 다양한 질문을 통한 학습도 많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 학생들이 지역 사회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경험도 습득하기를 바랍니다. • 더 많은 경험을 학습하기를 바랍니다.

(4) 활동 사진



마이크로그린: 지속 가능성



탈춤



향신료 랑골리: 창작품: 다문화



등불: 재활용품:

(1) 연구회 정보

연구회명	SUGBO 팀	소속학교	Tisa II 초등학교
국 가	필리핀	파트너 학교	신천 초등학교
대표 교사	Edmund T. Dacua	회원교사	Honey Riza V. Yu Vega
회원교사	Reggie Lou T. Savior	회원교사	Regine P. Lagrimas
회원교사	Jocelyn B. Llego	제 출 일	2021년 7월 8일

(2) 세부 활동 보고

교육 활동

회차	수업 대상	일시	수업형태 (실시간/ 비실시간)	수업 유형	수업 주제	담당 교사 (국내, 국외)
1	필리핀 학생	2021년 5월 6일	실시간	정규 수업	한국의 특별한 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	손유정, Maya 선생님 Joyce, Gin 선생님
2	필리핀 학생	2021년 5월 20일	실시간	정규 수업	"NGO 프로젝트와 함께 지구를 지켜요!"	손유정, Maya 선생님 Lou 선생님
3	필리핀 학생	2021년 5월 27일	비실시간	방과 후 수업	"우리는 글로벌 시민입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	김현진, 이대환 Honey 선생님
4	한국 학생	2021년 6월 4일	실시간	정규 수업	"영어/필리핀어(세부어) 표현의 매력"	손유정, Maya 선생님 Joyce, Gin 선생님
5	한국 학생	2021년 6월 17일	실시간	정규 수업	"물 보존의 중요성 알리기"	손유정, Maya 선생님 Lou 선생님
6	한국 학생	2021년 6월 24일	실시간	정규 수업	"3R(Reduce, Reuse, Recycle)을 통해 사람과 지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한 책임감 함양"	손유정, Maya 선생님 Honey 선생님

회차	수업대상	수업 내용 및 성과
1	필리핀학생	<p>1교시- "한국의 특별한 날(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은 사진을 통해 한국의 여러 기념일을 소개하였습니다. • 선생님은 특정 기념일이 탄생한 배경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읽도록 했습니다. <p>선생님은 한국의 전통 게임인 '윷놀이'와 한국의 명절인 추석에 관련된 체험 학습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만의 특별한 휴일을 만들었습니다. • 선정된 학생들은 매 라운드마다 팀을 대표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게임을 즐겼으며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 선생님들은 다양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회차	수업대상	수업 내용 및 성과
2	필리핀 학생	<p>2교시- “우리는 글로벌 시민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선생님은 한국 학생들이 제작한 동영상 프레젠테이션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 동영상 시청 이후 필리핀의 학생들에게 이를 어떻게 보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 선생님은 이름이 적힌 돌림판을 활용해 필리핀 학생들이 한국 학교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도록 즐겁게 상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필리핀 선생님은 Tisa II 초등학교의 모습과 수업 환경, 학교의 관행을 소개했습니다. • 필리핀 선생님은 한국 학생들의 이름이 적힌 돌림판을 이용해 필리핀 학교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한국 학생들이 질문하는 상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돌림판에서 이름이 지목된 필리핀 학생은 한국 학생이 만든 동영상을 본 후 한국 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 돌림판에서 이름이 지목된 한국 학생은 필리핀 학생의 동영상 발표를 본 후 필리핀 학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 한국과 필리핀의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고 함께 모여서 “우리는 글로벌 시민입니다.”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필리핀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소개하는 동영상을 즐겁게 시청했습니다. • 한국 학생들은 필리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소개하는 동영상을 즐겁게 시청했습니다. • 한국과 필리핀의 학생들은 서로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3	필리핀 학생	<p>3교시- “NGO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은 유네스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 학생들이 줌보드(구글의 대화형 교실 애플리케이션)를 사용하여 NGO에 대한 대답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학생들을 여러 그룹으로 배치하여 자신만의 ‘NGO 프로젝트’를 만들게 했습니다. • 학생들은 ‘NGO’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학생들은 자신만의 ‘NGO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를 수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p>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은 동영상 프레젠테이션과 줌보드 사용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학생들은 결과물을 통해 자신들이 SDG와 SDG의 중요성을 이해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p>
4	한국 학생	<p>4교시- “영어/필리핀어(세부어) 표현과 문화의 매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온라인 상에서 대화로 상대 국가의 학생들에게 공유했습니다. • 학생들은 특정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을 보며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여 짧은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 수업은 ‘우리가 어떠한 문화권에 속해있고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의 자세’라는 교훈과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서로의 언어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학생들은 ‘필리핀-한국 우정의 날 모자’를 착용하고 각자가 사는 지역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필리핀과 한국 학생들은 서로 파트너를 이루어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5	한국 학생	<p>5교시- “물 보존의 중요성 알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 학생들은 사진을 바탕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직접 계획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 학생들은 물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강조하고 “우리는 변화의 주역입니다.”라는 구절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 학생들은 자신들의 표어를 공유하고 물 보존의 중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 각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직접 설명하였습니다.
6	한국 학생	<p>6교시- “3R(Reduce, Reuse, Recycle)을 통해 사람과 지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책임감 함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강, 호수, 바다에 플라스틱이 가득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 학생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며 3R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 수업은 학생들이 지역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돕는 “Be Clean Be Green Be a Recycling Machine” 문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활동

프로젝트명	제목: 프로젝트 SUGBO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온라인 문화파트너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활동
프로젝트 산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에 대한 내용 또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융합했습니다. • 전반적인 교육교류사업 관계자들도 참관했습니다. • 학생들은 SDG 관련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 MOU를 체결했습니다. • 결과물: 학생들이 제작한 저널, PPT, 동영상, 사진 • 활용 계획: 동영상 및 PPT는 향후 SDG와 세계시민교육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의 의미: 본 프로젝트는 긍정적인 공존을 위한 길을 탐구했습니다. <p>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서로를 인정하고, 차이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며, 나아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듭니다.</p> <p>이러한 서로에 대한 내용은 우리의 다양한 역사와 관행,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발전하며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건강하고 윤택한 지구를 만드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나아갑니다.</p> <p>그리고 이는 모든 세계시민이 완수해야 할 목표입니다.</p>
프로젝트 요약	<p>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문화 다양성을 존중 b. 국가 간의 효율적인 우호 증진 c. 유네스코 SDG 4, SDG 6, SDG 11, SDG 13, SDG 15 홍보 <p>■ 예비 회의 및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는 필리핀 연구회 선생님들이 진행했습니다. •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중요한 주제들을 추렸습니다. <p>■ 토론 및 계획</p> <p>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일정 • 프로젝트 설계 • 수업을 참관할 관계자 (세부 관광 및 문화 유산 부서) 및 프로젝트 수혜자 • 필요 예산 • 통합할 수업 주제(문화 또는 SDG) • 학교 관계자에 프로젝트 제안 발표 <p>■ 제안된 프로젝트 마무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U 승인 및 서명 • 프로젝트 SUGBO는 전단지/초대장 배포 • 프로젝트 개시 준비 <p>■ 프로젝트 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6월 11일 주요 관계자 및 학교장의 참관 하에 시작 • 한국 - 필리핀 교육교류사업 오리엔테이션 • SDG 홍보 •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 • 주요 관계자들은 앞으로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할 것을 약속함. <p>■ 다양한 수업과 프로젝트의 융합</p> <p>1교시- “영어/필리핀어(세부어) 표현과 문화의 매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과 경험을 온라인을 통해 상대 국가의 학생들에게 공유했습니다. • 학생들은 특정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을 보며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 수업은 ‘우리가 어떠한 문화권에 속해있든 혹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든, 중요한 것은 타인과 이야기할 때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라는 교훈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양국 학생들은 서로의 언어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교시-"물 보존의 중요성 알리기"

- 학생들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탐색했습니다.
- 학생들은 지정된 사진을 바탕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직접 계획을 세우고 아이디어를 내었습니다.
- 학생들은 물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 아이들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우리는 변화의 주역입니다."라는 구절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3교시-"3R(Reduce, Reuse, Recycle)을 통해 사람과 지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책임감 함양"

- 학생들은 강, 호수, 바다에 플라스틱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 학생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며 3R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 아이들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은 아이들이 변화의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Be Clean, Be Green, Be a Recycling Machine"라는 문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 결과물 발표

1교시- "영어/필리핀어(세부어) 표현과 문화의 매력"

- 학생들은 '필리핀-한국 우정의 날 모자'를 쓰고 각자가 사는 지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필리핀과 한국 학생들은 서로 짝을 이루어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2교시-"물 보존의 중요성 알리기"

- 학생들은 자신들의 표어를 공유하고 물 보존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 각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설명하며 물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교시-"3R(Reduce, Recycle, Reuse)을 통해 사람과 지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책임감 함양"

- 학생들은 빈 병에 심은 식물을 재활용 활동의 결과물로 보여주었습니다.
- 학생들은 자신을 소개하고 식물을 온라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 학생들이 각자 식물을 고른 이유를 수업에서 공유했습니다.
- 학생들은 "Be Clean, Be Green, Be a Recycling Machine"이라는 문구를 낭송했습니다.

■ 마무리 활동

온라인 마무리 활동 - 한국 학생과 필리핀 학생의 문화 교류 프레젠테이션

- 온라인 마무리 활동은 한국과 필리핀 교사와 학생 모두 준비하여 참가했습니다.
- 온라인 마무리 활동은 학습자가 사전에 녹화한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전통 노래, 춤, 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 온라인 마무리 활동에는 한국의 교류 선생님, 학생,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 하위 프로젝트 사전 이행

- SDG #2 굶주림 없는 세상
 - ✓ 커뮤니티 펀트리
급식소
- SDG #3 건강과 웰빙
 - ✓ 댄스 활동
춤바
- SDG #4 양질의 교육
 - ✓ Tudlo 프로젝트
현지 지역 사회의 6~9세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 교습

기타 활동

종류	활동내용 및 성과
수업 활동 후 피드백	필리핀 학습자들은 교육 경험의 본질적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수업 후의 이야기를 저널에 기재합니다. 이러한 저널은 교류 활동의 계기가 됩니다.

(3) 프로그램 참여 소감 및 제안

	교사명	내용
참여소감	Julian Winn Socobos	“세계시민이 되려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Josh Martinez	“학교 역사가 63년이 넘었다는 것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Dem Dorothy Bosque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Lloyd Gelian Quilaton	“언젠가 직접 한국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Regine P. Lagrim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때에도 학생들은 더욱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주었습니다." • "간단한 게임을 활용해서 수업 내용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팀워크는 꿈을 이루게 하는 수단입니다."
후속 활동 계획	<p>하위 프로젝트 사전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 #2 굶주림 없는 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팬트리 급식소 • SDG #3 건강과 웰빙 댄스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줄바 • SDG #4 양질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udlo 프로젝트 <p>현지 지역 사회의 6~9세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 교습</p>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나은 공동체를 꿈꾸는 이해관계자들은 Sugbo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와 강력하게 연계하여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 이 프로젝트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가치를 홍보합니다. 	

(4) 사진



4교사- 활동 프레젠테이션(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한국-필리핀 우정 모자 샘플



5교사- 슬로건 프레젠테이션 (물 보존 홍보)



학생들의 결과물: 물 보존을 홍보하기 위한 창의적인 슬로건



6교사- 결과물 발표: 도시 정원 가꾸기에 사용하는 창의적인 재활용 화분



6교사: 제작 중인 결과물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와의 사진



프로그램 활동 개시의 일환으로 이해 관계자들은 Sugbo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인 Hon. Fortune I. Alforque 씨가 SUGBO 프로젝트 지원에 서약하는 사진



필리핀 학습자들이 Cariñosa 세레나데에 맞춰 춤추는 영상의 스크린샷



공모전



공모전

1. 공모전 수상자 명단(국내외)

2021. 8. 18,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국제교사교류실

(1) 국내 시상

구 분	이 름	파견 국가	파견 연도
최우수상 (1명)	안유정	태국	2019
우수상 (3명)	김선경	베트남	2018
	김성희	말레이시아	2021
	이재원	필리핀	2021
장려상 (5명)	김미리	캄보디아	2019
	유정남	필리핀	2021
	조수연	인도네시아	2018
	조현숙	필리핀, 몽골 (협력교사)	2017, 2018
	최홍길	베트남	2016

(참가상 제외)

(2) 국외 시상

구 분	이 름	국 가	초청 연도
최우수상 (1명)	Norsheila Binti Julmohamad	말레이시아	2019
우수상 (3명)	Mohd Al Khalifa Bin Mohd Affnan	말레이시아	2017
	Michelle Lim Chia Wun	말레이시아	2018
	Noel V. Sadinan	필리핀	2019
장려상 (5명)	Mohd. Saifullah Bin Mohd Jendeh	말레이시아	2018
	Khairunnisaa Binti Mohamad	말레이시아	2019
	Riski	인도네시아	2018
	Geroge B. Borromeo	필리핀	2018
	Honey Riza V. Yu Vega	필리핀	2021

(참가상 제외)